

건축사

킬럼 파리는 불타고 있다!  
특집 2009-2010 카시아 건축상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87  
<http://www.kira.or.kr>  
200911

## 파리는 불타고 있다!

Lamentableness of Our Reality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했던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제목이다. 절수하던 독일군 부대에 상부로부터 파리 전체를 불태우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을 하던 독일군 지휘관은 차마 파리를 불태우지 못하고 그냥 철수한다. 거짓 보고를 듣고 파리가 불타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사령부에서는 '파리가 불타고 있다'는 노래를 내보내고…

만약 그때 파리가 불타 버렸다면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유물의 과반수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주는 8세기 무렵에 이미 인구 100만이 넘는 세계 4대 도시 중의 하나였다. 물론 목구조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의 왕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데 대하여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민족임은 역사의 흔적으로도 뚜렷이 각인되어 있다.

건축을 공부한지도 어언 30여년이 지났다. 세계 문화유산의 70% 이상이 건축물이나 '건축인은 문화의 창작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강의하셨던 은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그 말씀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갈수록 황폐해지는 현실 앞에서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조차 무색하다. 예로부터 사농공상(土農工商)이라 하여 각각의 신분에 따라 사회적 차별이 심했지만, 작금의 현실도 과거 못지않게 신분의 차이가 지나친 것 같아 분기를 누르기가 쉽지 않다. 계층에 따른 서열(hierarchy)이 그 모습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최근에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한 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늘날 신분차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무척이나 빵곤했다.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아 남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겨울철에는 연탄가스에 질식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다. 어린 시절 달동네에서 자취생활을 해 본 사람다면 누구나 연탄가스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렵던 시절에도 우리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정직, 질서, 예의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부정한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어도 가난한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다는 금전만능(金錢萬能)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옛말로 하면 임금, 정승, 판서, 사농공상 모두가 쌍놈인 세상이 된 것이다.

인간은 두발을 땅에 딛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신의 속성과 동물의 욕구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의 신적 속성은 점점 약해지고, 동물적 욕구만 강조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남기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이라는 화두를 따라 가지는 못할지라도 문화인의 긍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다.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보면서 불타고 있는 파리의 모습을 연상해 본다. 혹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세상을 불태우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박재웅 / Park, Jae-ung, KIRA  
박재웅 건축사무소

### 약력

-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 대학원,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조종위원
-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현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 세종 도시 중앙도서관 현상 결과를 보고

Report on Design Competition of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 Library

focus

최근에 말 많은 도시가 ‘세종시’이다. 전 정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것이 잘못 되었고, 공익을 해칠 수 있고, 국가의 운영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도시를 다시 정의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이미 모든 것을 검토하여 결정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다소간 문제는 있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 무리가 없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얹히고 지방선거까지 더해져 가히 난맥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이런 복잡한 도시에 지어지게 될 국립도서관 현상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구전체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경제논리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도덕적 헤이(moral hazard)’에 근거하고 있다. 즉 과욕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월가(Wall ST.)의 금융관련 회사들의 공적자금을 받아 명명을 유지하였는가 하면, 위기를 모면한 현재에는 자신들의 보너스와 급여를 인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선 경제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 단위들이 대규모의 덩치를 이용해, 공공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따라서 덩치가 커진 조직이라면, 사회적 기여와 재분배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덩치가 커졌다면, 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제도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도서관의 좋고 나쁨을 짓기 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고, 건축에 관한 직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격조건이 있는 분들이 현상설계의 심사를 맡게 된다. 이들의 결론은 공공으로부터 선택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매우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향후, 건축의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이용자들의 가치와 편의를 결정해 주는 것이 되며,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일이 된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선별과정을 기계적인 공학적 논리나, 서로 다른 입장의 심사위원들이 다수결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심사과정을 완료하는 일일 순 있지만, 공공에서 주어진 이용자들의 사용가치를 감안하여 중대한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는 매우 미숙한 과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언제다시 세종시의 운명을 겪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상설계는 또한, 젊은 건축사들에게는 기성 건축사가 되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프랑스의 도미니크 빼로는 파리의 국립도서관 현상을 계기로 국제적인 건축사가 되었고,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자에라풀로는 요코하마의 포트 터미널을 계기로 또한 국제적인 건축사가 되었다. 이는 모두 현상의 심사가 만들어 준 것이다. 그 많은 현상에서 우리가 배출한 건축사는 누가 있는가? 국내의 재능 있는 젊은 건축사들은 다수의 국내 기회에서 좋은 안을 내고 번번히 좌절하고 있고,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은 이를 보고 또 건축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세종시에 지어질 도서관도 이런 좋은 건축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당선안을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또 하나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제도적 정비나 심사를 공정하게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간낭비라 생각한다. 철학 없는 제도 정비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축의 가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희생이 될 순 없다는 것이다. 건축은 지어지는 순간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심사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과감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독립되어야 한다. ■



박인수 / Park, In-soo, KIRA  
(주) 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 희망제작소 도시공감연구소 연구위원

## 아파트 시대의 지속과 도시조직의 거대화

**Continuous Apartment Supply as Giant Cellgranuloma of Urban Fabric**

여전히 아파트 광풍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인천의 청라지구와 송도 일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의 줄이 백 미터를 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설핏 가슴을 채우는 기대란 건축설계 일거리가 당분간은 여전할 것이라는 안도감이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우려가 나머지 가슴 한 구석을 멍하게 만든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리곤 묻게 된다. 우리의 일상공간이 여전히 아파트여야 하는가, 그리고 형틀에 넣어 주조하듯 아파트를 짹어내는 공급방식이 과연 다음 세대의 우리들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를.

그런데 이런 기대와 우려를 누르고 또 다른 걱정이 슬쩍 머리를 듣다. 아파트가 보편적인 도시주택으로 자리하면서 점점 거대화되는 도시조직의 문제이다. 이는 도시건축의 위기이자 설계 산업 구조와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필지의 단위가 점점 커지는 도시는 활기찬 도시가 가져야 할 충분조건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아니, 턱없이 모자란다. 왜냐면 도시다움을 스스로 상실하게 하는 첨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많은 역사도시를 찾아 카메라의 렌즈를 들이댈 때면 갖게 되는 품격과 고즈넉함에 대한 생각들은 다시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으로 돌아오면 잊혀지는 망각의 편리함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와 그네들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스스로의 적극적 예단 때문일까. 적어도 도시는 은밀한 켜가 곳곳에 존재해야 하며, 이는 기억과 흔적으로 남아 전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필지 규모의 거대화를 통한 대단위 아파트 만들기는 분명 새로운 성질의 대상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필지규모의 거대화를 생산의 효율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리화한다면 적어도 다양한 설계집단이 상생하는 우리들의 소망과는 딴 방향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이는 결국 거대화를 추구하는 단지 생산 방식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질문으로서 나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더 없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변하고 만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주거건축에 대한 설계 계약 건수가 연간 4건 이하인 사무소의 비율이 전체 설계사무소의 73%에 달한다는 통계는 설계 산업과 도시건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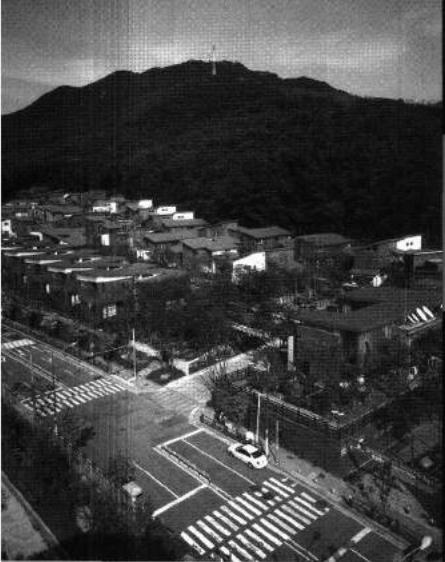
누구에게나 잘 들어맞는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잘 맞지 않는 아파트 건설과 공급을 이유로 도시조직을 거대규모로 만들어가는 작금의 현상은 분명 우리 모두가 고의로 눈을 감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도시조직의 거대화와 필지의 대형화는 앞으로 벌어질 변화무쌍한 도시상황의 변모에 대한 대응력을 상실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누리고 존중해야 할 우리들의 개별적 삶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뭉개버리고 마는 폭력이다. 당장의 달콤함과 어쩔 수 없음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떨쳐내고 걷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목청 돋움과 계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천으로 행동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규범이며, 건축설계의 현장에서 신념으로 밀어나가야 할 덕목이자 건축계 모두가 합의해야 할 오늘의 아젠다이기도 하다. ■



박철수 / Park, Cheol-soo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동대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
- 대한건축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  
도시설계학회 이사



2009-2010

# 아카시아 건축상

2009-2010 ARCSIA Awards

## 2009-2010 아카시아건축상 수상작 발표

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몽골건축사협회 주최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30차 ARCSIA 이사회 및 제15차 포럼에 앞서 15일과 16일, 양일간 2009-2010 아카시아 건축상 심사가 이루어졌다.

전체 12개 부문에 대해 우리 협회는 8개 부문, 총 11개 작품을 제출하였으며 4개 부문에서 골드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다세대주택부문(A-2:Multiple Family Residential Complexes)에서 최삼영(주. 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회원의 '용인동백 아펠바움'이, 공공시설부문(B-4, Public Amenity: Industrial Buildings)에서는 최동호(건축사사무소 미당소리)회원의 '주엽어린이도서관'이, 복합용도시설부문(B-6:Mixed Use Developments)에서는 윤세현(주.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회원의 '용산 I PARK MALL'이, 산업시설부문(C:Industrial Buildings)에서는 신춘규(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회원의 '아임삭 오창 공장'이 골드메달을 수상했다. 다음은 심사에 참여한 이근창 국제위원회 전문위원의 심사평이다.

## 심사 평

아카시아 건축상(ARCSIA Awards)은 회원국 내부 심사를 거쳐 제출된 작품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아시아 내 건축설계 관련 국제기구(아시아건축사협회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에서 수상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처음 상이 제정될 때에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보존시설로 대별한 후 시설별 특성에 따라 6개의 상이 주어졌으나 점차 다양한 건축물과 용도에 따라 그 수가 증가되어 현재는 주거시설에 3개, 상업시설을 세분하여 6개, 산업시설에 1개, 보존시설에 2개, 총 12개의 상이 주어진다. 물론 세분화된 분류 중 해당 분야가 애매하거나 작품의 독창성이 뛰어난 경우에는 별도의 명예상이 주어지기도 한다.

심사에 있어서는 1, 2차로 나누어 1차에는 간단한 서류와 작품 개요, 특징들만 심사한 후 2차에 본 심사를 하여 선출한다. 그러나 이번 몽골에서의 심사는 심사위원에게 자급되는 경비 부족으로 1, 2차를 겸하여 1회로 시행하게 되었다. 심사위원은 규정에 따라 각 Zone에서 1명씩 3명, 비아시아권에서 1명, 초청단체에서 Award Convener를 포함해 2명, 총 6명이 이를간에 걸쳐 자유 토론과 각자의 평점에 따라 최종 수상작을 선출한다. 올해에는 총 95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특히 단독주택부문에 14개 작품, 공동주택 부문에 11개 작품, 공공시설 중 호텔 및 여가시설에 11개 작품, 종교 및 공종시설에 13개 작품 등 회원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총 11개 작품이 내부 심사를 거쳐 제출되었다.

이번 국내에서 출품된 작품은 모두 입상이 가능한 작품이었지만 일본,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제출된 작품들과 끼운 경쟁을 거쳐야만 했다.

Category A-2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된 최삼영 건축사의 작품 용인동백 아펠바움은 협소한 대지에서 오밀조밀하게 일본형으로 풀은 일본작품과 생태건축을 앞세워 고층아파트에 층간 식생을 하고 자연채광을 한 싱가포르 작품과 경쟁을 했다. 그러나 옥외 공간과 내부공간과의 조화, 공동주택에서만 볼 수 있는 각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한 주민 공동시설과 배치, 지층으로 하여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 등에 큰 점수를 받아 영예의 골드메달로 선정되었다.

Category B-4 공공시설 중 교육시설로 분류된 최동호 건축

사의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총 8개 작품 중 홍콩, 싱가포르 작품과 최종 논란을 거쳐 골드메달에 선정되었다.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 친숙하게 고려한 점과 자연스러우면서 강한 이미지를 준 외관의 노란색 선형 외피의 도입에 많은 점수가 주어졌다. 내부의 아기자기한 평면배치와 외부 공간과의 연계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제반 부속설비가 심사 위원에게 큰 감명을 준 작품이었다.

Category B-6, 복합용도시설로 분류된 윤세현 건축사의 용산 I Park Mall은 출품작이 적었을 뿐더러 규모와 내용면에서 추종을 불허하여 쉽게 골드메달에 선정되었다. 야경을 찍은 사진과 복잡한 기능을 원활하게 해결한 건축사의 창의력 그리고, 친수공간과 어우러진 외부공간은 Mega City의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만족 시킨 점에 많은 점수가 주어졌다. 국내 작품 중 마지막으로 금상을 수상한 신춘규 건축사의 아임삭 오창공장은 Category C, 산업시설로 분류된 작품이다. 출품된 작품은 5개였으나 일본 건축사의 IT 공장과 최종까지 자동을 겨루어 힘겹게 선정되었다. 일본 작품은 공장의 기능을 만족하면서 큰 아트리움을 만들어 네방 방 부하를 조정하는 저에너지 기술을 도입하여 찬기를 받았으나 외관의 미려함과 적은 규모이지만 짜임새 있는 비례감과 재료의 선택 등에 더 많은 점수가 주어졌다.

최종결과로는 12개 분야 중 한국이 4개, 일본이 3개, 싱가포르 2개, 인도, 중국, 몽골이 각 1개 작품씩 골드메달을 받게 되어 한국 작품의 우수성이 충분히 표출된 수상이었다.

본 작품들은 ARCSIA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Architecture Asia (AA)에 게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있어 차기 AA잡지에서 다시 한번 더 접할 기회가 있게 된다.

작품을 출품한 국내 건축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 베트남에서 있을 차기 아카시아 건축상에도 회원의 많은 출품을 기대한다. 이처럼 국제 건축 작품상에 수상하는 작품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것은 이제 국내 건축 설계 작품이 문학과 비슷한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시장에서도 평가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근 창/2009-2010 아카시아건축상 심사위원,  
2007-2008 아시아건축사협회(ARCSIA)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전문위원



## 용인동백 아펠바움(SK Dong Baek Apelbaum)

Category A-2 · Gold Medal : Multiple Family Residential Complexes

설계자 최삼영/(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주)SK건설  
건축주 (주)모닝브릿지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증동 954번지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제 1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블록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대지면적	19,671.00m <sup>2</sup>
건축면적	5,659.99m <sup>2</sup>
연 면 적	9,759.04m <sup>2</sup>
건 폐 율	28.77% (법정 50%)
용 적 률	43.82% (법정 100%)
세 대 수	42세대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



이 프로젝트는 미국, 캐나다 등 외국 단독주택의 모방이 아닌 한국형 단독주택의 전형을 창조했다. 한국 전통적인 한국가옥의 안채, 사랑채 개념을 현대적으로 수용한 독특한 설계구조인 “채나눔”을 통해 안마당과 바깥마당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한국 최초의 목구조를 이용한 친환경주택 대규모 단지 형성으로 콘크리트 일색인 공간에서 탈피하여 건식공법을 통한 공기단축과 스스로 습도를 조절하고 단열성능이 우수한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혼합한 전원주택 성격의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입주자의 개성 있는 삶을 다양하게 담아내는 공간을 구성하여 이웃 간의 커뮤니티를 함께 엿어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였다. 각 세대별 공간개념에 “채나눔”을 적용하여 마당공간과 공동녹지를 연계하고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건축 유형별로 차별화된 개성 있는 공간창출과 주변 환경과 융화되는 건물을 배치하였다.

단지 뒤편의 석성산 녹지를 단지 내로 자연스럽게

유입하여 테마 수중 선정과 단지 유형지 내 야생목과의 조화를 이룬, 개성 있는 건축물의 조화를 유도하는 자연소재 시설물을 도입하여 녹도와 녹지의 그린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 건축의 다양성

- 개성 있는 삶을 다양하게 담아내는 공간
- 대지형상에 따른 평면의 다양화

### 환경 친화적 단지조성

-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각 필지 간에 자연스러운 레벨이 형성되어 상호간의 프라이버시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 석성산의 스카이라인을 그대로 단지 내로 유입하여 단지전체를 경사지붕 처리함으로써 자연과 일체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환경친화적 소재인 목조를 기본구조로 채택함으로써 자연습기 조절 및 환경유해 물질로부터 침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를 외장 재료로 선택하여 세월을 느낄 수 있는 단지조성

## 주엽 어린이 도서관(Juyeop Child Library)

Category B-4 Gold Medal : Public Amenity(Institutional Buildings)

설계자 최동호/건축사사무소 마당소리

시공사 (주)새미르종합건설

건축주 고양시장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22,

123번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어린이도서관

대지면적 1,500.00m<sup>2</sup>

건축면적 5,659.99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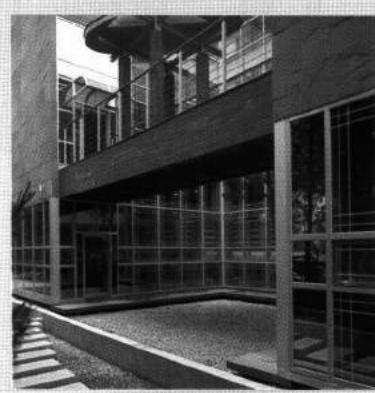
연 면 적 9,759.04m<sup>2</sup>

건 폐 율 748.33%

용 적 률 116.23%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어린이도서관과 만대루'

병산서원에 다가서면 가슴이 설렌다. 무엇보다도 그 좋은 자리에 만대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누마루에 오르면 당장은 자연 풍광의 파노라마가 한 눈에 펼쳐지는 시각적 흥분이 눈암을 가로지른다. 그 다음 천천히 몸으로 다가와 손에 달아인길 것만 같은 병산의 풍만한 자태와 복례문 앞의 배롱나무 꽃가지의 영글은 모습들, 낙동강 강물 줄기의 넓은 속가슴 속에 담겨있는 한 아름의 꽃다발 향기, 그리고 코끝을 자극하는 신선한 바람소리의 살 냄새들이 촉각적으로 온 몸을 감싼다. 이러한 병산서원의 만대루를 '바람의 춤'으로 표현 한다면 '촉각적시각성'일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더욱 감촉적인 만대루의 실결을 내 몸으로 답한다.

전통 건축은 단순히 시각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각적 표상으로 느껴진다. 나는 이러한 누마루가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한국 건축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만대루에서 춤을 추어보자.

이러한 만대루의 '감촉성'을 어린이도서관 설계에 중요한 이념으로서 건축화 시키는 것에 몰두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의 개념은 확실한 것이어야 하며, 쓸데없는 소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었다. 그래서 만대루를 그대로 옮기기로 하였다. 정확한 물리적인 크기는 물론이며, 감촉적인 누마루의 손맛을 놓쳐서는 안 되었다.

맨발로 책을 보는 도서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만대루를 어린이도서관으로 가져 오는 일이다. 처음부터 생각한 만대루의 구조를 소중하게 지속시켜야 한다.

건축은 눈맛 뿐만 아니라 손맛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시각적 감촉성의 속성을 갖는 건축이 그 '맛의 미학'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맨발로 걸어보는 만대루의 촉각성을 어린이 도서관에 담아본다.

〈글\_최동호〉

## 용산민자역사 아이파크몰(Yongsan Railway Station Complex I' PARK MALL)

Category B-6 Gold Medal : Mixed Use Developments

설계자 윤세한 · 남기홍 · 김태만/(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주)현대산업개발

건축주 (주)현대아이파크몰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역사, 전자의류전문점, 멀티시네마

대지면적 126,930.74m<sup>2</sup>

건축면적 56,285.82m<sup>2</sup>

연면적 272,333.77m<sup>2</sup>

건폐율 44.35%

용적률 138.57%

규모 지하 3층, 지상 9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용산민자역사는 배후 공작창 부지를 포함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및 경부선 고속철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서울시의 용산부도심 개발계획의 일부로서 서울시내에 국제업무 중심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 부지 및 한강로변 낙후지역의 재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1998년 8월 현상설계를 시작으로 2003년 3월까지 설계기간만 거의 5년 동안 진행되었던 용산민자역사 프로젝트는 규모면에서나 프로젝트 수행기간 모두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연면적 8만여 평의 대규모 복합건물은 앵커기능의 전자전문점과 패션전문백화점, 영화관 등이 역사 를 중심으로 환형으로 배치되고 이를 연결하는 리테일 몰로 구성되는 순환형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선상부의 멀티데크형 주차장에서의 수평적인 보행자 접근은 이런 수평적인 순환체계를 지원하고, 각 시설들은 내부지향적으로 되기보다는 데크 상부의 중심광장을 둘러싸고, 어메니티(Amenity)를 높여, 방

향성이 분명한 외부지향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공간체계는 Station Park의 상위개념에 의거하여, 역사광장의 외부지향적 오픈스페이스 뿐 아니라, 콘코스 아트리움을 포함하는 데크레벨 상의 중심광장이 외부공간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동서 간 20여 미터 폭의 자유연결통로가 보행자로화하여 연결되고, 이곳에서 다양한 도시 내 옥외 행위들이 발생하도록 배려되었다. 이 입체적 오픈스페이스 시스템은 1차적으로 한강로변에 이어지는 용산가족공원으로부터의 녹지축을 동일한 보행축으로 대응하여, 2차적으로 개발되어질 후면부 용산역세권 철도부지 개발 시에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입체 보행 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현재 용산민자역사를 필두로 주변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 또한 해안건축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용산역에서 시작된 지역 활성화의 의미들을 도시 내에 적극 구현하고 있다.

## 아임삭 오창 공장(Aimsak Ochang Factory)

Category C Gold Medal : Industrial Buildings

설계자 신춘규/CGS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주)팀아십일건설

건축주 (주)아임삭



대지위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313-1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군용항공기지구역

주요용도 공장

대지면적 10,802.70m<sup>2</sup>

건축면적 2,434.08m<sup>2</sup>

연면적 5,303.38m<sup>2</sup>

건폐율 22.53%

용적률 47.61%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공장동 : 철골조

사무동 및 후생동 : 철근콘크리트조



Aimsak은 충전용 전동공구를 개발,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수원에서 오창으로 이전을 하면서 새로운 공장을 짓게 되었다. 요구된 프로그램은 창고 및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 약 1,000여 평의 공장시설과 300여 평의 사무/연구 공간 외 150여 평의 후생공간과 별도의 A/S 및 경비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지는 중부고속도로의 오창 IC에 인접하여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북측 끝자락에 위치해있으며 중부고속도로에 면해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잣나무 숲의 나지막한 언덕이 면해있고 동쪽으로는 중부고속도로, 서쪽으로는 오창 산업도로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AT라고 하는 동물사료공장이 30미터가 넘는 매스를 갖고 면하고 있었다. 특히 AT 사료공장은 거대한 매스와 함께 사료 냄새가 자주 나는 편이어서 시설의 배치계획에 지대한 결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요구된 서로 다른 기능을 동으로 분리하고 동 사이에 공간을 두어 외부 공간

으로서 각각의 독특한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공장동과 사무동 사이의 '아임삭 밸리'라 불리는 사이공간은 3내지 4미터의 폭과 48미터 길이의 반 외부공간으로, 사무동과 공장동을 내외부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활력 공간이 된다. 또한 사무동의 매스와 후생동 사이의 브릿지 아래 공간은 주출입 공간으로서 상징성을 갖는다. 아임삭 밸리에서부터 빠져 나온 브릿지로 후생동과 2층에서 연결을 하고 브릿지가 주출입구의 캐노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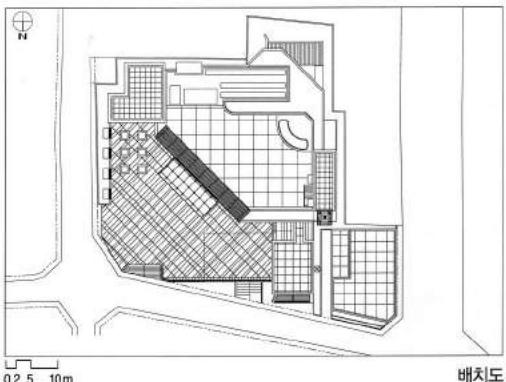
공장동은 작업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로 외벽과 지붕의 일부를 마감했다. 이는 야간작업 시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빛이 아임삭 밸리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어 새로운 야간 경관을 제공해 준다.

사무동의 열려있는 부분은 알루미늄 커튼월로 마감하고 닫혀있는 부분은 칼라강판과 적삼목 사이딩을 적용했다. 이는 공장동에 적용된 은빛 폴리카보네이트와 대조적으로 무게감을 갖고 안정감을 준다.

# 약수교회

YAKSOO Presbyterian Church

최동규 / 정희원,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kyu, KIRA



배치도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2-87번지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부마감	T4mm알루미늄복합페널,
주요용도	종교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T24mm투명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대지면적	2,669m <sup>2</sup>	내부마감	집성보드위 수성페인트, 음향반사판, 천정 : 집성보드위수성페인트, 바닥 : 화강석물갈기
건축면적	1,305.03m <sup>2</sup>	구조설계	(주)동양구조엔지니어링
연면적	9,627.15m <sup>2</sup>	설비설계	(주)기한엔지니어링
건폐율	48.90%	전기설계	대경전기설계기술사사무소
용적률	123.32%	설계담당	이경주, 김인철, 김지희
규모	지하 4층, 지상 4층		

건축, 회화, 작곡 등의 예술분야의 소산들은 만든 이의 구상이 뚜렷할 경우 그 성취가 더 돋보일 수 있다. 약수교회의 건축계획을 구성할 때 두 가지의 개념이 현재의 교회모습을 만들게 되었다.



좌 :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고기잡는 모습  
우 : 커피 포트

첫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서 고기 잡는 모습의 이미지인데,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는 배는 즉 교회이고 그물 속에 담겨있는 고기와 그물은 바로 현재 작지만 독립되어 존재하는 친교실 로뎀카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예수 믿는 신자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인데 전도를 할 경우 교회예배당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오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에 해당하는 친교실 이 전도대상자와의 전략적 만남이 부단히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세속적으로 흔히 말하는 커피숍에서의 만남은 아무도 거부하지 않을 만큼 우리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공간이다. 여기서 친교를 충분히 한 후에 교회예배당으로 인도하는 전략적 1단계 공간을 별채로 독립되어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 전통건축에서도 사랑채공간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교회의 형상과 직접 관계되는 이미지인데 도시를 빙틈없이 메우고 있고 메워가는 건축의 모습을 보라. 온통 수직과 수평의 힘에 종속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수직과 수평이 건축을 만드는데 아주 쉬운 기본이 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한다. 그러나 원래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은 이에 구속되면 안 된다.

인간이 만든 작은 물건들은 오히려 자유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미지인 수제 커피메이커를 보면 약수교회의 모습이 유추된다. 하필이면 커피메이커냐고 한다면 그에 대한 답변은 그저 감수성의 한 측면에서 이 모습을 원용하여 약수교회가 수직과 수평 속에 함몰하는 현대건축에서 빠져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오른편에 데크와 본건물과 분리되어 놓인된 친교공간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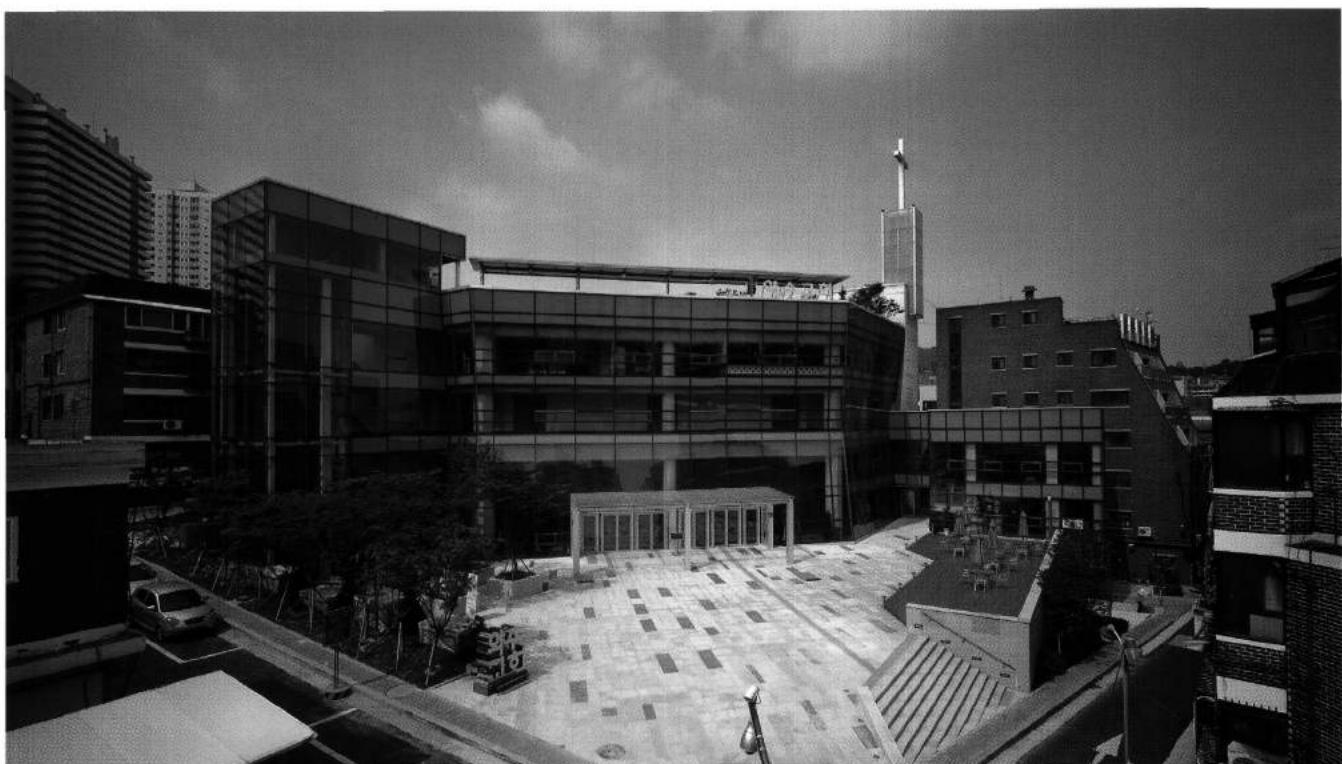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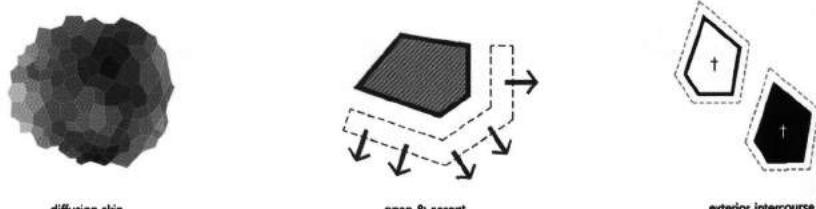
악수교회 전경

이제는 건축의 외피에 온통 유리가 차용된 이유를 말한다면 북카페 친교실의 외피가 유리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이해가 될 것이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벽으로 둘려 쳐진 구속감을 느끼는 공간에 있기 싫어할 것은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열린 교회 개방감을 부르짖는 개신교 모토에서

유리는 투명성이 담보된 아주 좋은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제 약수교회는 친교공간이나 본 건물에서나 사용자들의 시야가 구속받지 않는, 어느 공간에 있든지 구속감이 없는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

Diagram





1. 약수교회 천장  
2. 로비암의 빛동실 공간의 아경  
3. 지하 1층 미당과 성부 간들의 애경  
4. 벤치에서 플린터를 통하여 멀리 데크와 친교실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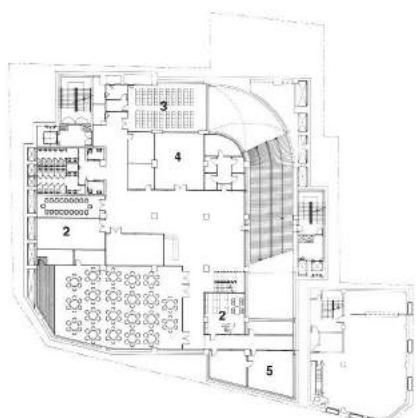
01\_ 종교학세미나실 05\_ 선교자료보관실 09\_ 부교역자실  
02\_ 종교학회연구실 06\_ 식당 10\_ 대예배실  
03\_ 목회학연구실 07\_ 시청각실 11\_ 친교마당  
04\_ 신학연구실 08\_ 회의실 12\_ 성서열람실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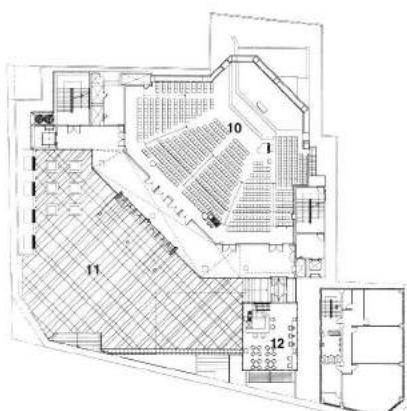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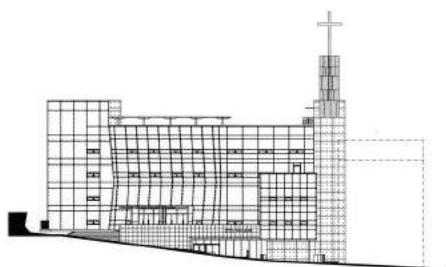


0 2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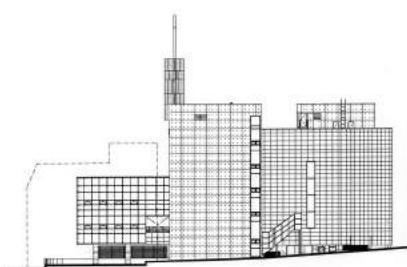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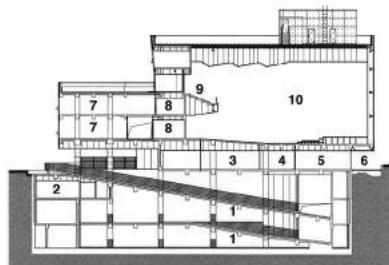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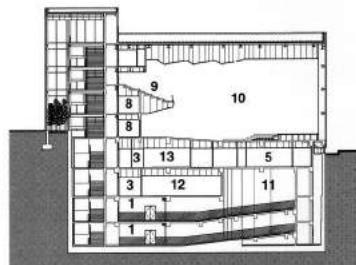
우측면도

- 01\_ 주차장
- 02\_ 선교자료보관실
- 03\_ 훌 및 복도
- 04\_ 사무실
- 05\_ 달회장실
- 06\_ 성당
- 07\_ 성서열람실
- 08\_ 출
- 09\_ 방코니석
- 10\_ 대예배실
- 11\_ 주차램프
- 12\_ 모회학연구실
- 13\_ 부속실



0 2 5 10m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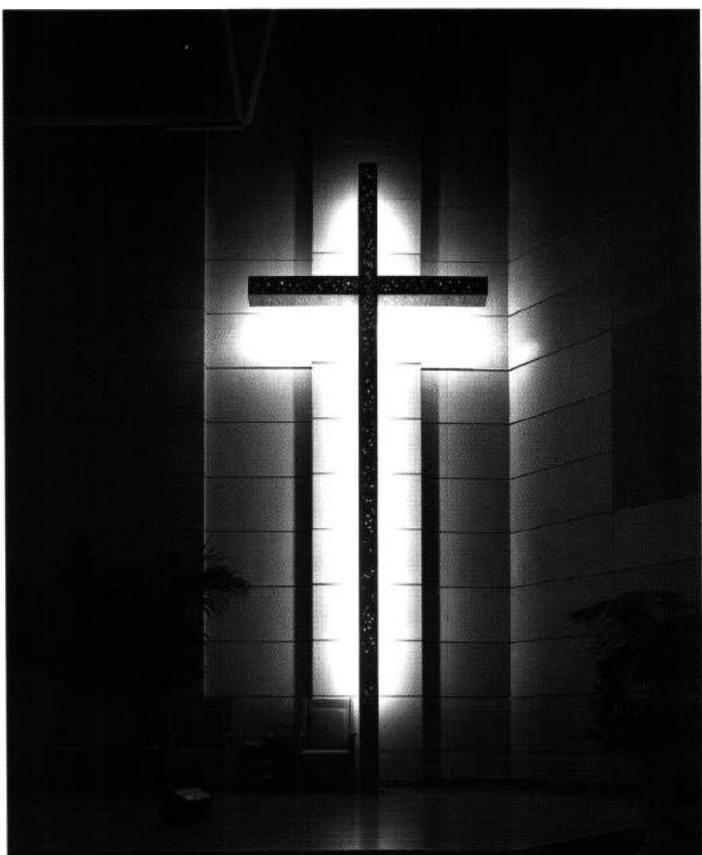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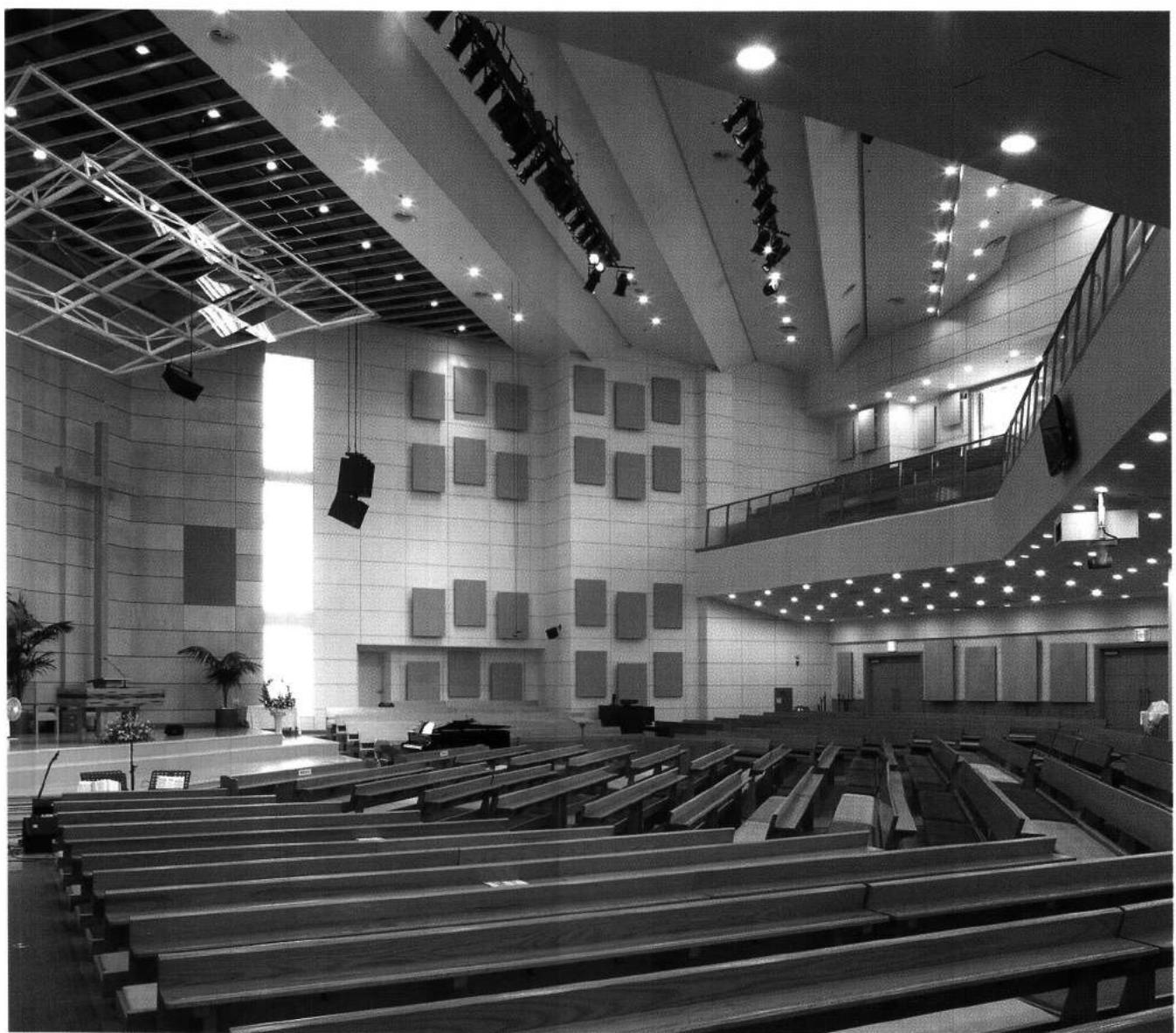
횡단면도



1. 데크와 친교실 그리고 본건물 상부의 종탑 아래
2. 전면 대문 일부에 벤치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  
하도록 하였다.
3. 6개의 콘크리트 플란테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
4. 카페

5. 대예배실
6. 2층에서 1층 로비를 내려다 본다.
7. 목재로 디자인된 나무신자기의 틀을 통하여 숨  
겨진 빛이 네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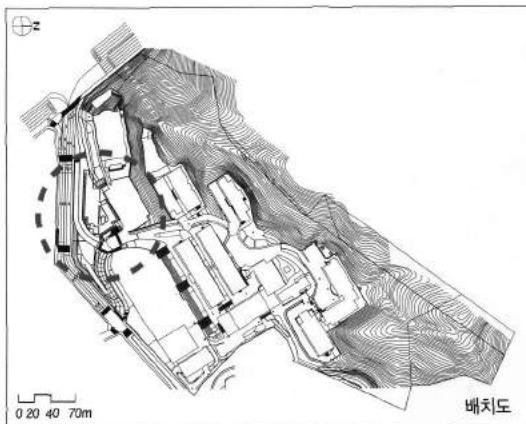


# 대림대학 홍지관

Daelim University College Hong gi BLDG.

방인대 / 정회원, (주)아키피아 건축사사무소  
by Bang, In-dae, KIRA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26-7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분지구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일반철골조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대학)	외부마감 회강석바나구미, FalZinc, 칼라복층유리
대지면적 107,849.40m <sup>2</sup>	내부마감 화강석 물감기, 수성페인트
건축면적 1,667.12m <sup>2</sup>	구조설계 오프스털
면적률 8,632.67%	전기설계 수연 엔지니어링
건폐율 17.45%	시공사 청원 엔지니어링
용적률 62.33%	설계담당 최방은, 정규정, 서호직, 유방근



**Prologue**\_대림대학은 관악산 기슭에 위치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수려한 경관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건물은 학교 교지 초입에 위치하고 경수 산업도로에 접해 있다. 부정형 삼각형인 형태로 협소한 부지로 대지내의 경사도가 심하고 기존 진입도로를 철거하여 진입도로를 우회시켜 확보한 부지로서, 공연장을 포함한 다목적용도와 프로그램, 그 안에 담아야 하는 많은 기능들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으나 이 부분들이 계획의 출발점이 되었다.

홍지관 건물은 대학의 진입 정문에 위치하여 랜드마크적 상징성 및 구심적 장소와 지역사회일원으로 문화의 향연이 펼쳐지는 장소성을 갖는다. 건물의 배치는 기존 건축물 질서의 측에 부합하고 교지 내 주변건물의 중심적 위치로서 교육의 다목적 기능의 역할과 교내 동선의 큰 줄기가 되어 캠퍼스 전체 건축물 흐름을 기준 도로와 진입로를 연결을 통해 인간과 건축, 휴식과 교육을 효율적으로 소통시켰다.

경사가 급경사이고 높이 차이가 큰 지형(고저차 -18m)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에서는 공연장 무대로 연결되는 장비출입구, 1층에서는 기존 주차장부지와 공연장 출을 연결시키는 지하통로 및 외부에서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 2층에는 건물을 주로 이용하고자 하는 로비 주출입구, 3층에는 대학의 주연결 동선이며, 운동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강의동 출입구로 지형 Level에 맞게 각각 두어 지형에 순응하면서 건물전체를 이어주는 보행동선체계를 형성하였다.

평면구성에는 위계를 두어 건물에 공간적 질서를 부여하였고 공용 공간, 주기능 공간, 서비스 공간의 순서로 구분하여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에 중점을 두었다. 내부와 외부의 연결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연문화 공간을 저층부(지하 1층~1층)에 계획하였고, 중층부에는 서비스공간을 두어 외부적으로도 Mass를 분리시키고 상층부(3층~6층)에는 강의공간을 두어 층별조닝을 통한 각각의 공간을 서로 다른 형태와 독립적 기능을 갖게 하였으며 교류, 휴식, 교육 및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공간을 창출하였다.





중점을 통한 건물전체에 자연환기, 자연채광을 통한 L.C.C(생애주기비용)를 저감하였으며, 공중정원과 테라스의 휴먼 스케일 공간은 이용자들에게 편안함과 쾌적감, 안정감을 제공하였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였다.

경수산업도로에서 보이는 작은 Volume이 교내로 접근하면서 건물 전체의 볼륨(Volume)을 인지시키는 입체의 변화와 진입하는 접근로에 따라 다양한 표정의 매스(Mass)를 읽히어 지도록 하였다. 원형기둥을 노출시켜 필로티로 처리한 중층부의 필로티는 단순한 필로티가 아니라 공간소통을 위함이며, 미래를 향한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이용자로 하여 열린매개공간으로 동선의 시발점으로 유도하였다. 그리고 외부의 석재마감과 정면의 커튼월은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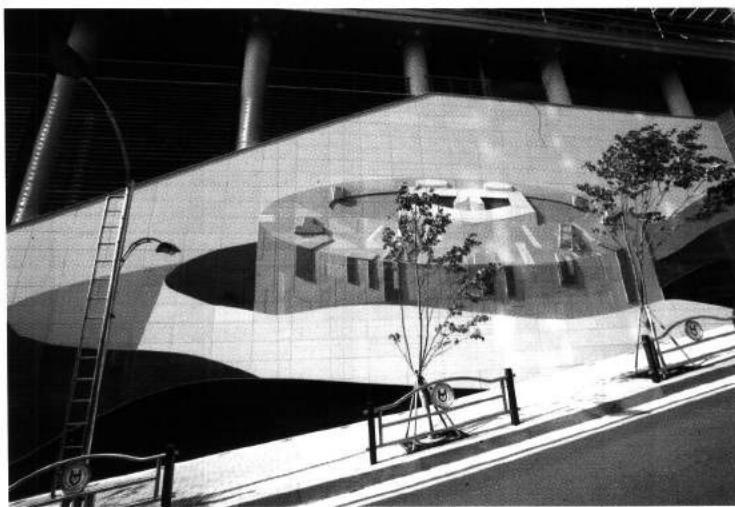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반지하구조로 경제적인 토목설계와 주변건물과 지형

의 조망권을 고려한 휴게코너를 두었고, 조형성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매스 구성, 용도별 적정한 천정높이와 기능별 커튼월의 루버를 두어 일조량을 조절하였다.

**Epilogue**\_부지가 가진 접근의 한계가 아쉬웠지만 외부적 형태와 내부기능의 연결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부딪힐 때마다 차선책과 타협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본 Project수행이 이 지역의 공공건물로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친근해지고 인간과 인간이 교류하는 장소로서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일부가 되기를 희망 한다.

대림대학 홍지관 건물은 2009년 안양시건축문화상 아름다운건축물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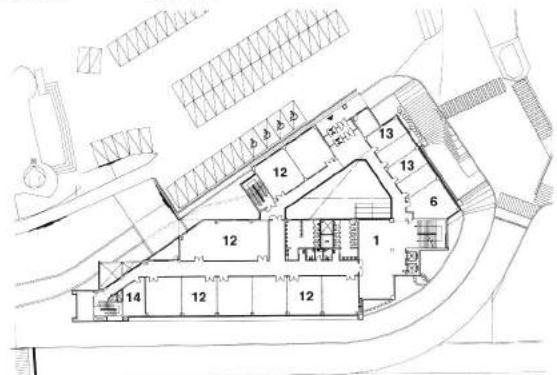




01\_ 옥  
02\_ 준비실  
03\_ 강단  
04\_ 부속실  
05\_ 조경실

06\_ 준비실  
07\_ 다목적홀  
08\_ 로비  
09\_ 중정  
10\_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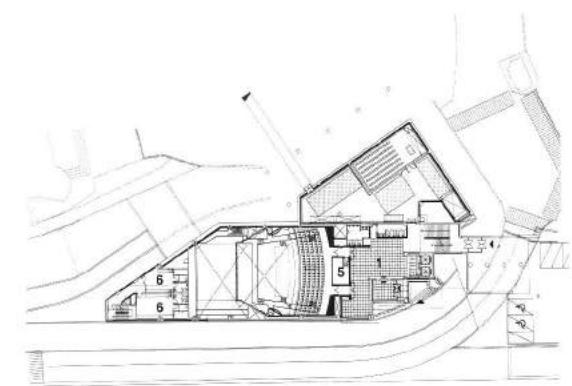
11\_ 연습실  
12\_ 강의실  
13\_ 연구실  
14\_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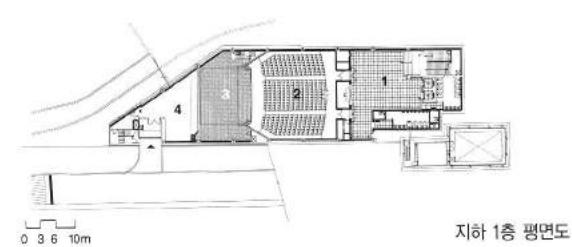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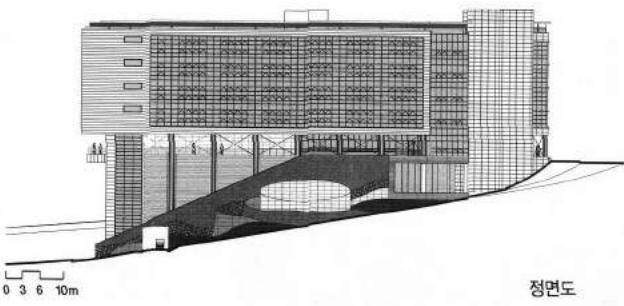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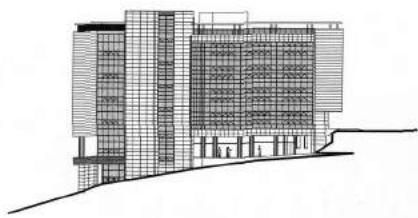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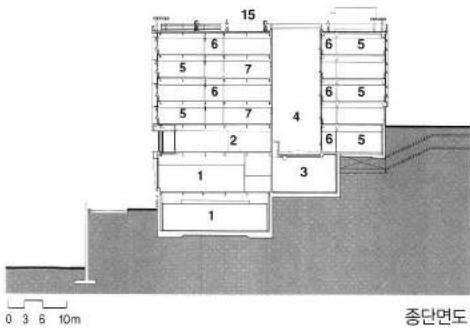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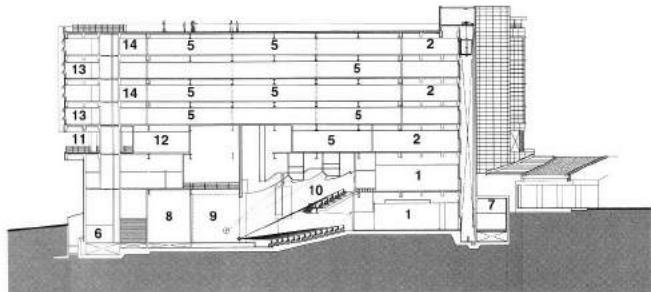
1	2	4	1. 북서쪽전경
3	5	6	2. 중정
3	5	6	3. 정문전경

- 4. 공연장관람석
- 5. 옥상 허宁县원
- 6. 2층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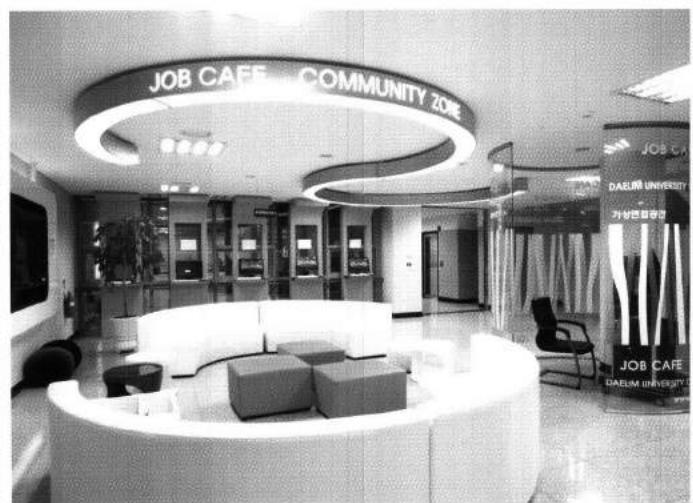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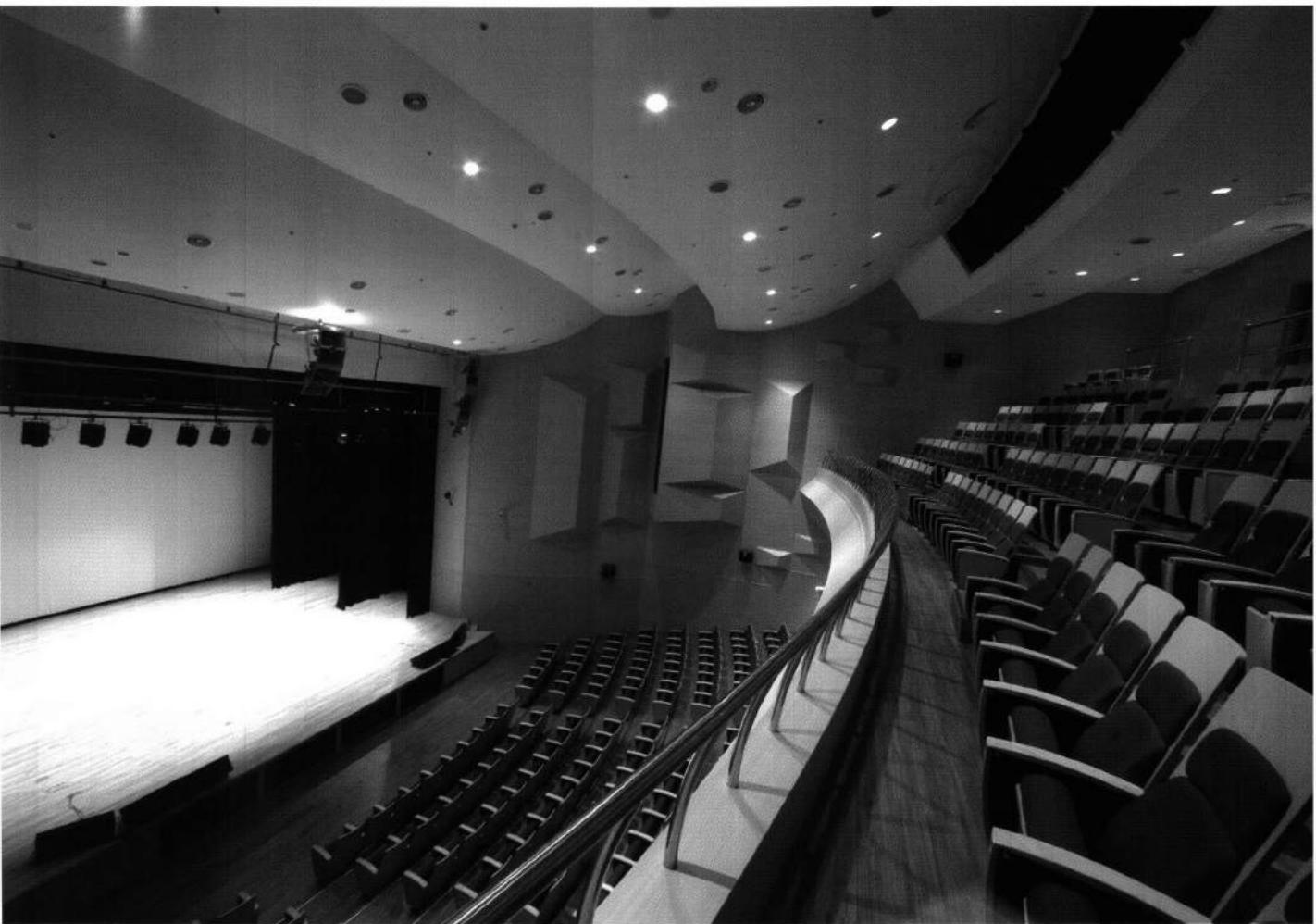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 01\_ 대기홀
- 02\_ 출
- 03\_ 기계실
- 04\_ 중정
- 05\_ 실습실
- 06\_ 복도
- 07\_ 화장실
- 08\_ 부속실
- 09\_ 강단
- 10\_ 대강의실
- 11\_ 대리스
- 12\_ 연습실
- 13\_ 휴게홀
- 14\_ 재료준비실
- 15\_ 공중첨원

# 문화 여성병원

Mun Wha Woman Hospital

박홍근 / 정희원,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by Park, Hong-guen, KIRA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86-7번지 위 6필지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지역/지구	중 주거지역/ 일반 미관지구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용도	의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	인도사암, T16mm 저반사 복층유리, 알루미늄 수평루버
내지면적	2,173.00m <sup>2</sup>	구조설계	센구조
건축면적	816.48m <sup>2</sup>	설비설계	좋은 ENG
연면적	4,702.66m <sup>2</sup>	전기설계	신기승 ENG
건폐율	37.57%	설계담당	이광덕, 송승룡, 이세영, 권경삼, 정재곤, 류연아
용적률	193.38%		



여성을 위한 전문병원인 만큼 여성의 임신부터 산전 관리, 여성을 위한 검진, 출산을 위한 공간, 산후조리와 소아건강관리를 위한 공간… 이러한 모든 행위가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병원의 기능을 One-Stop Service 체제로 구축하여야 했고, 주거지에 위치한 이점을 활용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시행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질환만을 위한 병원이 아닌 여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광주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대지는 주변으로 주택지와 학교, 문화예술회관 등이 위치하고, 전면으로는 광주의 관문인 북문로(35m 광로)에 접하여 인자성을 부각시키기 좋은 위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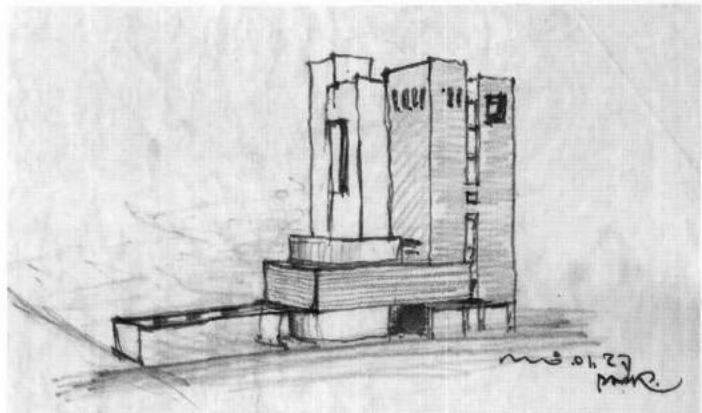
형태의 모티브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산모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광주를 품은 무등산 입석대의 장엄한 기상을 표현해 보고자 했다. 그래서 매스를 분절하고 끼워 넣고, 약간 비틀기도 했다. 또한 건축물과 도시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도시와 자연으로 열린, 병원이라기보다는 휴식처로서 자리하는 풍부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적 장치를 사용하였다. 내부에 산입된 정원과 건물 부분 부분에 자리한 창으로 인해 외부로의 시각을 열어 둠으로써 도시와의 연장선을 구축하였다.

병실과 복도의 폭을 반영한 커다란 Mass를 세우고 이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산모의 모습을 더한 형태로 내부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외부로의 조망을 확보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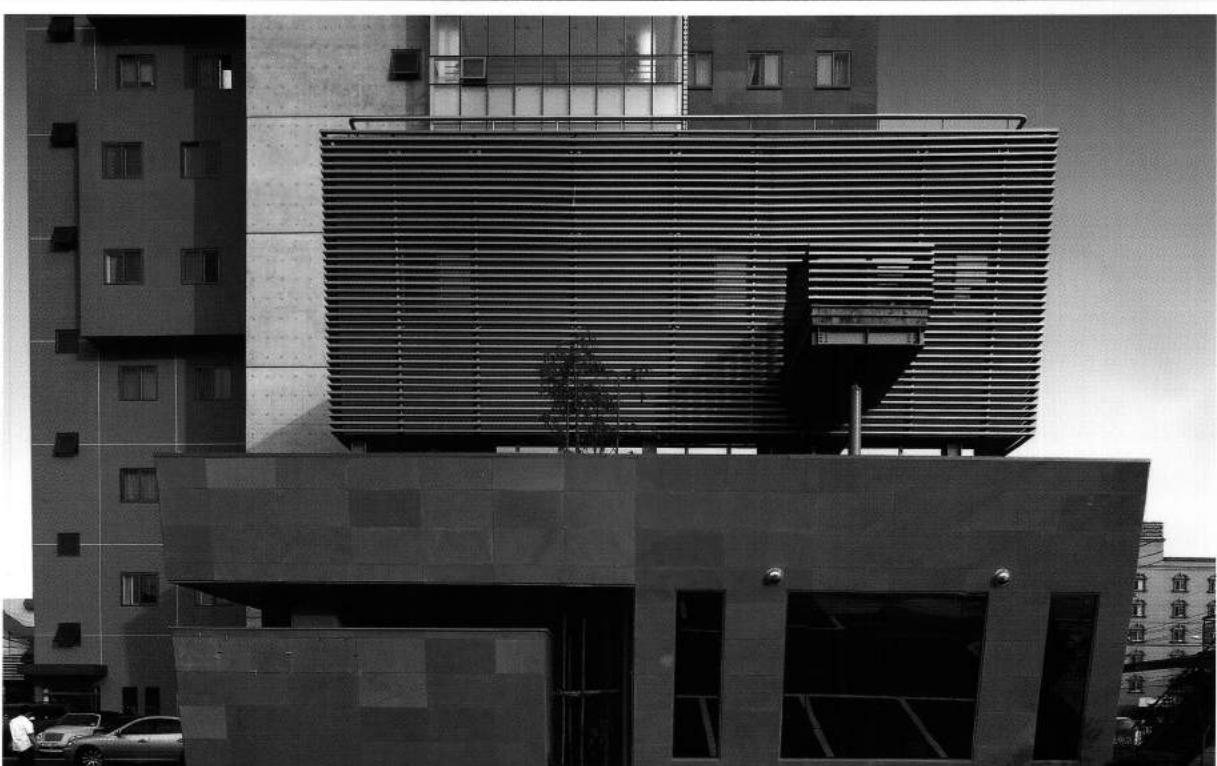
지상 1층에는 외래진료부, 문화센터 등을 두어 접근성 및 이용 빈도를 높이려 하였고, 2층에는 수술실, 신생아실을 두어 상층의 입원실과 외래진료부와의 동선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3, 4층에는 소아과와 산부인과 입원실을 두었고 입원실은 전면도로에서의 소음 해결을 위해 도로변과 이격 하였다.

5, 6층에는 산후조리원을 계획하여 병원기능의 완성도를 높이려 하였으며 산후조리원 내부를 연결하는 별도의 계단을 두어 내부동선을 원활하게 하고, 7층에는 부속시설을 두어 각각의 기능을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조성을 형성하였다. ■







01_ 기계실	06_ 문화센터	11_ 신성아실	16_ 1인실
02_ 물탱크실	07_ 원무과	12_ 문방대기실	17_ 흡
03_ 창고	08_ 진찰실	13_ 기족분만실	18_ 특설
04_ 간호사경의실	09_ 접수	14_ 수술실	19_ 식당
05_ 로비	10_ 대기홀	15_ 회복실	20_ 6인실



7층 평면도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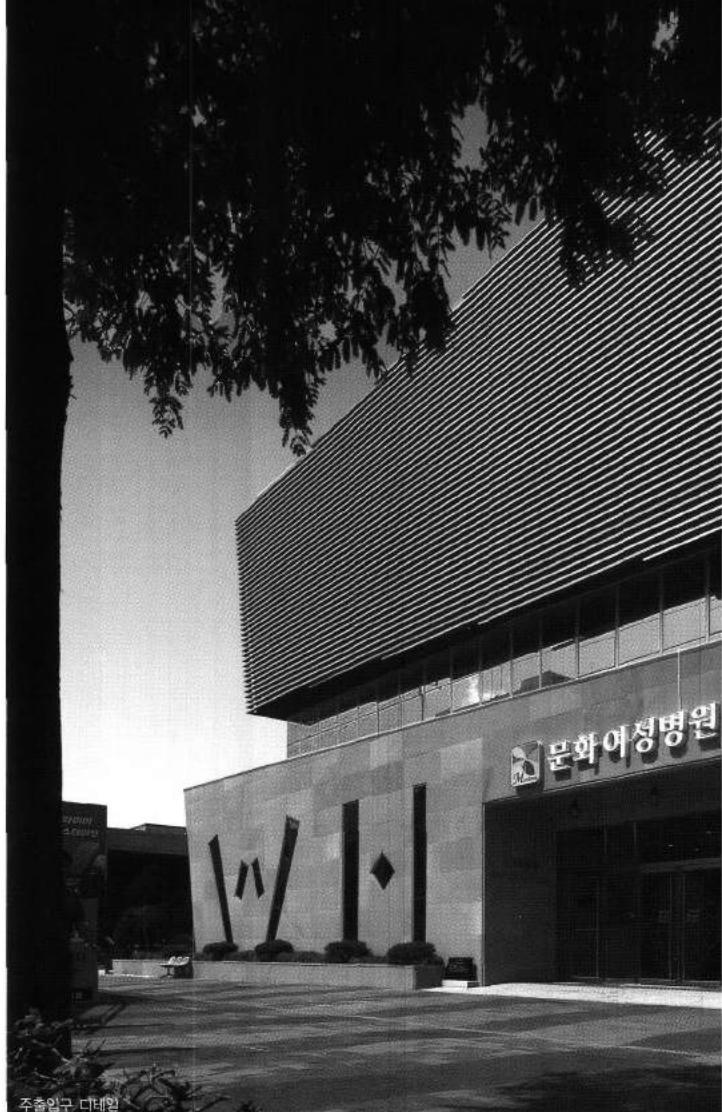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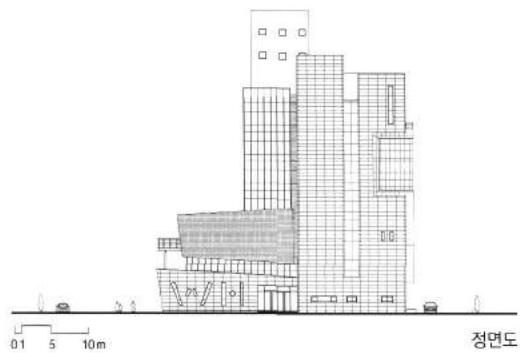
0 1 5 10m



주출입구 디테일



E/V층 외부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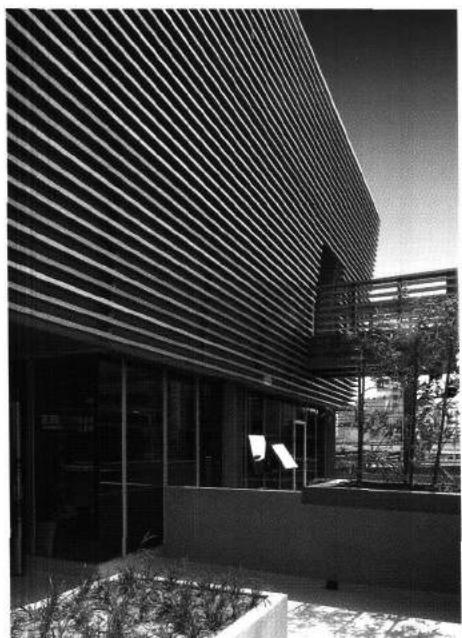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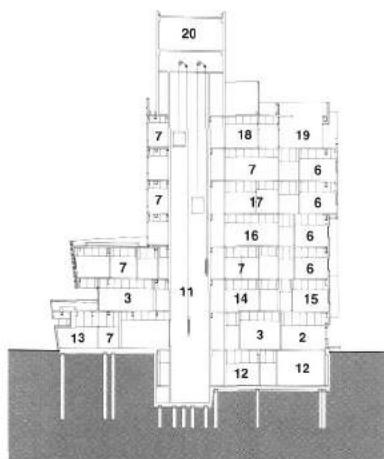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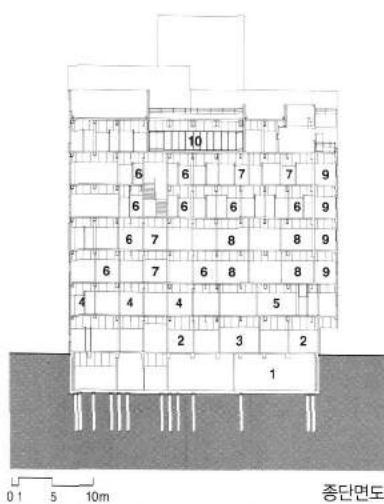
1. 7층 목상청원	4. 3층 소이과대기 출
2. 3층 옥상정원	5. 7층 EV 출
3. 3층 대기 출	6. 주출입구 및 안내 데스크



01_기계실	08_특실	15_가족분만실
02_진찰실	09_탕비실	16_간호사실
03_대기홀	10_육상정원	17_찜질방
04_가족분만실	11_승강로	18_식당
05_수술실	12_창고	19_온산정원
06_1인실	13_X-레이이실	20_물탱크실
07_홀	14_중앙공급실	



횡단면도



종단면도



# 이도재(履道齋)

New Man Society

김상진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가현(佳軒)

by Kim, Sang-jin, KIRA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572번지	용적률	37.52%
지역/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종지구단위구역/환경정비구역/상수원보호구역	규모	지상 3층
주요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지면적	694.68m <sup>2</sup>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합성목재, 칼리복층유리
건축면적	279.26m <sup>2</sup>	구조설계	성남구조 기술사사무소
연면적	260.61m <sup>2</sup>	전기·설비	(주)레트이엔지
건폐율	40.20%	설계담당	윤찬기, 김만영
		사진	이인미(비온후)

만남\_건축사로서 책임의식과 성취감을 동시에 남겨준 이도재 설계작업은 좋은 건축물이 탄생하기에는 건축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명언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준 프로젝트였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를 지내시고 당시 부산 금정성당 주임신부님으로 계시던 박승 원(나꼬메데스) 신부님을 본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로 만나서 작업에 착수 한 시기가 2006년 10월경이니 3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러 세상에 존재감을 들어낸 이도재이다.

본 건축물은 신부님은 은퇴 후 지인들과 같이 희랍어 원문의 성서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서당의 개념을 지닌 건축물을 하나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실천으로 옮겨져 시작된 프로젝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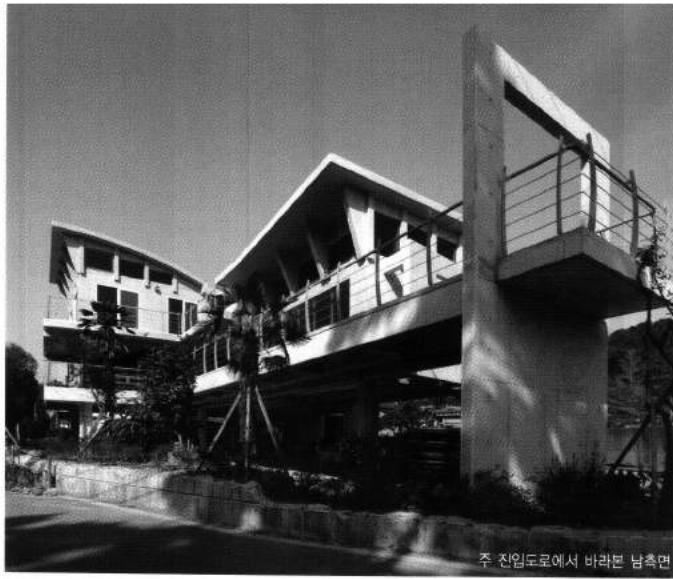
2008년 4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년 5월2일 착공해서 어려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1년 2개월 동안 공사를 마무리한 이도재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건축물이다.

본 작업을 착수 하게 되면서 건축주에게 요구받은 조건은 1층 전체를 필로티로 들어 달라는 주문과 연구실 겸 서재 그리고 성서공부를 위한 학습 공간과 작은 집회공간의 요구를 하였다.

대지 및 배치\_본 이도재가 위치한 마을은 부산에서 보기 드문 곳이다. 70년전 조성된 마을이고 2008년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로 인하여 전혀 개발되지 않은 도심 속 오지마을이다. 마을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작은 면단위 시골마을의 분위기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고 회동 저수지라는 큰 호수가 바로 앞에 있다. 처음 대지를 접하면서 주변의 자연 환경과 신축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로서 유채색의 색상을 건축물에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축주의 요청으로 송판문양 노출콘크리트와 합성 목재로서 마감을 완성 하고자 한 것이다. 전형적인 시골마을의 부정형한 대지로 배치와 평면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폭적인 지지와 건축사의 의견은 받아 드리신 건축주의 결단으로 본 건축물이 현재의 모습으로 건립 되게 된 것이다.

평면\_1층 필로티 주차장설치로 얻지 못한 마당의 개념을 연구실과 집회장 소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한가운데 부분인 지상 2층의 중간부분에 옥외데크를 설치하였고 천정을 개방하여 자연 채광이 데크 전체로 들어올 수 있





주 진입도로에서 바라본 남측면



주 진입도로에서 바라본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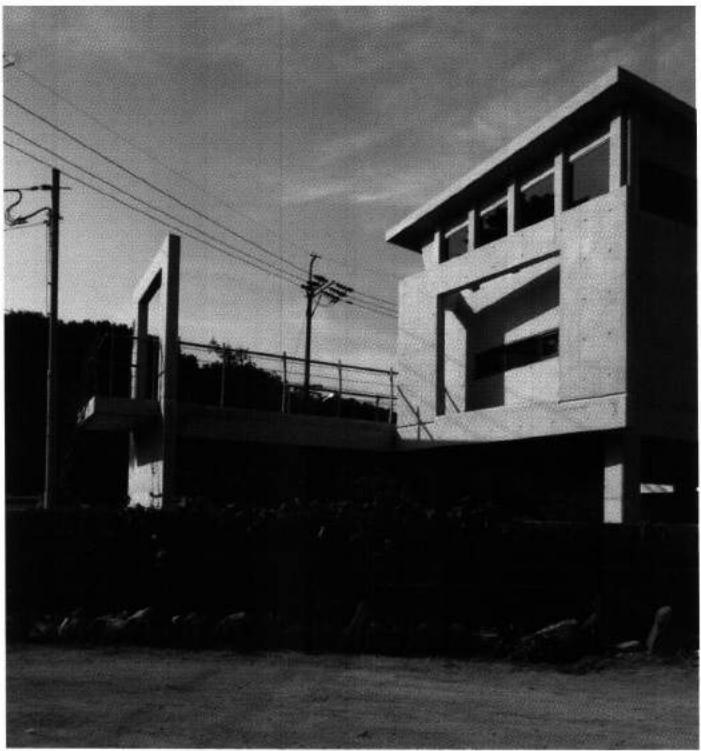
주 진입도로에서 바라본 서측전경

도록 하였고 데크를 최대한 건축물 외부로 돌출하여 그 연장선에서 남측전경인 회동 저수지의 푸른색 호수가 보이며 북측전경을 바라보면 마을의 뒷산 푸른 소나무 숲의 푸르름이, 동쪽 외부 브리지 난간에서 바라보면 물안개 자욱한 회동저수지와 이흡산의 봉우리들이 눈앞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부님의 집무실 2층에 있는 관계로 1층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주변의 자연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도록 평면 및 동선 계획을 한 것이다. 이 데크와 브리지는 계획단계 처음부터 계속하여 건축사의 의견으로 고집한 결과 지금은 본 건축물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고 건축주가 무척 좋아 하신다.

2층의 작은 집화실의 면적으로 인하여 작은 공간에서 느끼게 되는 답답함을 없애려고 1.5m정도를 천장을 들어 올려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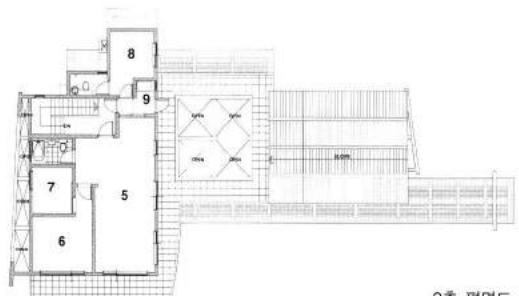
**외부디자인** 서측면 가벽 설치부분에는 본 건축물의 건립 취지를 외부인에게 알리기위한 하나의 큰 액자들을 설치하여 희랍어 원문의 성서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서당이라는 의미의 이도재 글이 새겨져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공정상 문제로 인하여 외부마감이 송판문양 노출콘크리트에서 일반 노출 콘크리트마감으로 마무리 되어진 부분과 당초 설계에 반영된 2층 옥외 데크부문의 합성목재 마감을 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울 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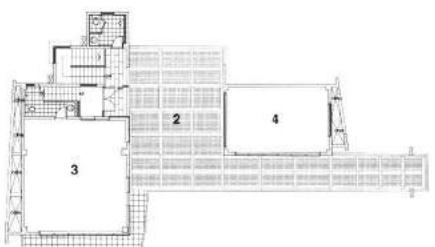


1. 주 진입로에서 바라본 남측전경  
2. 2층 옥외 데크에서 바라봄  
3. 벽면 전경  
4. 옥외 브릿지 연계 데크  
5. 동측 가벽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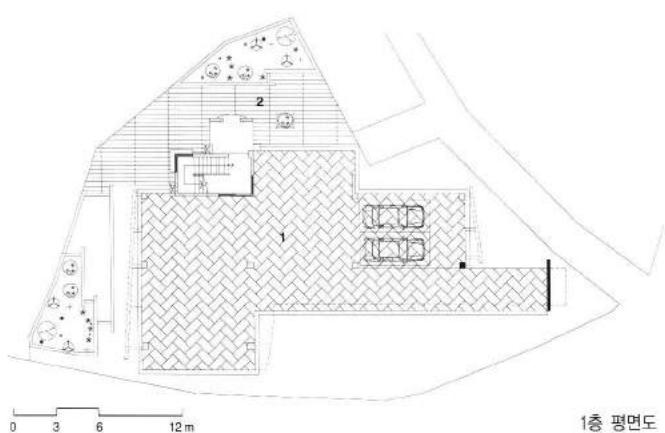
01\_ 팔로티 주차장 06\_ 침실  
02\_ 옥외 데크 07\_ 자료준비실  
03\_ 연구실/서재 08\_ 식복사실  
04\_ 교재 강연실 09\_ 다용도실  
05\_ 거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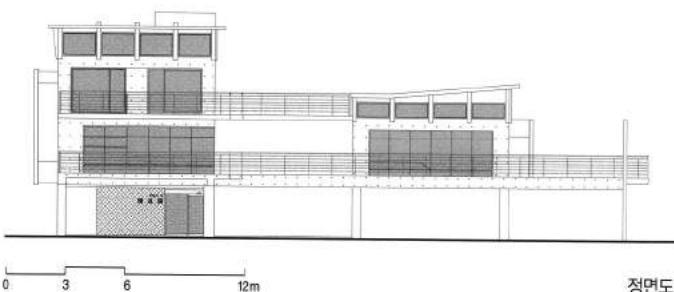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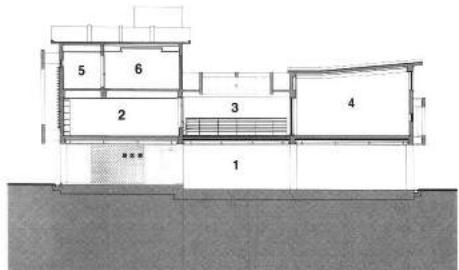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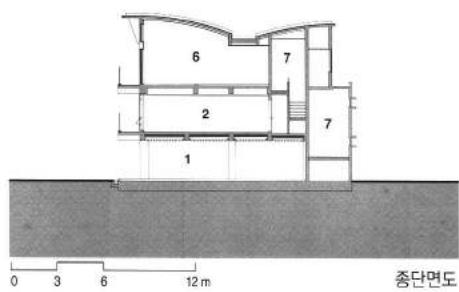


3층 계단실

01\_ 필로티 주차장 05\_ 화장실  
 02\_ 연구실/서재 06\_ 거실  
 03\_ 옥외 미크 07\_ 계단실  
 04\_ 교리 강연실



횡단면도



종단면도



2층 옥외 미크



2층 데크 상부 천장

#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Gyeong-Gi provincial Hospital for Elderly

노형래 / 정희원,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Roh, Hyoung-rae, KIRA

대지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146번지 외 1필지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지역/지구	관리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용도	의료시설	외부마감	토석벽돌쌓기, 화강석버니구이, 알루미늄 쉐트
대지면적	8,339.00m <sup>2</sup>	내부마감	화강석돌갑기, 강화미루, 무석면비닐타일
건축면적	2,503.08m <sup>2</sup>	구조설계	한울구조
연적률	6.924.48m <sup>2</sup>	전기설계	보우T&C
건폐율	30.02%	설비설계	삼십기계
용적률	57.04%	설계담당	고종준

## '따뜻한 집과 같은 병원'

노인전문병원은 종합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시설로서 입원환자들의 재원기간이 길고 환경적응이나 이동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물리적 치료에 앞서 평소 거주하던 '집'과 같은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본 계획은 노인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환자중심의 병원', '치유환경을 만족하는 병원', '자연친화적 병원', '변화·성장에 대비한 병원'을 주요개념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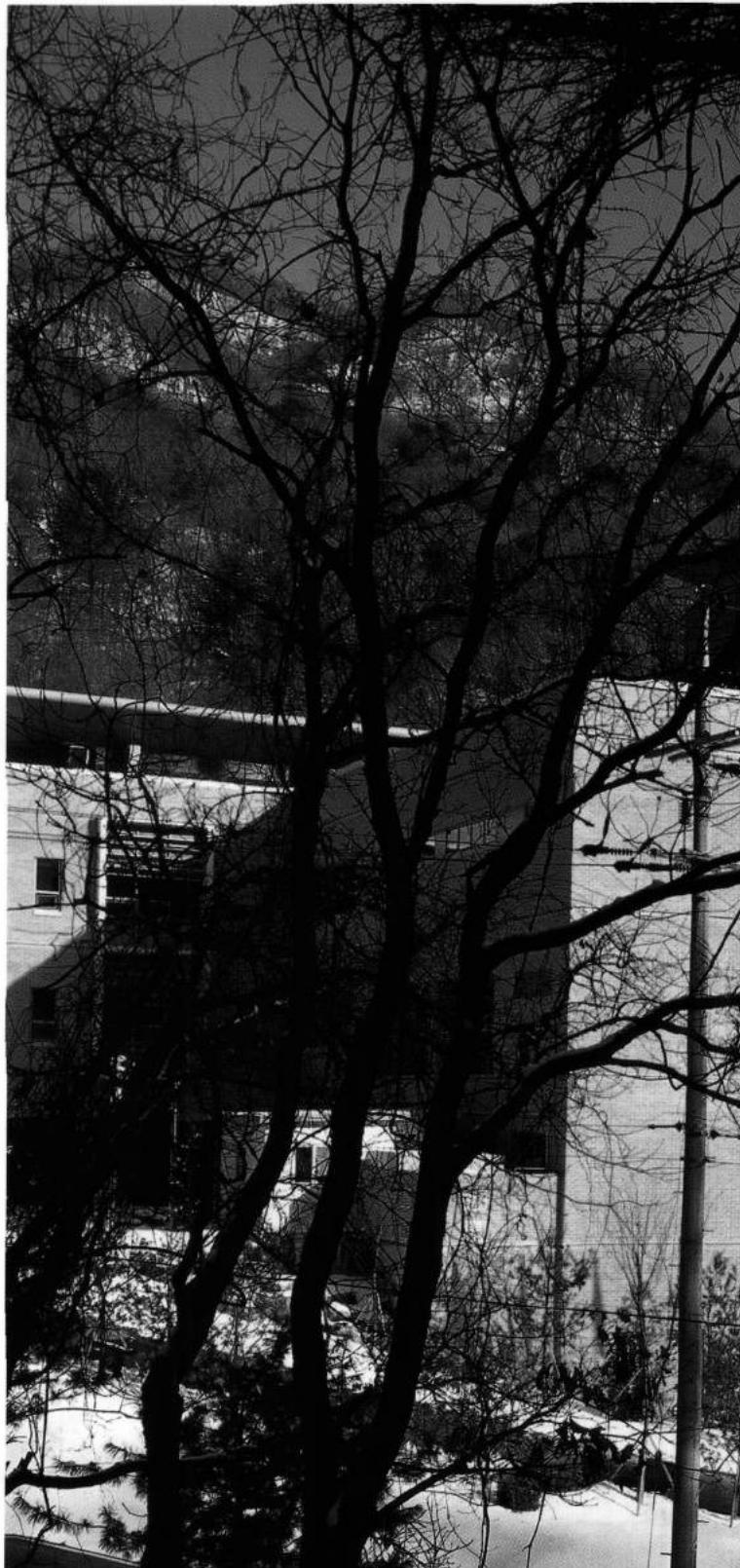
대지는 서측 정면도로에서 동측으로 오르막 경사가 형성되어 진입레벨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하였고, 대지형상을 고려하여 'ㄱ'자 형태의 간호단위를 엇갈려 배치함으로써 병동의 독립성을 확보, 그 사이에 중정을 두어 정적인 외부공간을 형성하였다. 특히 동측 녹지와 연계한 옥외치유정원을 두어 자연의 흐름을 중정으로 관입시켰으며 남측 치매노인병동과 관리자 동선연결을 위해 서비스 도로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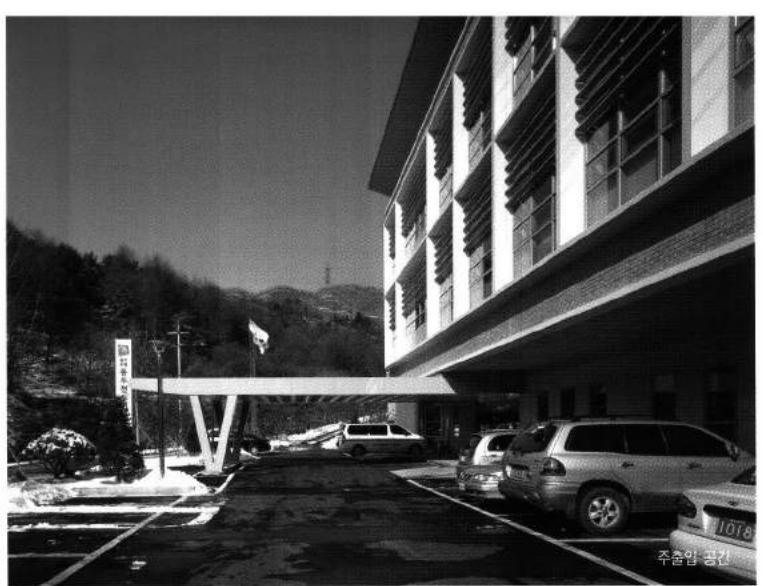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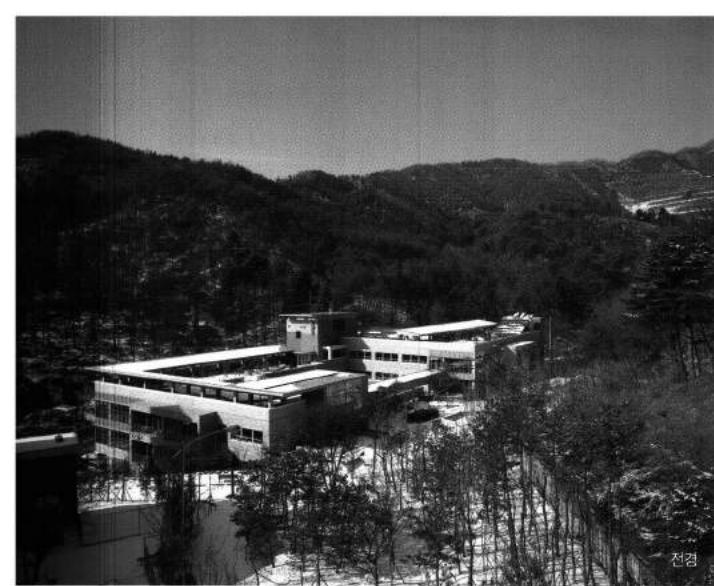
평면조닝은 크게 외래진료 / 관리, 부대시설 / 병동으로 분류하여 주진입이 이루어지는 저층부에 외래진료와 관리·부대시설을 두어 통원치료환자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상층부에 병동부를 두어 입원환자의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병동부에서 'ㄴ'자 형태의 1개 간호단위는 간호스테이션을 중심으로 각 병실의 보호와 통제가 이루어지며 배회복도는 각 층별 옥외데크와 연결되어 내·외부 공간으로 교차된다. 긴 배회복도의 사이에 알코브를 두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담소공간을 마련, 또한 건물 내에서 환자가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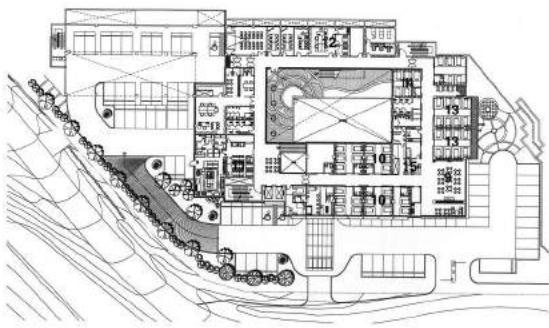
입면계획은 노인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친숙하고 따뜻한 느낌의 토석벽돌과 화강석을 사용하였고, 전통건축의 의장요소를 차용해 자연 속 전통한옥의 이미지를 주었다. 단면계획은 기존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계단식 레벨구성을 통하여 옥외공간이 자연스럽게 중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향후 증축이 가능하도록 여유공간을 고려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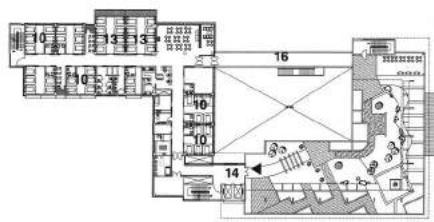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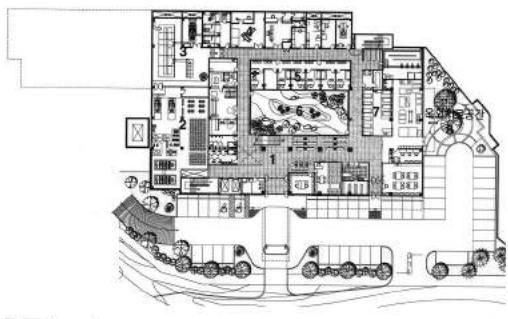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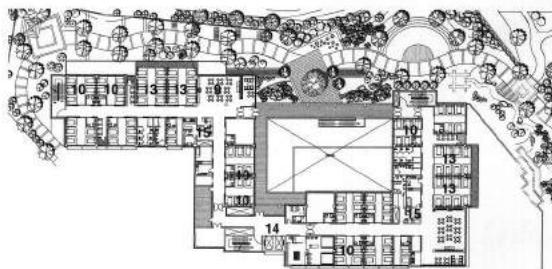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0 1 3 6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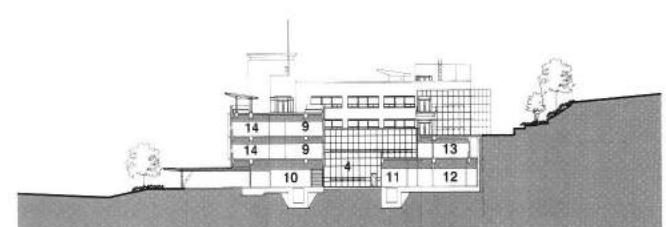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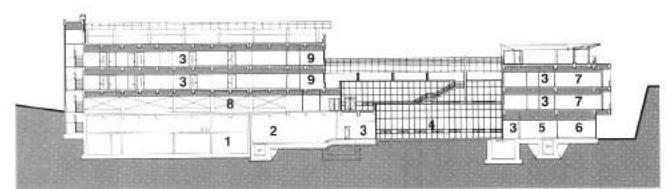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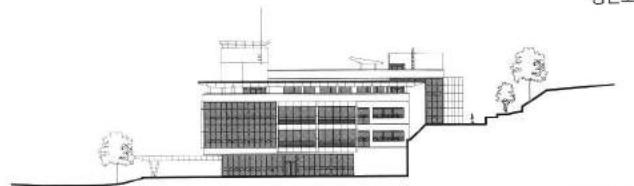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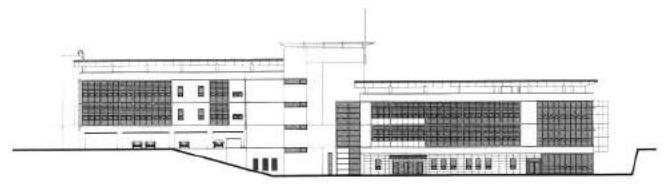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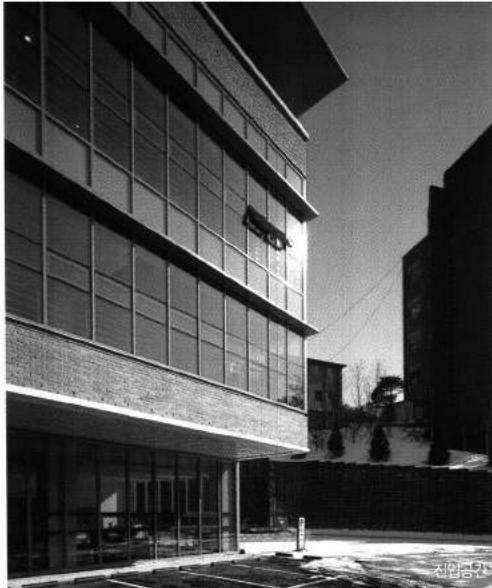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 |           |             |            |
|-----------|-------------|------------|
| 01_ 로비    | 07_ 전기온열치료실 | 13_ 8인실    |
| 02_ 기계실   | 08_ 옥외치료공간  | 14_ 음      |
| 03_ 전기실   | 09_ 휴게, 식당  | 15_ 간호스테이션 |
| 04_ CT촬영실 | 10_ 5인실     | 16_ 연결브릿지  |
| 05_ 내과    | 11_ 식당      |            |
| 06_ 종경    | 12_ 총무과     |            |



중정과 외부데크



- |              |           |            |
|--------------|-----------|------------|
| 01_ 오수정화조    | 06_ 운동치료실 | 11_ 신경파    |
| 02_ 전기실/발전기실 | 07_ 병인실   | 12_ X-선촬영실 |
| 03_ 복도       | 08_ 주차장   | 13_ 총무실    |
| 04_ 종정       | 09_ 5인실   | 14_ 공동목실   |
| 05_ 전기온열치료실  | 10_ 로비    |            |



# 성북공원 공중화장실

Seongbuk Park Public toilet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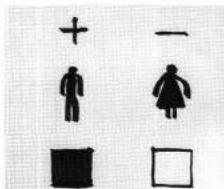
김석환 / 정희원, 터.을 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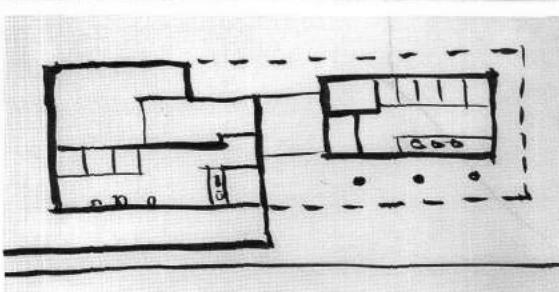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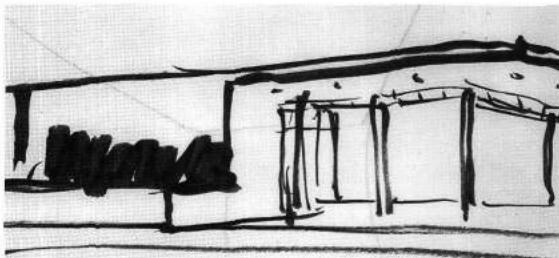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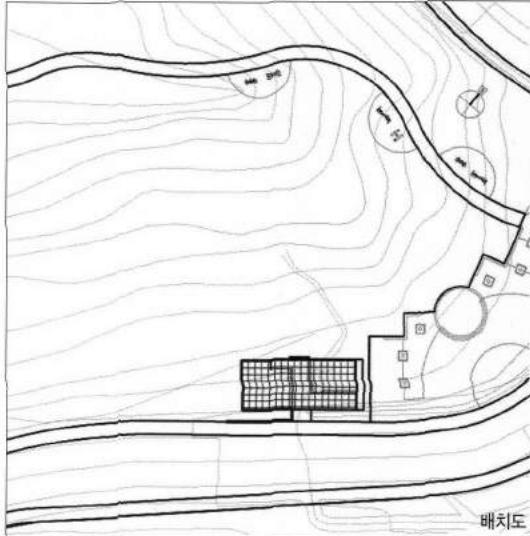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294	규모	지상 1층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경관지구	구조	R.C조
주요용도	공중화장실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대지면적	137,759.00m <sup>2</sup>	내부마감	자기질타일 석고보드위 벽지
건축면적	108.27m <sup>2</sup>	설비방식	전기급탕식
연면적	88.28m <sup>2</sup>	건축주	서울특별시
건폐율	0.079%	시공자	투에이건설(주)
용적률	0.064%		

이 건물은 성북공원내에 위치하는 화장실로서 공원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다. 주변의 자연 공원은 북악스카이 웨이의 초입에 위치하는데 쾌적하고 인지도가 높아서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겸한 산책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비록 여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작지만 공원 부지는 매우 넓어서 자연의 품안에 안긴 쾌적한 조건을 갖고 있다. 배치 계획에서 건물은 공원을 관통하는 북악스카이웨이 길의 흐름에 면한 외부 데크를 두어 보행자의 동선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하고 전후로 시야가 트인 개방적인 훌에서 남녀 화장실 및 관리실의 동선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평면에서는 요사이 화장실 공간에 여성 화장실 확충 및 다양한 기능적 배려를 하는 추세에 맞춰 모유실 등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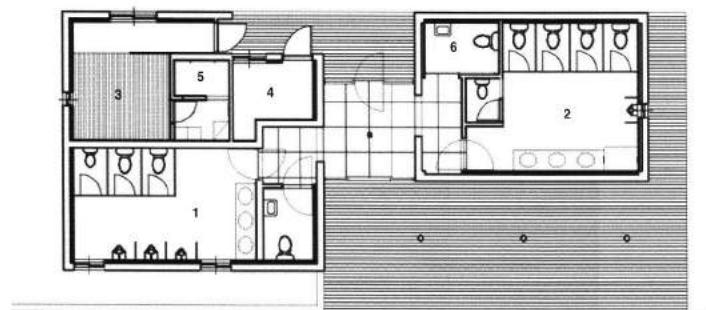
이 건물의 이미지는 남녀 화장실 블록을 각각 채워진 매스와 비워진 매스의 음양론적 개념으로 해석하여 조화가 느껴지게 하였으며 긴 수평성의 건물로서 시각적 안정감을 갖게 했다. 그리고 여자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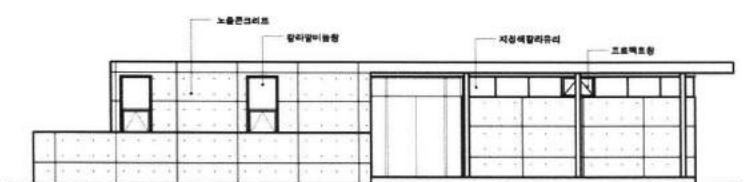
장실 부분의 깊은 처마와 벽체 위에 설치한 수평창에 의해 지붕이 들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함으로써 나무 그늘을 찾아들 듯 개방적이고 시원한 느낌이 들게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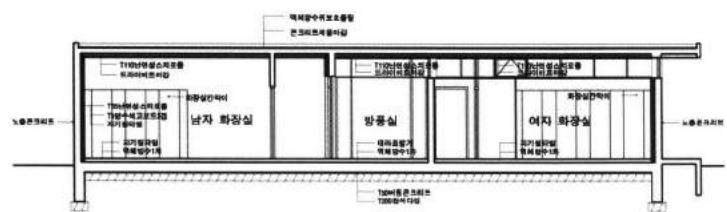
01\_ 남자화장실  
 02\_ 여자화장실  
 03\_ 정고  
 04\_ 관리실  
 05\_ 사워실  
 06\_장애인화장실



1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설계경기 | Competition

### 성남판교신도시 환승주차빌딩 Seongnam Pan-gyo parking building for transfer

당선작 / 김휘열 정회원 · 김시원 청회원  
(주)디자인그룹이디에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성남판교신도시내 주차장[20] 부지
지역지구	상업지역
주요용도	주차장
대지면적	2,996.00m <sup>2</sup>
건축면적	2,337.86m <sup>2</sup>
연 면 적	22,907.52m <sup>2</sup>
건 폐 율	78.03%
용 적 률	764.60%
규 모	지상 10층
구 조	철골구조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담당	김태호, 백형철, 강상훈, 박판규, 송기황, 한혜옥, 이옹재, 박경진

#### PARKING + PARK

##### • Function

- 효율적인 주차 시스템 및 Span 계획으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변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교통처리대책 수립

##### • Economy

- 장식을 배제한 구조자체로서의 건축 미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으로 경제성 확보

##### • Ecology

- 기능적인 주차빌딩에 녹지의 도입으로 친근한 공원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환경친화적 건물 구현

##### 배치계획

- 대지내로의 접근체계와 내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배치 고려

- Eco Cube 등 자연적인 요소를 건물내에 도입하여 친환경적 건물을 구현

- 도시축을 중심으로 대지의 형상에 순응한 배치계획

##### 평면계획

- 합리적 모듈선택으로 주차 수용 극대화

- 전체 주차장을 확장형(2.5×5.1)으로

설치하여 안정성 및 편의성 확보

- 1층에장애인, 경형, 자전거 주차장 배치  
입면개념

##### • Park In Parking

- 주차장이라는 기능적이고 딱딱한 건물에 녹지의 도입으로 친환경적이고 친근한 공원의 이미지 부여

##### • Structure=Skin

- 다이아몬드 형태의 격자 외벽 기둥으로 상징성, Identity 부여

- 장식을 배제한 구조자체로의 건축미 구현  
단면계획

- 최대한의 입면 개방으로 외벽을 통한 자연채광, 자연환기 최대 확보

- 중정을 통한 주차장 내부의 자연채광,  
자연환기 유도

##### 동선계획

##### • 보행자 동선 계획

- 차량 동선과 분리하여 주출입구 형성

- 건물 모서리에 코어 설치로 인지성 확보 및 원활한 피난동선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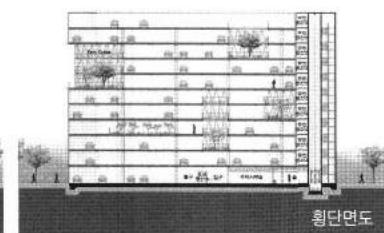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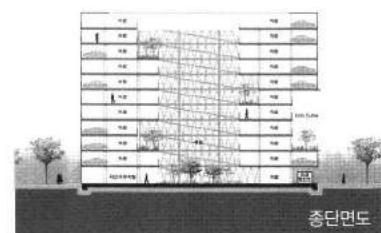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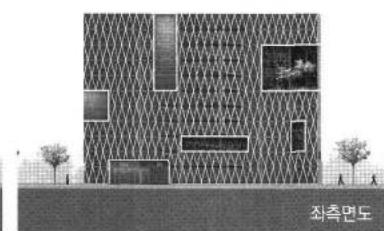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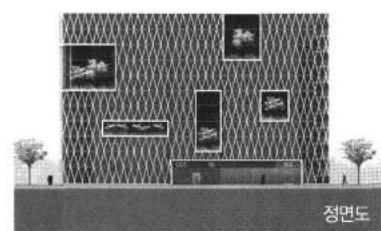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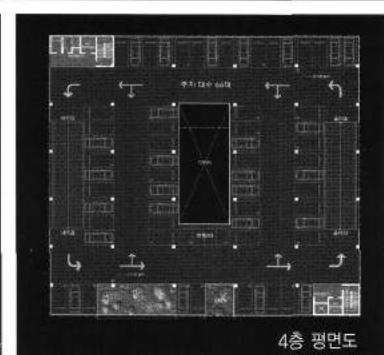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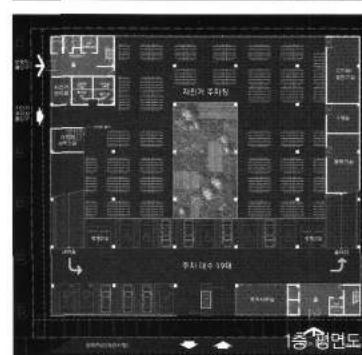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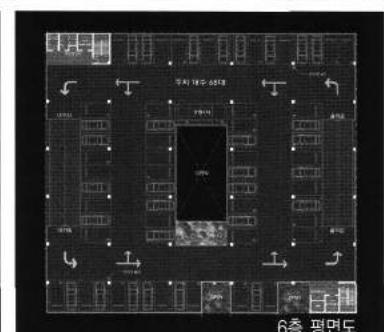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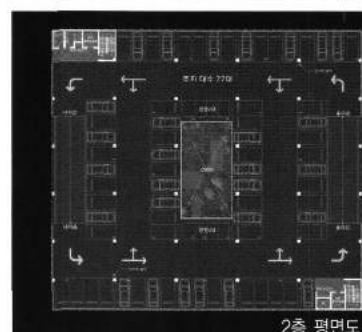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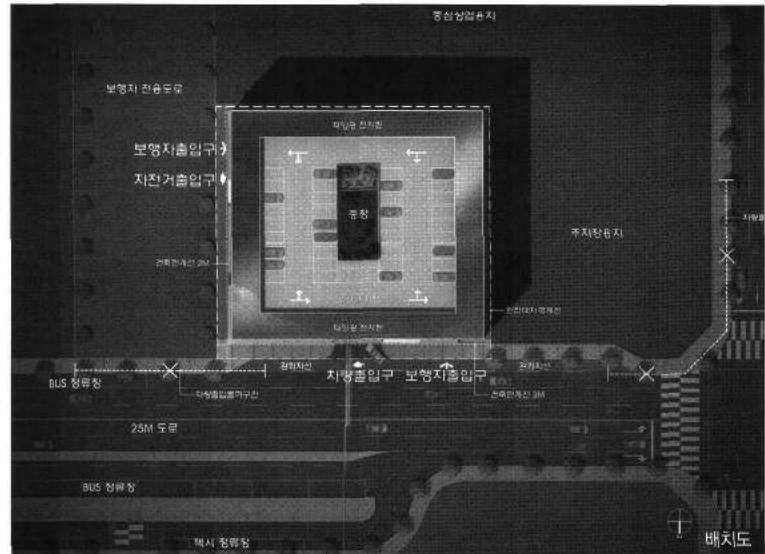
• 차량동선 계획

- 신속한 입·출차가 가능한 일방향 직선경사로 계획
- 진입램프와 진출램프 분리
- 램프 전면부 평면대기공간 확보(시야 확보 및 안전도모)
- 차량 진행 방향 노면마킹, 진·출입로에 경광등 및 반사경 설치

주차특화계획

• 차량 진·출입계획

- 전면도로에 완화차선 설치
- 대기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변 교통 영향 최소화
- 입구와 출구의 분리 설치
- 보행자전용도로에서의 자전거 출입구 설치로 차량동선과 분리
- 주차관계계획(U-Parking)
  -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설치로 무인 입·출차 도입
  - 무인 요금계산 시스템 설치(각층 홀에 정산기 설치)
  - 주차유도계획
- 1층 출입구에 종합 주차 상황판 설치
- 각층 진입로에 주차 가능 안내판 설치
- CCTV 설치로 방범 사각지대 Zero화



## 성남판교신도시 환승주차빌딩

Seongnam Pan-gyo parking building  
for transfer

우수작 / 류재은 정희원 · 한철수 정희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건축)

**대지위치** 성남판교신도시내 주차장[A-20] 부지

**지역지구** 상업지역

**주요용도** 환승주차장

**대지면적** 2,996m<sup>2</sup>

**건축면적** 2,381m<sup>2</sup>

**연 면 적** 21,698m<sup>2</sup>

**건 폐 율** 79.5%

**용 적 률** 719.0%

**규 모** 지하 1층, 지상 10층

**설계담당** 김혜경, 곽효원, 차대명, 양수진,  
김주현, 안민재

성남판교 신도시 환승주차빌딩은 판교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로서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지하철 신분당선 개통에 따라 발생될 환승주차수요를 흡수할 것이다. 환승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차량 진출입 통제와 합리적인 주차계획 및 U-Parking System을 도입하여 최소인원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최적의 환승주차빌딩을 계획하였다.

환승주차빌딩 대지의 전면은 지하철 판교역 사와 중심상업시설에 인접하고 측면은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교통중심지에 위치한다. 보행자도로와 전면도로에서의 입면과 매스를 차별화하여 판교역사와 중심상업시설에서의 인지성을 높이도록 하고, 외부 입면은 베이스 판넬 루버로 마감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 유리하도록 하였다.

저층부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개방하고, 보행자,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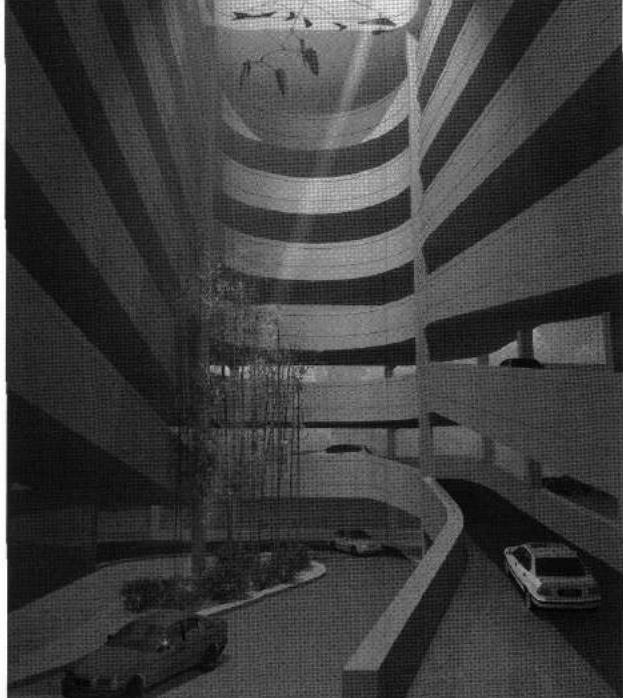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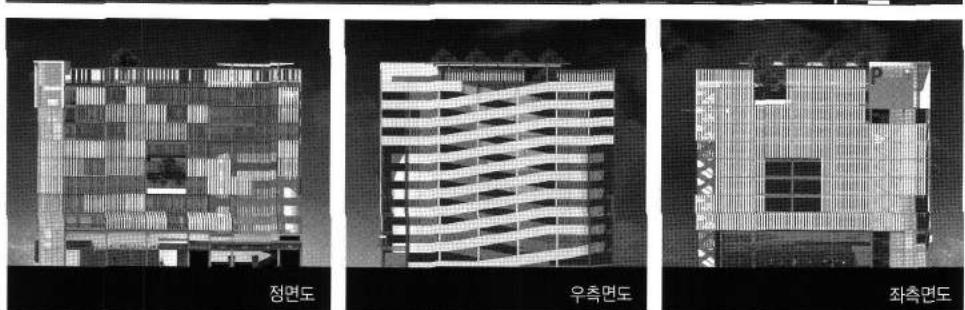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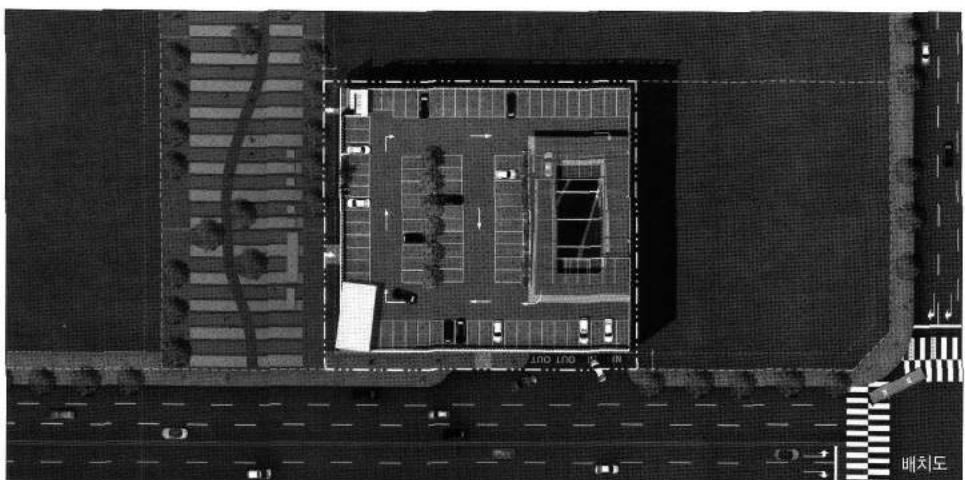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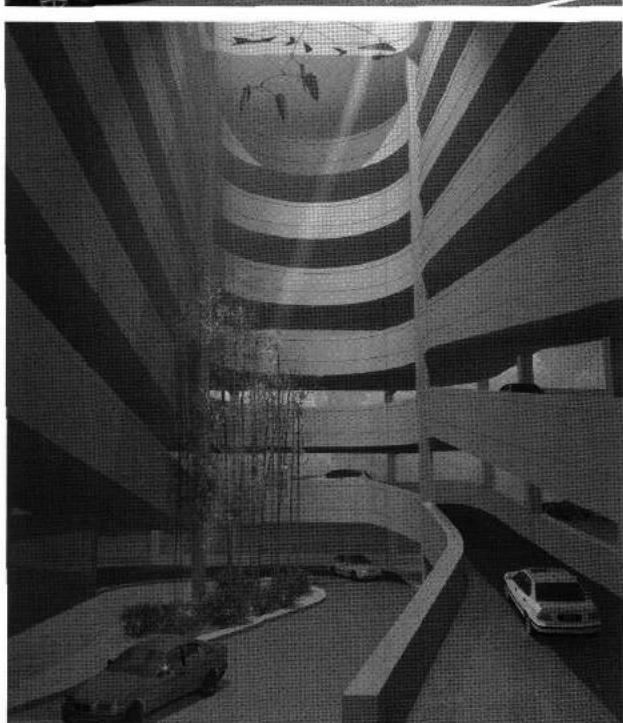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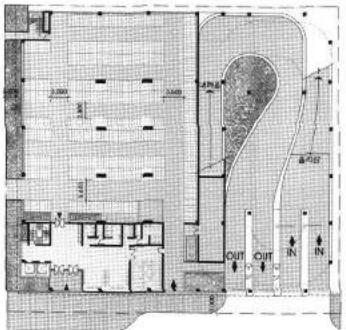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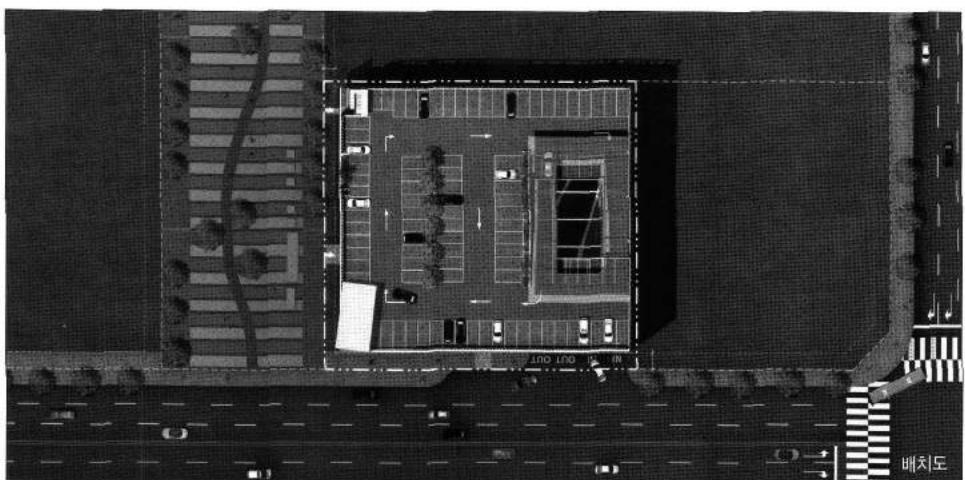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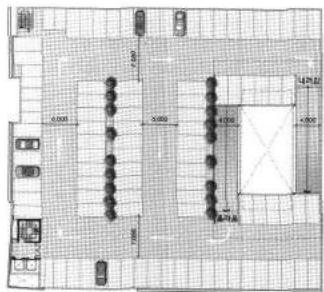
자전거, 관리자의 다양한 동선을 개별적인 출입구로 분리하여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였다.

차량 동선은 환승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입구 각 2차선을 확보하여 정산 대기공간을 최대화하고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진출입 동선을 명쾌하게 하였다.

내부차량동선은 일방향 시스템으로 주차구역과 주행차량 경사로 구역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차량동선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많은 주차수요를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는 가능적인 주차빌딩을 계획하였다.

전체 주차장을 지상배치하고 합리적인 주차모듈계획으로 최소면적으로 최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각 층 주차장에 녹지환경을 확보하여 경제적이고 쾌적한 주차장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옥상공간에 플랜트박스와 잔디블럭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휴게공간으로, 피크시에는 프로그램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성남판교신도시 환승주차빌딩

Seongnam Pan-gyo parking building  
for transfer

가 작 / 김춘성 정희원  
(주.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성남 판교신도시 내 주차장[20]부지

지역지구 상업지역

주요용도 자동차 관련시설(주차빌딩)

대지면적 2,996.00m<sup>2</sup>

건축면적 2,391.52m<sup>2</sup>

연 면 적 22,805.250m<sup>2</sup>

건 폐 율 79.82%

용 적 률 750.24%

규 모 지하 1층, 지상 10층

설계담당 배성태(PM), 서문은선, 문경애, 강석원,  
최성연

### e-Blue Resting Place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도시, 신주거개념의 도시문화에 주차환경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어판교도심에 자연의 모티브를 건축에 담는다.

판교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신분당선 개통을 대비한 환승주차 수요를 흡수하는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주된 역할과 원 개념을 내포한 '친환경 주차공간'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둔 프로젝트로서 건축계획에 있어 지역환경과의 연계성 극대화와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따른 환승주차 대책마련 제공에 있다.

일반적으로 주차빌딩은 고정적이고 정적인 딱딱한 느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판교신도시 주변의 자연을 유입하고자 하여 사람과 자연과 자동차가 서로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역동적, 동적 결합체로서 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배치계획\_도시의 차량 및 보행자의 연계성과 유기적, 기능적 분석으로 도시축과 보행축의 연결고리역할로서 균형잡힌 조화성과 인지성이 강조되도록 배치하고 자연친화적/문화적 공

간을 제공하는 주차전용 건축물로 발전시켰다.

평면계획\_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망계획과 이용자별 합리적 동선체계를 수립하여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의 명확한 분리로 동선의 방향성 제시 및 유기적 공간을 제공하고 아트리움 및 필로티광장을 통한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하여 도심에 인지성 확보와 개방적 접근성 향상과 합리적 평면을 구성하였다.

입면계획\_판교(백현동)의 잣나무숲을 모티브로 매스의 외피에 나무를 표현하여 수직적 상승효과를 부각시키고 판교를 가로지르는 운중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물방울 무늬로 디자인 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부각하였으며 차로를 수직적 입면에 표현함으로써 주차장의 상징성을 부각하였다.

사람과 차량이 머무르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형성하여 획일화 될 수 있는 도심에 역사와 자연을 모티브삼아 건축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

단면계획\_효율적인 수직조닝과 층별 주차배치 계획에 의한 공간지각능력 향상과 층마다 칼라의 변화 및 안정감 부여로 기능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





## 설계경기 | Competition

### 등촌동 구립도서관

Deungchon-dong Library

당선작 / 차유성

(씨에스도시풍경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90-1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947.5m <sup>2</sup>
건축면적	471.11m <sup>2</sup>
연 면 적	2,236.72m <sup>2</sup>
건 폐 율	49.72%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발 주 처	강서구청
설계담당	손한계, 박미진, 여경석, 최승희, 현준섭

도심속의 도서관-주민들의 상상의 날  
개가 되다.

책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상상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듯이 등촌동 구립 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지식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상상을 담아내는 도서관

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매체를 통해 지식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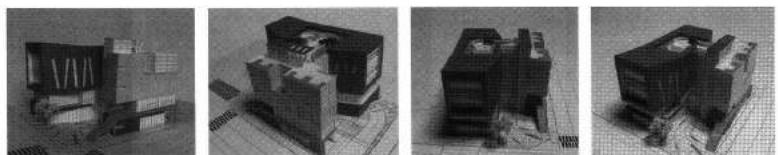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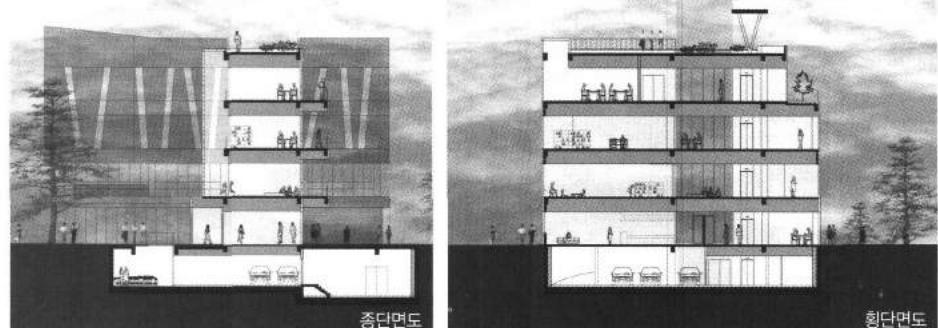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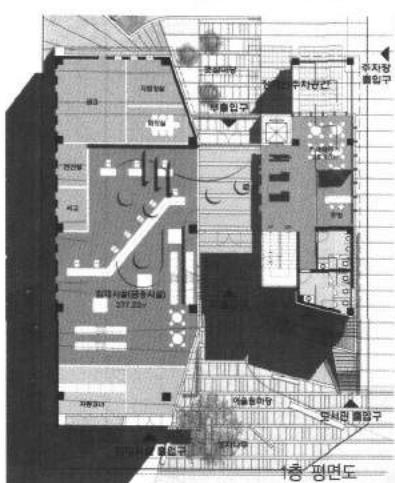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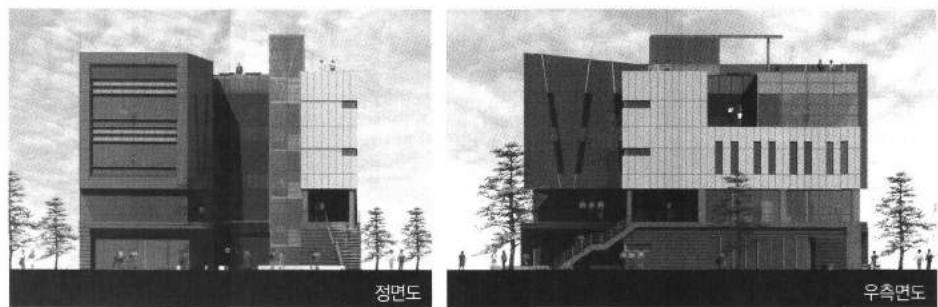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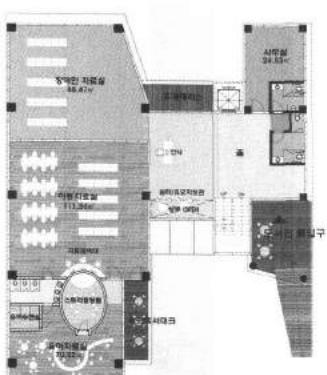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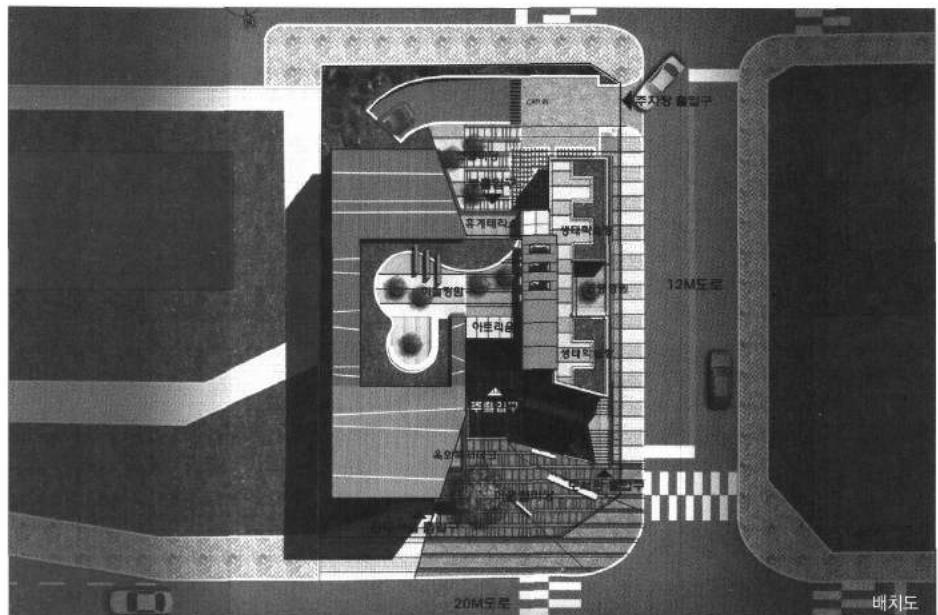
나래를 펼치는 도서관

지식과 상상이 모여 지역의 지식공동체, 꿈과 희망을 만드는 도서관으로서 세상에 나래를 펼칠 것이다.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적인 공간을 추구하여 주변맥락에 의해 형상화하여 새로운 장소성제공한다.

-도시의 질서와 흐름에 따른 장소적 특성을 찾고 커를 설정한다. ■





## 등촌동 구립도서관

Deungchon-dong Library

우수작 / 노윤경 정희원

(주)우리동인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90-1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주요용도** 도서관

**대지면적** 947.50m<sup>2</sup>

**건축면적** 472.50m<sup>2</sup>

**연 면 적** 2,303.60m<sup>2</sup>

**건 폐 율** 49.87%

**용 적 률** 161.74%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계담당** 강은영, 김동호, 김효순, 이승룡, 김은혜

### Culture HUB

대상부지는 아파트숲으로 둘러싸인 블록의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로경관적으로 독특한 해결 방식이 요구되었다. 다른 사거리 코너에 서있는 건물의 모습이 매우 폐쇄적으로 닫힌 모습을 띠고 있어서 이곳은 전면 마당과 연결되는 입구부분의 처리를 내부코트와 오픈시켜 열린표정을 가진 건물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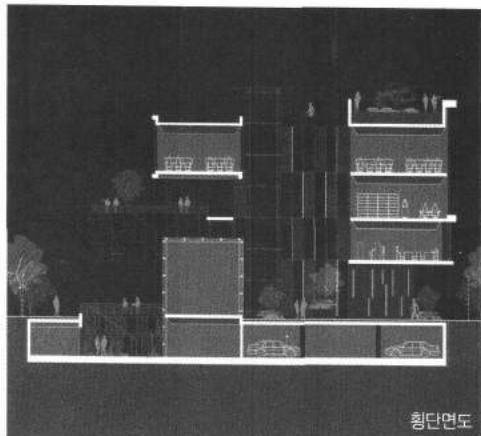
공간구성은 매스를 분할하여 빼거나 넣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내, 외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내부의 문화, 지식, 정보의 기능과 외부의 소통과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용자들이 풍부한 공간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주요실은 남측으로 배치하면서 전면 개방형으로 계획하여 각 실이 연결성을 가지며 추후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게 하였고, 중정과 선큰 정원을 계획하여 건물 내부에 자연채광과 통풍을 가능하게 하여 환경적 측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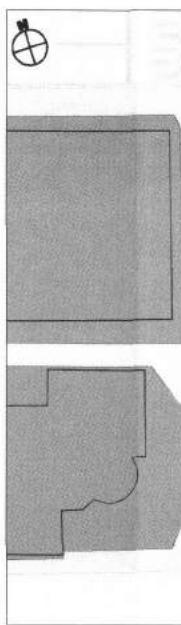
외장재료에 있어서 자연친화적 소재인 목재 루버를 유리와 결합시켜 더블스킨으로 사용하여 열란실과 자료실에 유입되는 일사량을 조절하도록 하였으며 목재루버의 패턴을 비정형 함으로서 건물 외관의 다양한 모습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곳이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휴식 등을 제공하여 즐거움이 가득한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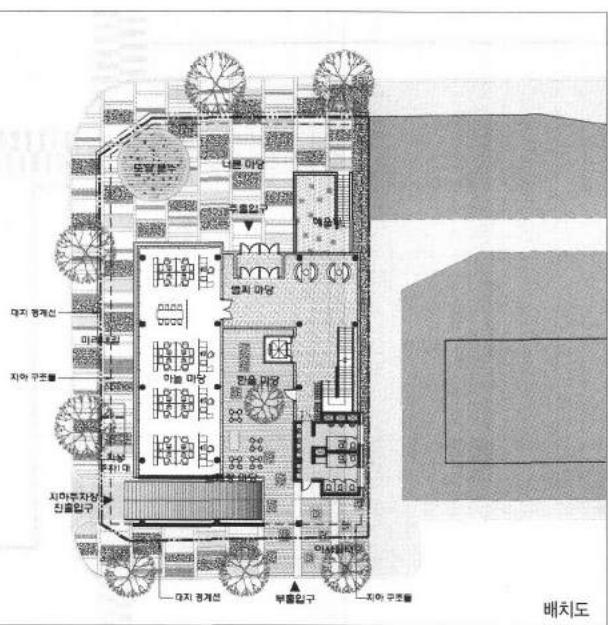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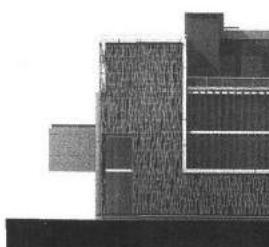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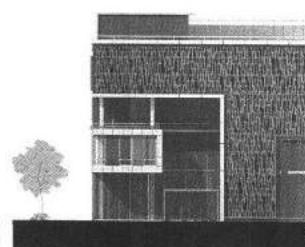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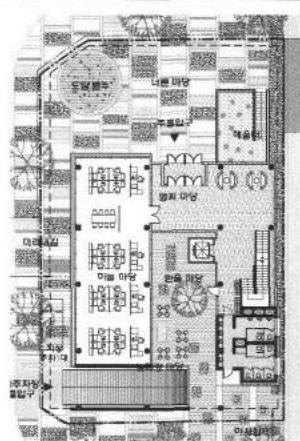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우측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해외의 BIM 가이드라인 사례연구

## Case Study of BIM Guideline on Other Countries

건축시장에서도 지식정보화로 등장한 BIM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전통적인 건축의 2D해석방법을 보다 실물 그대로의 형태로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건축시장 전반에 일대 지각변동이 야기될 전망이다. 건축사무소의 경우 설계 프로세스의 변화, 디자인팀 구성의 변화,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의 변화, 건축사의 역할의 변화 등 많은 변화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우리 건축시장에도 BIM으로 발주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없이는 많은 혼란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 목 차

1. BIM Requirements 2007, 핀란드(I)
2. BIM Requirements 2007, 핀란드(II)
3. DIGITAL CONSTRUCTION, 덴마크(I)
4. DIGITAL CONSTRUCTION, 덴마크(II)
5. BIM Guide Series, 미국(GSA)
6. Nation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Standard, 미국(NIBS)
7. BIM 가이드라인 비교 및 국내현황

건축은 건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는 여러 전문집단이 함께 협업(collaboration)하여 이루어 가는 행위들로 볼 수 있다. 여러 관계자간의 상호 밀접한 협업과 분명한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국외의 BIM 가이드라인을 조사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국내 건축시장의 전통적이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국내 BIM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건축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기회를 지면을 통하여 갖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며….

필자 : 김길채, 현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by Kim, Khil-chae

김길채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의료 시설의 계획 및 설계와 건축의 정보화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기술평가원의 가상건설연구 단에서 건축 BIM 가이드라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직 중이다.



-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이사
- 대한건축학회 디지털건축분과 위원
-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 한국 건설관리학회 정보화분과 위원

## 6. Nation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Standard (미국 - NIBS)

- 데이터 교환 및 공유를 중심으로 -

- Focus on Data Exchange and Sharing -

### 1. NIBS와 NBIMS

NIBS(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는 1974년 공법 93-383의 거 의회로부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을 승인받아 설립되었다. NIBS는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서 원활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NIBS의 공익적 임무는 건설 환경 개선 기술과 건설 과학 발전에 힘입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함이다. 의회와 공공 / 민간 협력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기술의 활성화 및 건물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정부, 민간부분의 산업과 시장의 발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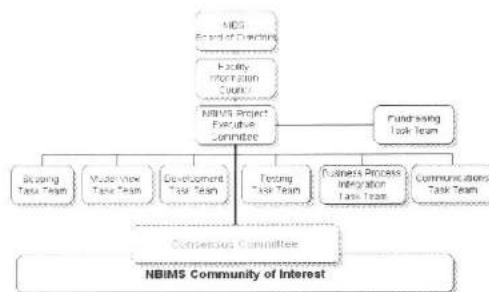
최근 들어 BIM도입 및 적용 현황에 있어서 해외각국은 정부 및 공공발주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체제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방식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BIM의 도입 및 적용을 추진 중인 주요 국가들은 BIM기술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BIM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0월호의 미국 GSA BIM가이드라인에 이어 NIBS에서 발표한 NATION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STANDARD(이하 NBIMS)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중립단체인 NIBS는 미국 건설산업의 BIM 표준화를 위해 2007년 12월 NBIMS Version1-Part1의 지침을 발표했다. 그 목적은 어떤 특정분야의 (AECO) 응용 프로그램 구축과 Life-Cycle의 모든 시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위함이다. 이는 건축물의 표준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션 및 분석 데이터로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정보의 지속적인 활용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즉 건축물 정보교환의 표준을 확립하고 최신 정보기술 활용에 의한 프로세스 향상으로 볼 수 있다.

NBIMS Version 1의 Part 1은 오피스빌딩과 같은 일반적인 수직형 건축물을 위한 최소표준에 대한 정의이다.

### 2. NBIMS 개발과정

NBIMS는 <그림 1>과 같이 매우 유기적인 협업과정을 통해 진



<그림 1> NBIMS organizational diagram (by courtesy of NBIMS Committee)

행되었다. BIM 개발을 위해서 각 팀들은 업무분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기준을 개발 및 제시한다.

- Scooping팀은 NBIMS “Road map”을 정의한다.
- Model View팀은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환 요구사항과 IFC모델 View를 개발한다.
- Development팀은 IFC기반의 정보납품 메뉴얼을 개발한다.
- Testing팀은 최상의 방법으로 상용 기성품(COTS)<sup>1)</sup>과 기타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한다.
- Business Process Integration팀은 건물 생애주기 및 사업문서를 생성한다.
- Communication팀은 NBIMS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배포한다.
- 기타 팀에 의한 개발 프로세스는 상호작용 및 협업이 동시 진행된다.
  - 모든 팀은 기업검토 및 채택을 위하여 기술적인 능력을 발휘 한다.

### 3. NBIMS 구성

NBIMS의 Part1, Version 1.0의 구성은 <표 1>과 같이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NBIMS에서는 다음과 같이 BIM을 정의하고 있다.

“BIM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건축물의 모든 물리적, 기능적 특성과 연관하여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동안에 정보를 컴퓨터

1) COTS는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진 제품

(표 1) NBIMS Version 1.0 의 구성

구 분	내 용
SECTION 1, 2	행정적 요약을 포함한 드래프트 문서이다. 표준을 읽는 방법에 관한 지침, BIM의 전반적인 범위와 미래발전 가능성의 내용, NBIMS 발단의 설명과 기업생산과 툴 제작자의 프로젝트의 관계도, 표준에 대하여 다음버전에 대한 내용, 향후 규격화를 필요로 하는 품목과 우선적으로 연합되는 방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SECTION 3	데이터교환 및 공유에 대한 내용이다. 이론과 실용적인 시점에서 정보교환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는 프로세스의 한 부분으로 건물의 데이터 모델에 대해 설명하며 다른 건물을 형식으로 구분하여 관리 방법,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대한 필요성, 일반적 설명의 필요성, 빌딩 Life-cycle 데이터의 프로젝트 보관소, 공유보관소로부터 데이터의 입출력에 대한 관리 및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SECTION 4	데이터교환 및 공유에 대한 검토내용이다. 'BIM minimum'의 구성과 역량성숙도 모델(CMM) <sup>2)</sup> 에 대해 정의한다. 초기 BIM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최소한의 데이터 구성과 레벨을 정의하고 소프트웨어에서 개발된 모든 BIM의 기능들을 현재 '최상의 업무 관행'을 위한 관계로 구성한다. 매트릭스는 상호 운용성 정보의 데이터가 정확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요구한다. 매트릭스 구분은 세 가지 수준으로 1. 세부적 기술정보 2. 기술정보 요약, 3. 높은 수준의 개요이다. 단일 BIM에 대한 응용, 매트릭스는 BIM의 상황과 완전성 반영에 대해 상호작용할 것이다. BIM 평기에 대한 메카니즘 제공 등을 BIM인증에 대한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SECTION 5	NBIMS 프로세스의 발전과 구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타낸다. 5장은 증명과 기술표준회의 데스트, 교환데이터의 최종사용자 요청 표준화, 교환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실행을 위한 교육, 게다가 공식화된 NBIMS의 사용을 위해 참조표준화의 요약과 NBIMS에 요구에 따라 사용되는 규범적인 표준화, 실행을 위한 표준화는 구체적인 데이터 교환을 규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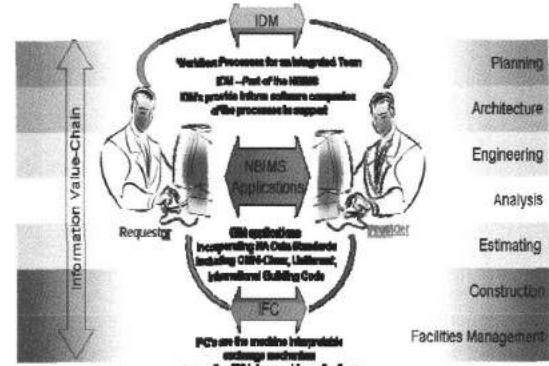
로 재현하며, 소유자 및 운영자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하고 유지하도록 정보를 저장해주는 것”.

생애주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델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건축 관계자들의 정보교류 및 협업이 필요하다. 협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여러 사항들이 있지만 본 호에서는 협업을 위한 BIM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 구축 및 정보보증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 4. 데이터 교환을 위한 보호방안

##### 4.1 BIM 정보교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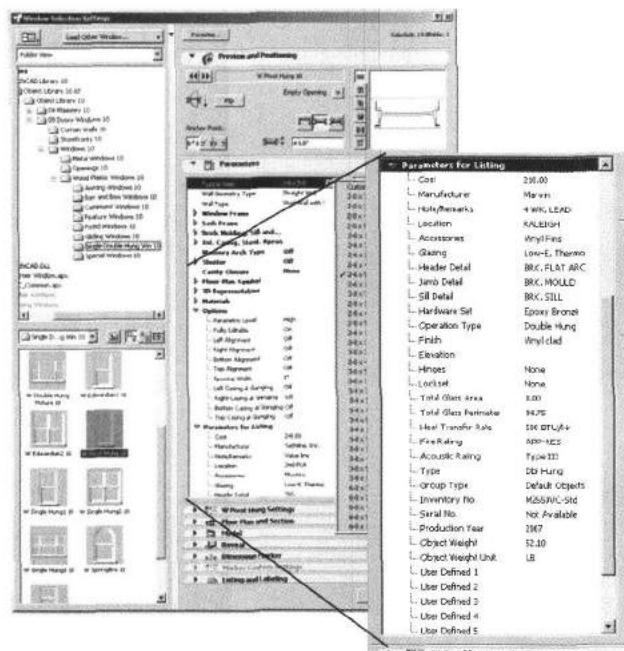
손으로 직접 도면을 작성하던 시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CAD를 도입하였다. 20년 가까이 CAD를 사용하면서 선, 아크, 원, 텍스트를 위한 기계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교환 표준



(그림 2) 정보가치에 대한 연쇄성 관계도

을 시도 했으나 프로젝트팀 내에서 스타일 및 구성(레이어 및 선 두께)을 맞추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데이터 공유가 힘들었다. 따라서 BIM 프로세스 및 생산, 협력을 위해 공간, 측정단위, 생산 데이터 분류법, 객체요소 정의 등을 요구한다. 빌딩정보를 위한 전반적인 개요는 규정될 수 있으나 상세수준 및 상황에 따라 정보교환은 변화가 가능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시기에 건축 관계자와의 공유를 위해서는 명확한 표준 set이 필요하다. CAD산업의 불가피한 사항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BIM에서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 BIM데이터 통합을 위한 예

BIM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데이터 기준, 내용 요구사항 및 정보공유를 위해 해석 가능한 데이터교환을 필요로 한다.

잘 정의되고 다양하게 적용될 기준이 제공된다면, 명확하며 기계적해석이 가능한 BIM은 건설산업에 막강한 역량을 제공해 줄 것이다.

2)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역량 성숙도 모델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공학의 역량 성숙도를 평가하는 모델.

## 4.2 정보의 저장 및 공유

### 4.2.1 정보저장소의 요구사항

NBIMS는 건축물의 Life-Cycle동안 필요한 정보교환의 요구사항 등을 정의하여 시설의 향상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BIM을 통한 데이터 생성 및 이용 등은 계획, 설계, 시공단계에 비용절감과 신속한 정보교환을 가능케 해 줄 것이다. 정보교환은 건축관계자간의 교류를 의미한다. 교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단일공간 저장소가 필요하고 저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생성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의 활용 및 운영이 필요하다. 정보 저장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경우 BIM관련 정보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접근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히 명시하여 BIM정보 데이터가 식별가능 하여야 한다.

### 4.2.2 정보의 통합

구체적인 정보교환 문제 해결은 표준화로 해결할 수 있다. NBIMS를 기준으로 정보생성을 위한 협업 프로세스는 하나님의 방안이 된다. 각각의 표준과 함께 일반적 정보를 만들어 정의 및 건축관계자들과의 공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 BIM의 최소요구사항은 정보교환 결과물로 컴퓨터 설계(CAD 데이터), 컴퓨터를 이용한 시설관리(CAFM)<sup>3)</sup>, 지리정보시스템(GIS)은 전통적인 정보의 정장 및 공유에 대하여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이다. BIM을 통하여 이러한 기술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 기존 CAD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지능형 데이터로 BIM모델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BIM과 관련한 기술적 측면은 프로젝트 참여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며 사용될 것이며 각 건축관계자들은 BIM 모델안에서 정의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4.2.3 정보 저장소의 일반사항

NBIMS에서는 BIM 데이터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표준과 특정 응용 소프트웨어의 실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건축정보 데이터 저장소의 공유를 위해서는 BIM 데이터베이스를 중앙 집중시킴으로써 BIM의 특정 부분이 공유되는 규칙을 정의해 공유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BIM의 기술적인 측면과 데이터구축이 활발해 질수록 BIM데이터 저장소 구축은 방법과 내용면에서 많은 개선을 이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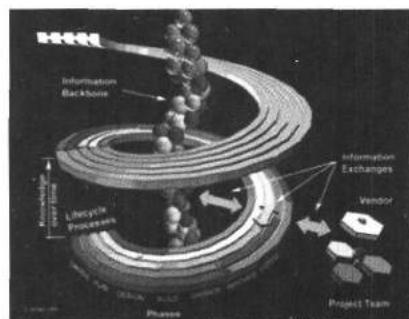
BIM은 프로젝트 기간 중에 여러 환경에서 공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과 토목분야에서의 정보는 설계기간동안 공유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형태의 건축시스템 / 요소를 첨부하고 편집 및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지닐지 결정하여야 한다.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의 구축 및 변경을 하였는지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절

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유되는 건축 모델과 관련하여 발전을 위해 BIM모델을 기초로 완벽함, 일관성, 충돌에 관해 체크가 가능하다. 이러한 BIM모델은 밀접한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 IFC와 같은 중립적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의 공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를 통해 비용발생을 보면 가장 큰 비용은 시설운영이라 말할 수 있다. 시설물의 소유자와 운영자들은 실시간의 BIM데이터 정보를 보유함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미리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BIM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소유주들은 BIM저장소 보관방법을 구축하여야 한다. BIM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건설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통합될 수 있으며 정보의 증가를 통하여 소유주들은 수리 및 유지 등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공공과 민간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된다.

시설에 관하여 완벽한 정보를 갖춘 저장소의 완성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후 저장소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소유주들은 저장소 내 건물의 일반적 위치와 면적정보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BIM기반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많은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소유주들은 시설물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유지관리 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많은 구축이 가능하다.

시설 정보 저장소의 공유를 통하여 각각의 물리적 공간의 속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기반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 Facility Life-cycle BIM Repository

〈그림 4〉는 공개된 표준 기반의 BIM의 장기적인 비전을 볼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설명한다. 시설의 관리와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소유주는 해당 프로젝트 기간에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공개된 표준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초기 프로세스 중에 확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건축사, 건축설계자 등 기술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정보들은 모델 내에 직접적으로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부분 정보들은 모델과 연결되는 각각의 파일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정보들은 모든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이용 될 수 있도록 공개된 형태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3) CAFM(Computer Aided Facility Management) System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건물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건물관리의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환경의 패작성과 지적생산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화된 시설운영관리수단이다.

소유주, 건축사, 시공사 등 기타 건축 관계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모델 구성 요소와 Library로 이루어진 데이터 저장소의 Life-Cycle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BIM 모델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저장소 구축에 관한 공개된 표준을 제공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 5. 데이터 정보보증

### 5.1 정보보증 소개

BIM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할 수 없었으며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BIM은 시설의 설계와 건축, 운용과 유지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많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반면 데이터의 통합은 예기치 못했던 많은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이터 통합과 관련하여 위험요소 관리는 정보공유시 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공유 통제는 정보의 생성과 공유 및 이용 등 모든 기간에 걸쳐 정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지해주며 권한을 위임 받은 허가권자만이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BIM이 구축되기 이전에 정보의 요건이 정의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개방형 정보는 모든 이가 동등하게 볼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보증은 데이터의 형성과 함께 동시 진행되어야 한다.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야 한다.

### 5.2 정보보증의 일반사항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과거에는 크게 중요성이 부각된 부분이 아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정보공유와 함께 정보보안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는 일반적인 접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지만 필요시에는 접근권도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보증은 외부정보 및 기능영역 정보 등 다양하며 모든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요하다.

모든 건축관계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정보를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을 뿐더러 정보보증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사항 일수 있다. 그러나 위 사항은 BIM이 가진 의도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BIM은 협업을 중심으로 한 프로세스이며 정보 접근자에 의한 데이터 수집 및 정보공유이다. 정보보증을 거친 파일 공유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유발

시키며 추가적인 검증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계산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계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따로 손으로 계산을 해보았지만 지금은 계산기의 신뢰성이 구축된 후 재계산을 하지는 않는다. 즉 시설관리의 BIM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데이터의 정보보증이 매우 중요하다.

BIM 데이터 정보보호 및 정보보증 위하여 건축 관계자간의 표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BIM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되기 때문에 정보를 평가 시에는 표준화된 보완의 측면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BIM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항상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전구간 통제점에서 다음 통제점까지 어떠한 위험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전송되어야 한다.

### 5.3 정보보증의 연구 및 실행단계 -4단계

미국 Open Geospatial Consortium(OGC<sup>4)</sup>)에서는 정보데이터에 대한 공유 및 보증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권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OGC Technical Committee Working Group on Digital Rights Management(이하 OGCDRM)에서는 디지털 표준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GEODRM 표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지리공간적 자원의 디지털 권한 관리를 위해 해당분야의 상세한 재질정보와 참조가 가능한 개념적 모델
- 사용자들에게 정보에 대한 권한승인 및 정보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소유주의 데이터모델
- 서비스 시장에서 지리공간 자원을 보장하기 위해 위 사항들이 개념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을 확인

#### 5.3.1 정보보증의 실행단계 - 4단계

정보보증을 고려하고 BIM을 개발시에는 정보의 유지를 위해 정보보증이 초기단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정보보증 시스템에 적용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행단계는 다음과 같다.

- 프로세스 개선(Process Improvement)
- 설계와 개발(Design and Development)
- 테스트와 승인(Test and Acceptance)
- 운영과 관리(Operations and Maintenance)

#### 1단계 : 프로세스 개선(Process Improvement)

프로세스 개선은 사업수행을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구분 및 분류하고 문서화를 위하여 활용되는 방법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 및 활용하는 절차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

4) Open GIS 컨소시엄(OGC)은 1994년 각기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지리정보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제고하는 표준 명세(Specification)를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창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어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문서는 참여자, 프로세스 구성단계, 데이터, 각 단계에서 데이터 처리방법, 규칙과 기타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데이터 요소, 프로세스 단계, 역할, 권한과 같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보증의 첫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위 사항을 토대로 데이터의 보안

분류, 시스템 사용자의 허가등급, 시스템 토기 정보보호 수준과 같은 개념들을 정할 수 있다. 1단계는 2단계로 이행하는데 활용되며 이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설계와 개발 또는 운용 정보 시스템 유지에 적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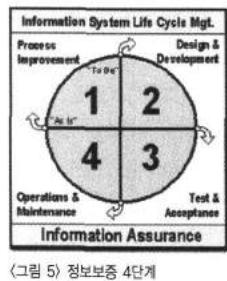
### 2단계 : 설계 와 개발(Design and Development)

정보시스템 2단계에서는 데이터 모델, 수정 및 기타정보의 개발을 위해 문서가 분석된다. 문서들은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므로 프로세스의 진행자, 프로세스 검토 확인, 데이터의 응용가치, 데이터 처리등을 확인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규칙 및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다. 접근 권한은 사용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해야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승인된 사용자만이 승인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 설계자는 추가적인 보안을 적용시킬 수 있다.

프로세스 및 시스템 소유주가 설계를 승인하면 정보관리 책임자에게 설계가 제출되고 시스템 설계와 데이터권한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 개발자들은 승인된 설계에 따라 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부분 테스트 완료 후 전체 사용자의 승인을 목표로 하는 테스트 단계로 들어서야 한다.

### 3단계 : 테스트와 승인(Test and Acceptance)

3단계에서는 시스템 이용자들과 정보기술 커뮤니티가 개발된 시스템을 테스트 하는 단계이다. 테스트 데이터, 계획등을 개발하며 이용자들이 시스템 공급자와 함께 참가해 시스템이 설계서 의도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불충분한 조건시에는 이전단계로 돌아가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전, 후단계의 기능과 운용 조건을 충족시키고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또한 정보기술운용 그룹(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시스템/네트워크 관리자, 기타)은 자신들의 운용기능에 대하여 확인한다.



〈그림 5〉 정보보증 4단계

- 사용자 계정의 생성 및 제거
- 접근 권한
- 데이터의 백업 및 저장
- 시스템 점검(보안 취약 부분 확인)

정보보증을 위한 시스템보안 인증서 및 허가 문서를 개발하고 완료하여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 4단계 : 운용과 관리(Operations and Maintenance)

정보보증 시스템이 4단계에 들어서면 사용자들에게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시스템 관련정보가 보호된다는 확신을 갖는다. 정보관리 시스템은 'Lockdown' 모드로 수정시에는 1단계로 돌아가 수정을 요하게 된다. 만일 시스템의 변경 및 수정을 필요로 한다면 소유주는 정확히 판단하여 프로세스 및 설계서를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이 정보보증관점에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정보보증 검토는 운용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시스템보안 체제가 변경되는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기술 기반시설과 운용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며 변화는 시스템의 재인가와 재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데이터 정보에 대하여 보증은 BIM을 발전하고 완성시키는 하나의 기술적 방안으로 사용자 및 소유자 또는 건축관계자 간에 데이터에 대한 보전과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구축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 6. 맷음

NBIMS에서는 건축관계자간의 협업과 BIM모델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데이터의 중앙 저장소, 데이터의 접근권한, 데이터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이나 프로세스 등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NBIMS의 데이터저장소에 관한 내용 및 정보보증은 BIM실현 후 바라볼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예측한 것으로 국내에서도 BIM적용에 앞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매우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BIM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하여 GSA의 표준화 방안, 핀란드 및 덴마크의 프로세스 개선, NBIMS 데이터의 보호방안에 대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어 다음호에서는 국외 가이드라인의 개발 현황 및 목적과 국내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 사림(士林)의 도시(上)

##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짬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회를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론격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안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가를 풀어보자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쇄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詠 시조 속에 내재한 시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평소 조선시대 사림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닌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심산으로 소쇄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쇄원을 조영한 사람은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와는 사돈지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말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간 면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빼어난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니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타래가 그렇게까지 모진 것인지 몰라도 양산보의 소쇄원이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림의 중심지 성산에서 자란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흙독한 문초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사문학의 대부 정철과 시선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과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물려있었고 이들은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닌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정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쇄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보길도를 중심으로 상,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마을과 촌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풀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가 물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답사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 목 차

- 여로(旅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아\_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 斷想(단상)\_A fragmentary thought!
- 봉화대로의 절경 남한강 길  
The beautiful scenery of south han river side, in the way of Bonwha road
- 실경산수, 구담봉과 옥순봉\_The picture is drawn from mountain top of gudam, oksun
- 퇴계 이황이 현감으로 머물렀던 도시, 옛 단영  
The town Danyang, a place for whang-lee was mayer
- 선비들의 계회(契會)장소 삼선수석로(參僕水石路)  
A meeting place for Chu-tz scholars, the Samsunsnsuk road
- Walking space, 운계 구곡로(雲溪九谷路)\_Walking space, the Ungaegugok road
- 봉화대로의 고개, 죽령\_A Ridge of the way of Bonwha road, guklyung
- 죽령 고개를 넘나든 사림(士林) 그들은 누구인가.  
Who is him, the Chu-tz scholar, going over the Ridge of guklyung
- 풍기현과 사림\_The Chu-tz scholar in Iyungki
- 소수서원 가는 길\_A Way to the Sosu seowon

필자 : 한재수, 현 한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한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건축시사무소 신아건축에 근무한바 있으며 한옥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년 간 농림부 과제로 한옥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가지 특허출원과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저서로 건축학자가 풀어낸 「황도개경의 비밀」(2002, 도서출판 옛오

늘),이 있으며 조선시대 읍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1. 여로(旅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아

- 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

## 출발

서울을 떠나 순흥으로 길을 향했다. 늦게 출발한 탓인지 사방은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차가 여주를 지나 만종분기점에서 중앙고속도로로 접어들자 겨울밤이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밤이 깊을 대로 깊어지자 바람과 추위가 기승을 부린다.

## 소수서원(紹修書院)

기폐지학 소이수지(既廢之學 紹而修之)

필자는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을 찾아가고 있다. ‘소수’라 함은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는다’라는 뜻을 지녔으므로 소수서원은 문자 그대로 ‘학문의 중흥’ 이란 큰 임무를 띠고 탄생한 서원이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사람의 반 이상을 차지한 영남 출신 선비 가운데 절반가량의 퇴계 문하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므로 필자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곳은 사람의 출발지, 조선시대 서원의 출발지이자 영남학파의 산실이기도 한 바로 그 장소인 것이다.



〈그림 1〉 조선시대 영남으로 가는 3대 도로와 소수서원 가는 길

북 단양 IC를 빠져나와 5번 국도를 타기위하여 매포읍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중앙고속도로로 길을 바꿔 남원주와 제천을 지나 북 단양까지 달려온 이 거리는 대략 조선시대 오대로(五大路) 가운데 하나인 봉화대로(奉化大路) 500里(약 270

1)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석촌 호수공원 일대. 본 강을 매립하여 물으로 바뀜

2)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장호원마을

3) 충주시 가금면 가홍리

4) 제천시 한수면 역말마을, 충주호 남수로 옛길 소멸

5)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역말마을

6) 1990년 9월 12일 충주댐 만수위 145m 초과담수로 발생한 매포천 역류현상으로 매포리 전체가 침수됨으로서 매포 1, 2, 3리 모두 평동으로 집단이주함.

km)의 80%에 해당했다. 만약 지금까지 차로 질주해온 사백리 노정(路程)을 옹골차게 제대로 걸어서 왔다면 한양 흥인문(興仁門, 동대문)을 출발하여 송파진(松波津)<sup>1)</sup>을 건너 장해원(長海院)<sup>2)</sup>을 거쳐 가흥창(可興倉)<sup>3)</sup>으로 나아가 충주(忠州) 황강역(黃江驛)<sup>4)</sup>과 수산역(壽山驛)<sup>5)</sup>을 경유 옥순봉이 있는 단구협을 지나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옛 단양(丹陽)에서 죽령을 너머 가는 길을 잡아 나섰을 것이다. 헌데 나는 꼬박 일주일 낮낮 걸렸을 길을 단 두시간만에 달려오고 말았다. 중부, 영동, 중앙 고속도를 타고 애써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라는 문명의 혜택으로 점심 먹고 커피한잔 마시며 쉴 만한 시간에 이곳에 당도하고 만 것이다. 설사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봉화대로의 선형이 비교적 잘 간직되어 있는 3번 국도를 따라 충주로 내려와 점말 수안보 주유소 앞에서 36번 국도를 이용하여 단양으로 갔다 하더라도 반나절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불과 오십 여년 이란 세월이 서울(漢陽)에서 소수서원이 있는 순흥면을 찾아가는 시간을 줄여버렸고 그만큼 노정(路程)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교통수단의 변화로 시공간의 패러다임이 모두 바뀌어져 버린 셈이다.

하지만 이 시간마저도 절약해야 했던 필자의 알짜한 계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영남으로 가려면 줄 창 이용했던 조선시대 지름길 봉화대로를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차가 북단양 IC에 근접해 갈수록 단양으로 진입하는 접근방식이 뒤바뀌었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같은 것이 줄 창 마음한구석에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매포읍에 들어서자 1990년 대홍수로 동네가 집단 이주<sup>6)</sup>한 탓인지 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첫 사거리는 그래도 눈에 익은 거리라 쉽게 매포 중학교 앞까지 무사히 갈수 있었지만 학교를 지나면서 갑자기 나타난 삼거리를 보고 나는 차를 멈췄다.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야 하는지 좌회전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헷갈려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귀찮더라도 낯선 길은 현지 주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상책일 것 같아 차에서 내려 눈에 띠는 조그만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주인은 TV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가 들어서는 필자를 맞이하였다.

“길 좀 물겠습니다. 소수서원을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소수서원요, 잘 모르겠는데요.” 가게 주인은 얼뜬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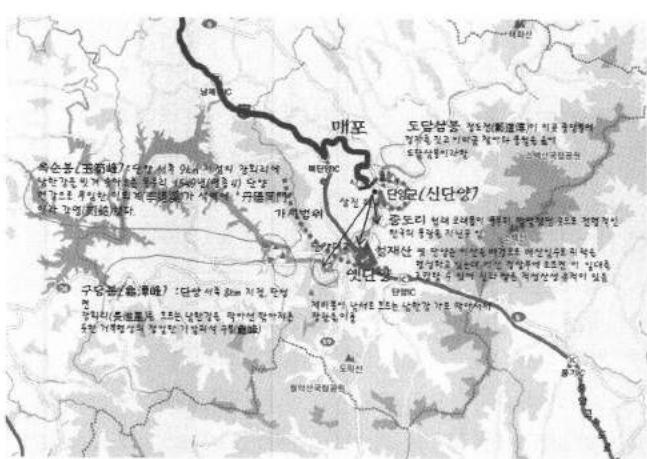
“그러면 풍기로 가는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풍기라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세요. 5번 국도를 따라 가다 죽령고개를 넘어서면 금세 나올 겁니다. 거기서 길을 다시 물어보시지요.”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어이없다는 그의 표정 속에 하필이면 편리한 죽령터널을 놔두고 이런 야밤에 국도로 가려는지 알 수 없다는 듯한 중얼거리는 입놀림 속에 아릇한 이죽거림이 숨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이내 보던 연속극에 가있었다.

필자는 풍기로 가는 방향을 확인 했으므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다시 차에 올라타고 주인이 가르쳐 준 대로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자 과연 풍기로 가는 이정표가 나타났다. 가게 주인이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고장의 유적 이름을 모른다고 그의 무관심을 탓할 수 있을까. 이는 비단 600년 전 일에 관심 없는 가게 주인 탓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인터넷에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부동산개발과 투기, 주식투자에 대한 광기,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자기이익, 이 모든 것에 집착한 나머지 어디로 가는지 가야할지 모르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체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이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두, 역사 아니 자신의 삶이 갖는 의미, 그 자체를 상실한 도시의 사냥꾼이 되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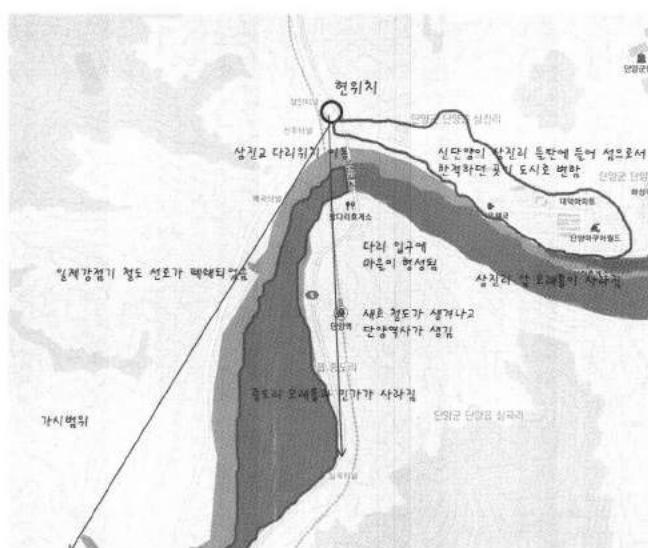
(그림 2) 성진대교에서 바라본 남한강변 옛 단양의 경관

도담 상봉 삼거리에서 우회전 한지 십여 분이 좀 지났을까, 이십년 전만 해도 길 건너 상전리 변전소 앞을 지나치려면 비포장 고개를 힘겹게 올라서야 상진대교를 향해 내려 갈수 있었다. 하지만 지

금은 차가 산비탈을 내려서자 눈앞에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상진대교가 이내 들이 닦쳤다. 신 단양 들어가는 진입로 뒤에 차를 세운 필자는 길섶으로 내려서서 다리를 향해 다가갔다.



(그림 3) 1956년 당시 이전 상진리 나루터와 증도리 지형도



(그림 4) 당시 이후 2000년 변형된 상진리와 상진대교 그리고 증도리 지형도



(그림 5) 성진대교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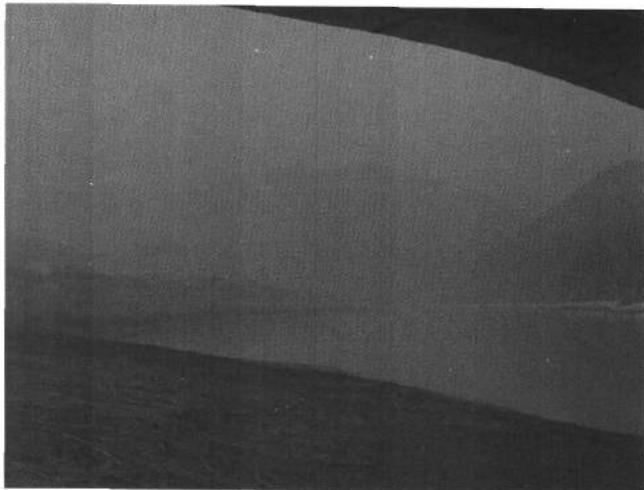
### 상진대교

상진리(上津里)<sup>7)</sup>, 일명 윗 나루에 있는 큰 교량이라는 뜻을 지닌 이 다리는 문자 그대로 윷마을 나루터에 놓여 진 대교이다.

여기서 강을 건너야 비로소 풍기를 거쳐 봉화 안동으로 갈수 있었으므로 이곳은 남한강 상류물이 단양으로 굽이쳐 흘러들어가는

7) 원래 나루터였는데 신 단양건설로 지금은 단양에서 가장 상주인구가 많은 주거지역으로 변했다.

입구이자 관문이었다. 그리고 소백산 북쪽 줄기의 마지막 나루터 였던 셈이다. 그래서인지 예부터 원주와 제천에서 영남으로 가려는 사람들과 차량은 물론이고, 심지어 기차까지도 이 길목에서 반드시 숨을 제치고 지나쳐야 했다.



(그림 6) 삼진대교 밑에서 본 도전리 일대 신 단양 전경



(그림 7) 가뭄으로 드러난 옛 삼진교 교각자리와 그 옆으로 옮겨진 남한강철교

이곳에 서서 멀리 좌우를 바라보면 백사장을 따라 탁 트인 시야와 함께 강변을 따라 단양으로 들어가는 강변길이 전개된다.

파노라마적인 수변 경관화랑이 특이하게 형성된 상진리는 소백산 줄기 산들이 만들어낸 유기적인 선형과 양감을 남한강이 자르고 갈라 잇는 접점이자 경관 통제점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두드러진 곳이다. 술츠(Norberg-schultz)의 말대로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 있고 어느 곳을 향해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강변을 따라 전개되는 풍광은 격조 높은 구성미와 장소적 인지성 마저 느끼게 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불과 백 년 전 만해도 사람들은 이곳에 걸음을 멈춰 서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풍광을 감상 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선 나는 배를 타기 위하여 서 있던 그들처럼 풍광을 눈에 담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단지 한 인물에 대한 골똘한 생각에 그만 발목이 잡혀 이곳을 빠져 나가지고 못하

고 그대로 서 있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육백여년 전의 인물, 퇴계 이황(1501년 연산군 7년~1570년 선조 3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오백 육십년 전, 그는 주세붕이 풍기군수를 하고 백운동 서원을 조성할 무렵인 1548년, 48세 나이로 이곳 현감을 지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552년, 풍기군수로 부임하게 된 그는 조정에 요청하여 주세붕이 십여년전(1543년) 세운 백운동 서원을 편액과 서적 그리고 학전을 받은 최초의 사액서원 서수서원으로 승격시켰던 것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단양은 소수서원을 가는 길에 한번쯤 꼭 거쳐 갈만한 곳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다.

### 뜻밖의 사실

그것은 바로 내가 길을 나서기 전날 서재에서 퇴계 이황의 생애를 조사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이었다. 오랫동안 별려왔던 답사였다.

그런 탓인지 그날따라 준비에 마음이 부산스러웠던 나는 길 떠나기 전에 이번 답사 여행의 중요한 줄기가 되고 있는 퇴계 이황의 연보를 다시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간 수집정리했던 자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다.

1501년 연산군 7년 경상도 예안현 운계리<sup>8)</sup>(禮安縣 溫溪里) 출생

이렇게 시작된 그의 이력은 그가 7남 1녀 중 막내였는데 그는 태어난 지 불과 7개월 만에 좌찬성을 지낸 아버지 이식을 잊은 것으로 이어져 갔다. 줄지에 훌어머니 박씨의 훈도 밑에서 자라게 된 그는 열두 살 때부터 숙부인 송재 이우에게 학문을 배우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공직의 바쁜 일과 중에서도 빠짐없이 퇴계를 가르쳤다. 이렇게 자란 이황은 1527년 소과에 입격하고 7년 뒤인 1534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이렇게 승문원부정자를 시작으로 비롯된 그의 벼슬살이는 호조 좌랑 등을 거쳐 1539년 홍문관 수찬, 정언 등을 지내게 되었고 형조좌랑으로서 승문원교리를 겸직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3년 뒤 1542년 그는 어명을 받들고 충청도 암행어사를 나갔다가 사인(舍人 / 정사품의 품계를 지닌 문관으로 낭청(郎廳)과 함께 육방(六房)으로 나누어 사무를 정리하여, 정승의 결재를 받아 육조의 관원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맡아보았다.)으로 문학(文學 / 세자 시강원에서 세자에게 경서를 강론함) 교감(校勘 중국과의 외교문서를 관장함) 등을 겸직했고 장령(掌令 / 백관을 규찰(糾察)하며, 사회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맡아보던 사헌부의 세 번째 벼슬)을 거쳐 이듬해인

8) 오늘날의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1543년 그의 나이 43살 되던 해 벼슬이 성균관 사성[유학과 문묘]의 관리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법제상 전임직(專任職)이었지만 겸직하는 예가 많았는데, 정3품관이 아닌 상위(上位)의 1·2품 관원이 겸직하는 예도 있었다[9]에 이르렀다. 1552년(명종 7년) 다시 조정에 입조한 그는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어 잠시 취임했었고 이후 홍문관 부제학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1555년(명종 10년) 끝내 벼슬을 버리고 귀향<sup>9)</sup>하고 말았다. 이후 봉직을 하지는 않았지만 20여 차례 고사한 벼슬이 66세 공조판서 68세 우찬성에 이르렀던 사람이다.

이 자료를 읽던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1544~1552년까지 퇴계 이황의 사십대 중반 이력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많은 논문과 저서들을 대부분 조사해 보았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룬 것은 거의 없었다. 이황에 대한 연구는 대개 그가 쓴 도산12곡과 잡영(雜詠)과 같은 시에 대한 것과 이기론(理氣論)에 관한 철학적인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차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읍지를 조사하는 가운데 찾아낸 단양읍지 선생안조에서 그가 이 곳 현감을 지냈다는 사실과 명종실록에서 이 기간에 벌어졌던 그의 행적을 비교적 소상히 찾아내게 되었다.

우리들이 공백으로 알고 있는 그의 사십대 후반의 인생여정은 참으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당시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한참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는 48세 되던 해인 1548년 종 6품의 벼슬인 단양현감을 자청하여 외직으로 나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1548~1552년, 명종 2~7년, 퇴계 이황은 단양과 풍기의 고을 수령이었던 셈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력에 나타난 공백을 메우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매우 성리학적인 삶이 몸에 배인 그가 생각 없이 아무 곳이나 자청하여 부임할리 없지 않은가 하는 점에 있었다. 도덕성과 명분에 밝은 이해를 지닌 그가, 아무리 자신이 병약하다 하여 벼슬을 피하던 그가, 왜 전에 하던 벼슬보다 훨씬 낮은 직의 벼슬을 산간오지인 이 두 곳에서 하고자 했던 것일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로 중년의 황금기를 맞이하고자 했던 것일까.

혹자는 그의 이러한 태도를 당시 심각하게 전개되었던 사화 때 문에 몸을 사려 한양에 머물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가능한 추측이다. 그가 이곳 현감으로 부임하기 바로 삼년 전인 1545년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나 많은 선비들이 희생당했고, 당시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자신도 파직 당했다가 다시 복직되었으나 그는 병약을 구실삼아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손수 양진암(養真庵)을 짓고 호를 토계에서 퇴계로 바꾸고 벼슬에서 물러날 뜻을 확실히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일리

가 있었다. 헌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자신의 격을 떨어트리면서까지 스스로 자청하여 이런 외진 곳까지 와서 9개월간 단양현감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2년 뒤인 1550년 소백산 너머에 있는 풍기군의 군수를 1년 2개월간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소백산줄기를 가운데 두고 충청도 동쪽 끝단인 단양에서, 경상도 북쪽 자락인 풍기에서 마감한 관직 생활을 마지막으로 벼슬살이를 끝낸 셈이다. 바로 이 점이 그의 생애를 조사하면서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단순한 심경변화로 자청한 것으로 보기에도 정3품 당상관인 성균관 대사성과 종4품 당하관인 현감의 품계 차이가 너무 커졌다. 대사성은 당시만 해도 문과출신으로 학문이 뛰어난 자가 임명되고 유학에 관계된 일과 문묘(文廟)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관직 아문이었다. 원래 이 자리는 원칙적으로 다른 관직을 겸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일찍이 태조 때 권근(權近)이 그리고 정인지(鄭麟趾) · 서거정(徐居正)이 겸직했던 이 자리였으므로 외관직 아문인 지방관아와는 아문(衙門)의 격도 달랐다. 그리고 병약했다 했으므로 병이 있어서 요양 차 이곳에 와서 벼슬살이를 했다고 보기에도 명분이 걸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였을까.

이제 가능한 생각은 혹시 단양과 풍기란 곳 자체가 그에게 뜻 없는 벼슬을 하게 만든 동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 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의 주변인물 들에 관한 조사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만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단양군수로 부임하기 16년 전 그의 나이 32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재차 성균관에 들어갔을 무렵 호남의 대유학자인 김인후와 교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하서 김인후(1510~1560년)! 그는 조광조 사건 이후 낙향하여 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別墅) 소쇄원을 만든 양산보(1503~1557년)의 사돈 아닌가.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직접 소쇄원 48영(畝)이란 제영시를 쓴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전부터 뭔가 서로 교감하는 부분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의 논쟁은 세상에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했으므로 학문적인 것은 아님이 확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후와 퇴계 이황이 서로 교류했다면… 생각이 다른 이들이 삶의 형식을 함께 할 만큼 깊이 공감했을 일이란 무엇인가.

헌데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의외로 영뚱한 곳에서 찾았다.

9) 1534년(중종 29) 문과에 급제, 부정자(副正字) · 박사 · 전적 · 지평 등을 거쳐 세자시강원문학 · 충청도암행어사 등을 지냈다. 1543년 성균관사성장을 지냈다 1552년(명종 7)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사퇴하였다. 그 뒤 30여 차례나 벼슬을 제수받았으나, 대사성 · 참의 · 경연참찬관 등을 잠시 지냈을 뿐 대부분 사퇴하고 향리로 돌아가 본격적인 학문연구에 전력하여 활발한 저술활동과 강학(講學)에 힘썼다

퇴계 이황이 도산서당을 손수 조영한 것은 그의 나이 57세 때 짓기 시작하여 4년여에 걸쳐 완성하였고 도산12곡을 지었던 것은 그의 나이 65세 때인 1565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양산보는 이보다 40여년 앞선 1520~1530년경 담양 성산일대에 소쇄원을 조영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황이 식년과에 입격하여 성균관에 머물면서 김인후와 교류 할 무렵 이미 소쇄원은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뜻했다. 그리고 소쇄원과 관계있는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 정철 역시 그의 나이 25세 때인 1560년 자신의 처 외당숙인 김성원[金成遠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는 김성원이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억령(林億齡)을 위해 지은 정자인 식영정(息影亭)이 있고 그 옆에는 김성원이 자신이 호를 따서 서하당이라고 이름 불인 또 다른 정자를 지었는데, 최근 복원되었다.

《서하당유고》행장에 따르면, 김성원이 36세 되던 해인 1560년 (명종 15)에 식영정과 서하당을 지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임억령(林億齡), 김성원, 고경명(高敬命), 정철(鄭澈) 네 사람을 '식영정 사선(四仙)'이라 불렀다. 이 성산일대에 서하당과 식영정을 지었을 때 이를 기리기 위하여 성산별곡을 썼고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관동별곡을 썼던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을 마치 서로 텔레파시라도 했던 것처럼 하나같이 별서(別墅)로 글로 일궈가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퇴계 이황, 주세붕, 양산보, 김인후, 정철, 이들은 모두 피비린내 나는 사화의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그가 단양 현감을 지내고 도산서당과 도산12곡을 지은 것은 양산보가 소쇄원을 조영(造營)하고 김인후가 소쇄원 48영을 쓰게 된 것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손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자연 속에 드러나게 만들었던 것일까. 과연 그들이 공감했던 상상(想像)의 세계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일들은 그 내막을 소상히 기록한 문헌이 없어 그들의 생각

을 밝히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터와 공간은 비록 퇴락하긴 했으나 물증과 심증 자료로 삼기에는 그 궤적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리고 건축이란 학문이 이들의 존재를 설명해줄 미묘한 암시를 제시해주고 있었다.

### 장소성

혹시 그들은 자신의 존재 방식인 활인심방(活人心方)<sup>10)</sup>을 영속으로 이어갈 어떤 공간적 조건이나 형식에서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만약 이 말을 빌미로 그가 머물다간 단양과 풍기 그리고 도산서당 그리고 그와 교류했던 김인후의 소쇄원 48영, 정철의 성산별곡이 모두를 살펴본다면… 그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연경관을 소재로 독특한 장소성을 구현하거나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소수서원을 찾아간다는 것은 바로 16세기 봉화대로를 따라 사림의 행적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찾아간다는 말로 함축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단양이 퇴계 이황으로 하여금 머물게 만든 장소성은 무엇인가.

만약 이것이 피비린내 나는 사화 속에서 살아남은 퇴계 이황이 마지못해 택한 벼슬살이 이유가 된다면… 이런 생각이 들자 단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가슴 설레게 하는 구석이 많았다. 그래서 필자는 일정을 바꿔 퇴계 이황, 그가 한양을 넘나들었을 때 지나쳤을 조선시대 영남으로 가는 좌로(左路), 봉화대로(奉化大路)의 단양구간을 세심하게 조사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영남으로 가는 길목, 상진대교(上津大橋)에 어둠이 깊어갔다. 소백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산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스치고 쓴살같이 단양쪽으로 달려갔다. 멀리 보이던 백사장도 탁 트인 강변길도 모두 어둠에 지친 듯 깊이 묻혀 가고 있었다. ■

10) 圣人은 병들기 전에 다스리고 醫院은 병이 난 후에 고치는 것이니 前者를 活心 또는 修養이라 하고 後者를 樂餌라 한다. 몸을 다스리는 법이 이와 같이 두 가지이나 병의 근원은 하나인데 모두가 마음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주는 정신이니 고요하거나 바쁜 것이 모두 마음에 따른 것이다." 했다. 그래서 사림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道의 근본도 되고 福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일에 태연하고 맥박이 활발하나 고요치 못하면 氣血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고 탁하여 百病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성품이 고요하면 情은 평안해지고 마음이 산란하면 정신이 피로하나니 참됨을 지키면 뜻이 만족하게 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육심을 내면 생각이 복잡해져 정신이 산란해지고 정신이 산란하면 氣가 흩어져 몸은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말이지만 道의 깊은 뜻에 합치되는 活人心方을 추구할 일이다.

# 미래로 향한 우리의 비전

2009한국건축산업대전을 마치고

## Our vision for the future

배봉수 / 정회원, (주)새암터 건축사사무소  
by Bae, Bong-soo, KIRA

2009년 우리들 모두의 축제이며 화합의 장인 한국건축산업대전이 2009년 10월 7일 (수)부터 10월 11일(일)까지 5일간 '제로혁명, 친환경 건축을 디자인 한다'라는 주제로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초 불어 닥친 세계적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한 건축경기 하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가 확산되어 전시회를 준비하는 시점부터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이어져 우여곡절 끝에, 비록 이전 전시회 때보다는 규모면에서는 축소돼 개최되었지만 전국에 계신 건축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나름대로 내용면에서는 알차게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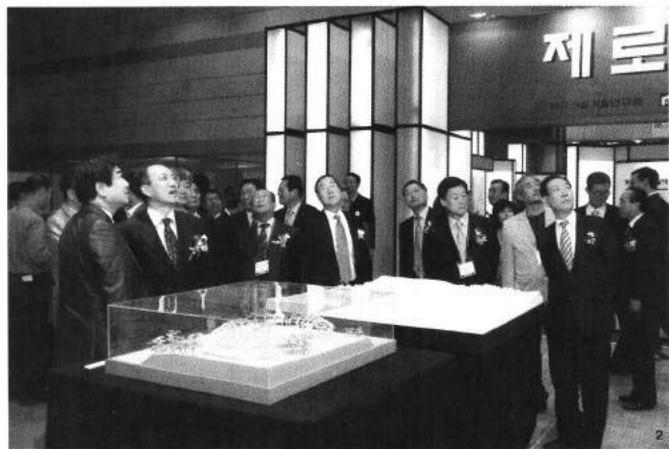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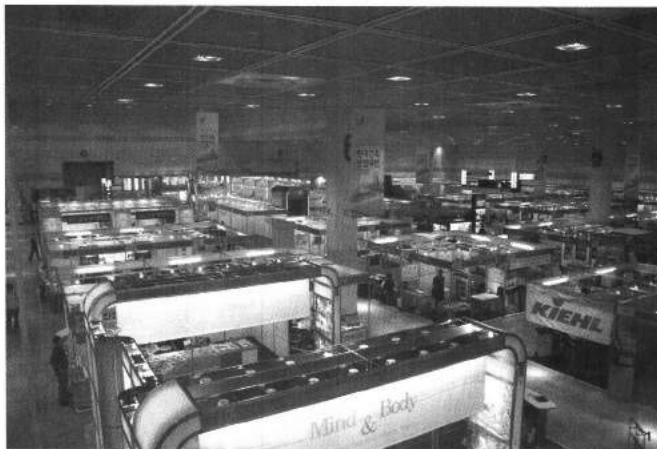
친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에 대한 생각의 범위나 내용은 개개인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법 등의 웰빙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인식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CO<sub>2</sub>의 증가, 고에너지 사용, 자원의 고갈 등의 영향이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각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저탄소, 재활용, 녹색도시 등 한 층 광범위하게 산업전반에 걸쳐 확장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일반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파급되어 이제는 아주 익숙해진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우리 건축계에도 이전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다양하게 접근되어져 미래사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의 보존은 물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친환경 건축이 빠르게 전개되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는 인간을 포함한 주거, 노동, 휴식 및 교통으로 이루어진 인공시스템 부분과 토양, 물, 지형, 대기, 녹지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시스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두 시스템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며 순환적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생태적 환경 디자인의 최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필자도 아직까지 생태적 의미와 친환경적 의미를 유사하게 구분 없이 생각하였다.

친환경건축은 자연과 인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으로 도시환경 디자인과 건축분야에서 생태적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환경 친화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소위 친환경에 대한 여타 전시업체의 건축 관련 전시회가 우후죽순처럼 연이어 개최되었지만 인간환경에 한정된 일부 범위만을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전문전시회에 걸맞게 지구환경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건축과 자연, 건축과 에너지 등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포괄적 접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세미나와 교육 및 토론을 통해 친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널리 알리고 공유할 기회로 한국건축산업대전이 개최되어 동료 건축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친환경 건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 건축사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유익한 전시회로 개최되길 희망하며 전시회 사업 운



1. 2009한국건축산업대전 전경

2.

3. 부대세미나-친환경건축 특별포럼

4. 체험관-건축학교

영위원회로 활동하는 동안 현업에 종사하면서 준비기간 내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아쉬움점이 많았지만 전시기획에 참여하여 주제 설정, 아이디어 회의는 물론 건축자재업체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유치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고, 전시회에 대한 그들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우리 건축사들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듣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재고 할 수 있는 홍보의 기회로 한국건축산업대전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또한 전문전시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하여 족벌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시구성, 홍보, 마케팅 등 전시기법을 조금이나마 접할 기회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건축전시회와는 달리 건축전문 전시회인 우리 건축산업대전의 목표와 성격, 필요성, 추진 방향 등을 한 번 더 생각 할 기회도 새삼 갖게 되었다.

유독 연중 봄 시장에 몰려있는 다른 여타 건축 관련 전시회가 서로의 경쟁에서 뚜렷한 주제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축 자재 중심으로 엇비슷하게 전시회를 개최하여 때로는 중복되어 진행됨으로서 소위 재래시장의 직거래 장터를 연상시키고 있고 건축 자재전시가 거의 전부이다 시피 한 전시만을 위한 전시로 진행되고 있어 품격이 떨어지는 일반전시회로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전시회는 다른 일반 전시회와는 달리 전문 전시회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우리 건축사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명백한 주제를 설정하고 여타 전시회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국내, 국외 포함), 교육 프로그램(건축사,

일반인 대상), 토론의 장, 체험의 장 등 전문 전시 업체와 협력을 통해 '전시+컨벤션'이라는 세계 추세적 발전 방향에 걸맞게 진행함으로서 우리들만의 축제에서 우리 모두의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건축 문화를 선도하고 미래에 대비한 핵심적 역할을 주도하고 선점하여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알림으로서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선도적 역할을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을 통해, 건축사, 건축 관련 전문가, 건축자재업체 등 전체 건축 산업 전반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건축사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전시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체 의식을 더욱 곤고히 하여 이후로도 계속 전시회를 연속성 있게 개최하여 당장의 득실보다는 먼 미래를 준비하고 참여함으로서 우리의 위상과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아직은 전시규모나 홍보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져 더욱 발전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건축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며 얼마나 많은 역할이 기대되며, 우리가 하고 있는 건축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폭넓은 축제의 장으로 한층 성숙된 고품격 전시회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URL : [www.kaff.biz](http://www.kaff.biz)

##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3일 오후 2시 건축 사회관 대강당에서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사총회에서는 재직 대의원 448명 중 360명의 성원을 보인 가운데, '공제사업 출자금 지원의 건'과 '단체 통합 및 정관 개정의 건'이 상정됐다.

최영집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성원보고,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유명을 달리한 회원에 대한 묵념과 이재림 이사의 건축사현장 낭독이 이어졌다. 내빈소개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 및 김광현 위원, 류준수 위원, 기획단 강성식 부단장과 한국건축가협회 김창수 회장 등 내빈들이 소개됐다.

이어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축계에서 한 목소리로 힘을 합하여 건축의 미래를 뒤아나가야 한다"며 "대의원들은 협회가 어려울 때 일수록 일치단결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래를 주도하는 새로운 단체가 될 것인지, 도태가 되는 단체가 될 것인지의 중대한 총회가 될 것이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이어 임시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은 "3년 전부터 건축단체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축단체가 힘을 모은다면, 대정부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 들어가서 주요업무 보고, 감사 보고를 마치고 부의안건 상정에 들어가서 제1호의안부터 순서대로 심의했다.

제1호의안인 '공제사업 출자금 지원의 건'은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최대 관

심사였던 '단체 통합 및 정관 개정의 건'은 일부 대의원의 건의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재직대의원 448명 중 319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86명, 반대 133명으로 정관 규정상 출석대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제1회 임시총회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 안 : 공제사업 출자금 지원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 안 : 단체 통합 및 정관 개정의 건  
-부결됨.
- 총 투표수[319 : 찬성(186), 반대(133)]

## 이사회

### ■제10회 이사회

2009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10월 14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위원회 설치의 건과 건축사 단체통합에 관한 건이, 부의안건으로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의 건과 예비비 사용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의 안 : 위원회 설치의 건  
-위원회(회관관리, 한옥현대화) 추가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설치시기 및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현행대로 운영하기로 함.  
▷내년도 위원회 설치 시 종합적으로 검토
- 제2호의 안 : 건축사 단체통합에 관한 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동 내용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부의안건 제1호의안 참조

### ▲부의안건

- 제1호의 안 :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의 건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일 시 : 2009년 11월 3일(화) 14시  
▷장 소 : 본협회 회관 1층 대강당

#### ▷ 부의안건 :

- 제1호의안 : 공제사업 출자금 지원 의 건
- 제2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T.F팀을 구성하여 좀 더 검토·보완하되, 총회의 위임을 받아 추후 이사회에서 승인하기로 함.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 TFT: 강성의, 김영수, 신춘규, 장양순, 전영철
- 제2호의안 : 예비비 사용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위원회 개최 현황

#### ■ 제9회 법제위원회

제9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9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건
  - 우리협회 의견(등록원, 위임·위탁, 징계 문제)과 다르게 국회에 계류 중인 건축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방침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제2호 : 설계·감리 분리에 관한 건
  - 설계 및 감리 분리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음.
- 제3호 : 건축사업무대상기관 중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건
  - 국회계류 수정(안)의 개정취지는 공공기관을 축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면서 개정조문은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에 서 추가로 더 지정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이사회에서 대처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 제10회 법제위원회

제10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3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법상 내부마감재료의 확인 문제에 관한 건
  -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내용 중 마감재료의 확인에 대한 업무의 범위가 혼돈되고 법리적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는바, 이에 관해 심도 있게 연구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 구성 : 이맹룡(소위원장), 김상호, 정철수, 박명규, 양옥경

- 제2호 : 구조기술사 요구 관련 대응에 관한 건
  - 구조기술사 측 의견정리에 따라 협회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협의일정을 정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법, 건축사사무소 명칭에 관한 건
  - 건축사사무소 명칭사용이 규제라고 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이한구 국회의원의 발의(안)이 규제인지, 제도인 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국방부 감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
  - 국방부가 시설단을 만들고 감리업무를 건축사가 아닌 자가 하고 있는 실정에 대처하기로 함
- ▷ 1단계 : 감리업무는 건축사의 고유업무임을 알리는 협조공문 발송
- ▷ 2단계 : 자료수집·조사·분석·정리

#### ■ 제13회 사업위원회

제13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1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전시회 완료 보고에 관한 건
  - 앞으로 사업위원회는 매달 1회씩 꾸준히 진행키로 하며, 위원회 멤버 교체 없이 연속성 있게 진행하며 차년도 전시규모 및 조직구성에 대하여 협의키로 함.

#### ▲ 기타사항

- 한국건축산업대전 가결신현황 보고

-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차년도 전시회 계획에 관한 워크샵을 추진함.
- 차기 회의 시 2010년도 전시회 홍보브로셔 구성을 협의키로 함.
- 협회의 큰 행사인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단체 관람키로 함.

#### ■ 제9회 정책위원회

제9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2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
  - 건축계 통합 혹은 도시건축정책 입안 추진 등 현실 여건과 계기를 활용하여 건축정책지원예산 증액 및 소관부처 책임자와의 관계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함. (한국건축가협회 기획)

- 제2호 : 세종신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칭) 개최에 관한 건
  - 1안과 2안 모두 각각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적절한 토론회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 ▷ 1안 : 건축전문가로서의 의견 수렴 및 개진을 위한 안

- ▷ 2안 : 정치, 사회 등 사회 전반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로서의 의견제시를 통한 사회참여를 위한 안

- 제3호 : 설계 직능, 비용 측면과 발주 제도 및 실태에 관한 건
  -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이에 대한 비용 산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 2009년도 제4회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2009년도 제4회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30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제1차 APEC 등록건축사 등록개신 추가에 관한 건

-등록개신 추가 회망자 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등록개신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해당 건축사에게 통보하기로 함.

-향후에도 등록개신 추가 회망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사유서를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개신을 인정하기로 함.

- 제2호 :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계속 교육 기준 결정에 관한 건

-APEC 등록건축사 계속교육은 제3회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소위원회(10/9)에서 협의한대로 진행하기로 하되, 일부내용은 APEC 국제기준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기로 함.

- 제3호 : 제2차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신규 등록에 관한 건

-제2차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신규 등록 일정은 제3회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소위원회(10/9)에서 논의한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2차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신규 등록 일정

### ▲ 기타사항

- 중앙이사회 사무국 운영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근창 위원이 필리핀 APEC 중앙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문의 후 사무국에 통보하기로 함.

### 우리 협회 대표단,

####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

한국, 중국, 일본 건축사단체의 연례행사인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가 오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장시성 징강산에서 개최된다.

우리 협회에서는 최영집 회장을 대표로 총 11인의 참가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각 세션 발표는 신준규 이사, 이근창, 최재희, 김성민, 민규암, 여구호 국제위원, 진 린 (주)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단지설계연구소 실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차기 협의회의 한국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신정철 광주건축사회 회장도 참가한다. 또한 APEC등록건축사 및 건축사자격 MRA관련 협의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부기관 1인이 동참토록 하자는 지난 협의회 결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최종화 주무관이 함께 참가하며, 국토해양부가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도 예정되어 있다.

지난 1997년 북경에서 회합한 대한건축사협회,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일본건축사회연합회는 각각 한국, 중국, 일본을 대표해 「한중일 건축사단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래 총 12회의 협의회를 연례 순환개최하면서 동북아 지역 건축분야 지역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

우리 협회는 제1회 북경 협의회에 김영수 전 회장을 대표로 하는 참가단을 파견한 이래 매년 참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총 4회의 협의회를 한국에서 개최했고, 2010년 제14회 협의회의 개최 또한 준비하고 있다.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에서 논의될 주

### ◎ 제2차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 신규 등록 일정

일정	세부 내용
'09. 12. 1 ~ 31	• 제2차 APEC 등록건축사 등록공고(31일간)
'10. 1. 1 ~ 31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서류 접수(31일간) - 등록신청비 납부 요청(200,000원)
'10. 2. 1 ~ 2. 28	•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일정 협의) ※ 1월 초 (심사위원회 2인 4팀) • 보완서류 요청 및 접수 • 신청서류 심사(28일간)
'10. 3. 1 ~ 31	• APEC 등록건축사 진산입력 (한달)
'10. 4. 1 ~ 4. 9	• 등록예정자 발표(개별통보)
'10. 4. 12 ~ 5. 12	• 등록증 및 ID카드 교부신청서 접수(31일간) - 등록비 납부 요청(300,000원)
'10. 5월	• 수여식

제는 “APEC 등록건축사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록건축사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건축사 국제실무를 위한 핸드북 제작에 관한 사항”이며, 건축세션은 “중간규모 도시·지구 건설”, “특수한 지역 건축디자인”의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협의회는 프로그램 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본 회의 전에 핸드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방대한 실무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영집 회장, 김광현 국가건축정책위원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전국대회 참석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전국대회에서 축사중인 최영집 회장



기념선물 교환 중인 최영집 회장(右)과 후지모토 일본연합회 회장

우리 협회 최영집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일본 야마가타에서 개최된 제52회 일본건축사연합회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일본건축사회연합회(Japan Federation of Architects & Building Engineers Association)는 지난 1985년 우리 협회와 「한·일 건축사 교류 족진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이래 교류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양 단체는 각각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정기총회(본 협회)와 전국대회(일본 연합회)에 격년으로 상호초청 및 방문을 이어오며 우호관계를 높이 해왔으며, 올해에는 일본연합회의 제52회 전국대회에 최영집 회장이 참석하여 개회식 축사를 비롯한 공식활동을 펼쳤다.

## ◎ 대한건축사협회의 일본 교류단체 비교 (일본연합회와 JIA)

	일본건축사회연합회 (JFABEA)	일본건축가협회 (JIA)
공식명칭	(社)日本建築士會連合會 Japan Federation of Architects & Building Engineers Association (JFABEA)	(社)日本建築家協會 The Japan Institute of Architects (JIA)
설립년도	1952년	1914년 全國建築士會 창립대회 개최 1915년 日本建築士會로 개칭 1987년 新日本建築家協會로 통합 【 일본건축사회 (JAA) + 일본건축단체연합 (JFPAA) 】 1996년 日本建築家協會로 명칭 변경
특성	일본건축사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정부의 Counterpart 역할 수행	건축사로만 회원이 구성되어 있음
소재지	일본 도쿄	일본 도쿄
회장	 마사야 후지모토 Fujimoto, Masaya 취임 : 2008.5	 유타카 이주에 Izue, Yutaka 취임 : 2008.6
회원수	97,000명 ('09.10)	6,300명 ('09. 8)
지부수	47개 건축사회 (총 지부는 약 500개)	10개 지부
협정체결	한·일 건축사 교류 촉진에 관한 각서 ('85.3.30)	KIRA-JIA 건축 전문직 간 교류를 위한 협정 ('03.12.23)
교류내용	- 정기총회(KIRA), 전국대회(연합회) 격년 교환 초청 - 발간물 교환, 건축관련 실무협력 등	- JIA 전국대회 매년 초청 방문 - 발간물 교환, 건축관련 실무협력 등
국제활동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세계건축사연맹(UIA),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회원단체
국제행사 개최계획	제15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2011년)	제24차 UIA 총회(2011.9.25~29, 도쿄)

### ◎ 그 외 일본 건축관련 단체

- 일본건축학회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 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 (The Japan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Firm)
- 일본건축업협회 (Building Contractors Society)

일본 전역에서 3천여 명 이상이 참가한 이번 야마가타 대회는, 건축사 지위 향상 및 기술혁신, 안전방재 도시, 자연과의 공생 추구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지는 등, 연합회 뿐 아니라 일본 건축계의 큰 축제로 치러졌다.

이번 방문에는 김광현 국가건축정책위원도 대한건축사협회 대표 자격으로 동참하였으며, 최영집 회장, 일본 연합회 임원진과 함께 한·일 건축사 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 제5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축구대회 성료

지난 10월 16일, 17일 양일간 경남 남해군 남해 스포츠 파크에서 개최된 제5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및 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성료됐다.



전국 총 15개 동호회, 19개 팀, 500여명의 건축사들이 참가해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열띤 각축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는 대구축구동호회가 대전축구동호회를 2 : 0으로 누르고 대회 우승컵을 안았으며, 울산축구동호회는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최우수선수상은 이길웅 건축사(대구), 최다 득점상은 우병용 건축사(대구)가 차지했다.

내년 봄 전국건축사축구대회는 대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독거노인 보금자리 봉사활동 가져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해비타트 서울지회와 공동협력사업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난 10월 12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45-14번지를 방문, 노후주택 지하방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임직원 15명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도배와 청소, 집안정리 등을 직접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봉사로 건축사의 위상을 높였다.

### 2009 경기도 건축사 체육대회 개최



경기도건축사회(회장 백승천)는 지난 10월 30일 안산 호수공원 진디구장에서 '2009 경기도 건축사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격년으로 경기도건축사대회와 번갈아 열리는 경기도 건축사체육대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사기진작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안산지역 건축사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18개 지역회를 희망, 평화, 사랑, 미래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축구, 족구, 계주, 단체줄넘기 등의 경기를 통하여 회원들의 체력강화와 친목을 다졌다.

원로회원만을 위한 공굴리기, 제기차기 등의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경기도 건축사

체육대회는 주관하는 지역건축사회의 협신적인 준비와 노력으로 매년 관심과 참여열기가 넘치고 있으며, 지역건축사회의 화합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에 건축사를 알리는 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009 충남건축문화제 성료

충청남도 건축인들의 축제인 '2009 충남건축문화제'가 '和(어울림: Harmony)'란 주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논산시 건강관리센터에서 성료됐다

올해로 2회째 개최되는 충남건축문화제는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신우식)가 주관하여 산·학·연이 함께 건축문화의 발전과 건축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이번행사에는 충청남도 건축상, 건축작품전, 교수 초대전, 학생우수작품전, 건축인회화전·사진전, 어린이 집그리기·만들기 대회 어린이 건축 체험교실, 건축과 도시관련 초청강연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건축상 대상에는 '금산 동곡리 단독주택(박덕기/세종 건축사사무소)'가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은 한일이화(주) 연수원(김관규/주. 예가 건축사사무소), 우수상은 '천리포 수목원 생태교육관(이각표/주.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천안 하늘샘교회(강철희, 천근우/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에서 수상했으며, 학생우수작품 건축문화대전 부문 대상에는 'the door which connects time' 백수용, 맹보영(호서대 건축학과) 학생이, 최우수상으로는 'Bio-viste' 권태구, 김응수(홍익대 건축공학과)와 'The second memory' 최영록, 최진구(호서대 건축학과) 학생이 수상했다.

## 전라북도건축사회,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 협회와 국제교류 협정 체결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엽)는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와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고 건축문화 교류 및 양 협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 5일간 이성엽 회장 및 이정호 국제교류위원장 외 회원 11명과 태완섭 사무국장을 대표단으로 중국 강소성(남경시, 무석시)을 방문해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와 전라북도건축사회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쌍방 간에 회원 교류 및 건축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정기방문을 통해 우호를 다지고 건축문화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 삼도봉 등반 대회 개최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는 인근지역 건축사회 간의 친목도모와 우의증진을 위한 민주지산 삼도봉(전북 무주, 충북 영동, 경북 김천) 등반대회가 지난 10월 26일 개최됐다.

올해는 전라북도건축사회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북 40명, 충북 18명, 경북 52명 등 건축사회 회원 및 가족, 직원 총 1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등반대회에서는 건축사업계 발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정상에서 가져 눈길을 끌었다.

## 건축문화강좌 개최

우리 협회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 까지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건축문화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우리 협회 회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궁금해 하였던 내용과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강좌이다.

강좌 신청방법은 해당강좌 1주일 전까지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팩

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건축문화강좌' 수강자는 우리 협회 회원인증 및 교육규정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된다.

### · 일정(강좌일시/과목명/강사)

- 11월 26일(목) 14:00~16:00 / 건축분쟁과 법률적 대응방안 /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 12월 3일(목) 14:00~16:00 / 건축과 사주학 / 박한규 명예교수(전북대학교)
  - 12월 10일(목) 14:00~16:00 / 전통과 현대화 / 정무웅 교수(단국대학교)
  - 12월 17일(목) 14:00~16:00 / 지구단위계획 / 김형진 건축사(주. 가이아도시)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실적관리팀 02-3415-6853, Fax : 02-3415-6855, E-mail : shima@kira.or.kr

## 2009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국토해양부는 올 9월 실시한 '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 예정자' 명단을 지난 11월 13일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5,633명이 응시한 가운데 453명이 합격, 8.1%의 합격률을 보여 지난해의 합격률(6.7%)보다 다소 높아졌다.

최고 득점자는 광고일(32/부산대졸)씨로 300점 만점에 230점을, 평균 76.7점을 기록했다. 아울러 최연소 합격예정자는 만 28세의 이은정씨, 최고령자는 만 54세의 임인옥씨다. 또한 여성합격자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총 80명으로 합격예정자의 17.6%를 차지했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의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2010년 1월 8일(금) 국토해양부([www.mltm.go.kr](http://www.mltm.go.kr))와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http://www.kir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예정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경력증명서 등을 오는 20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건축계소식

###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제 1회 서 울 국 제 건 축 영 화 제(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 일간 '건축의 대국민 소통'이라는 주제 하에 서울 광화문 미로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주제는 '건축사(The Architects)'로서 영화를 통해 건축사의 역할과 문화적 성취를 재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새로운 화두와 영화 속에서 건축예술의 표현 영역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것이다.

이번 영화제는 건축사가 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변변찮은 현실에서 영화제는 건축사에게 의의가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영화제는 건축을 부동산의 가치로만 보는 세태를 바로잡아,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과 건축사의 역할을 대중들이 보다 쉽고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몽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영화제에는 4일간 〈렘 콜하스 : 도전과 혁신 Rem Koolhaas : A Kind of Architect, 2008〉, 〈노먼 포스터와 거킨빌딩 Building the Gherkin, 2005〉, 〈마이 아키텍트 My Architect, 2003〉, 〈미천루 The Fountainhead, 1949〉, 〈프랭크 게리의 스케치 Sketches of Frank Gehry, 2005〉와 특별상영작으로 〈취화선, 2002〉 등 5편의 영화가 매일 상영될 예

정이다. 또 부대행사로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과 '관객과의 대화', UCC 건축공모전 시상식과 이벤트 등이 개최되는 폐막식 등이 개최된다.

개막식은 11월 19일 서울 광화문 미로스페이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영화배우 및 감독, 건축계 저명인사, 학계 및 기타 유력인사, 기자단(문화부) 등의 인사가 참석해 영화제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축하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http://www.kira.or.kr), 02-3415-6800

### 제1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전라북도는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건축인을 발굴하고자 추진한 '제1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지난 10월 27일 발표했다.

계획작품부문 학생부 대상은 소재남, 송문영, 이신혜(전북대)씨의 '전통의 현대화를 통한 한옥마을 문화체험관 계획안'이 선정됐다. 또한 계획작품부문 일반부 대상은 (주)길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의 '한지를 쌓다(계획안)', 사용승인부문 대상은 (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앤씨 권연하 건축사가 설계한 '전주대학교 EM생활관'이 거머쥐었다.

이번 건축문화상은 총 53점이 접수, 도의원 1명, 교수 6명, 건축사 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각 부문별 전체 17작품을 선정했다.

이길환 건축사의 '한지를 쌓다(계획안)'은 중정, 후원, 바람느낌광장 등 전통적인 궁궐의 건축물 배치원칙을 고수하며 건물전체의 형태를 한옥처마의 선을 고스란히 유지한 한국의 흥과 멎을 주는 작품으로 평가됐다.

사용승인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전주대학교 EM생활관'은 기존수립의 등고선 상에 배치해 온실, 천장판 등 주변녹지대를 정원으로 활용하고 외부계스트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각 세대의 독립된 외부정원 설치

는 물론 주거공간의 위계구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능에 중점을 둔 점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라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지역의 침체된 건축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수준 높은 젊은 건축인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도내 건축전문가와 건축 관련 3단체(건축사회·건축가회·건축학회)와 협력해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재)아름지기 한옥 공모전-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개최



재단법인 아름지기(이사장 신연균)에서 이상의 집터에서 내일의 한옥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한옥공모전, 아름지기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Arumjigi Heritage Tomorrow Project)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공모전이 아닌, 관련 좌담회 및 세미나,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돼 한옥에 대한 관심을 전반적인 건축의 사유 환경으로 확대시키고, 한국의 미래를 짚어질 차세대 건축사의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역사적 장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문화유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아름지기 헤리티지 투모로우 첫 프로젝트는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54번지를 과제로 제시한다. 현재 문인이자 예술가였던 이상이 20년 동안 실제 살았던 통인동 154번지는 1930년대의 근대문화를 기억하는 좋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중인들이 거주지였고 근대 예술가들의 거점이었던 서촌이라는 장소성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곳은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서촌지역 개발계획과 맞물려 이 일대 남겨진 한옥과 더불어 과거의 기억들을 보존하고 미래로 이어주는 새로운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시대적, 공간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담고 있는 통인동 이상의 집터는 도심의 한옥 마을로서의 서촌과 근대 유적지와 인물을 기념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아름지기 한옥공모전의 첫 프로젝트에는 성균관대 이상해 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소장), Clark E. Llewellyn(하와이대학 학장)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원)건축과 학생 및 견학인으로 건축 설계 및 프로그램 아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헤리티지 투모로우상(1팀) 및 입선(최대 5팀)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과 100만원이 수여되며 모든 입상자에게 '건축가와 떠나는 해외 건축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공모전 신청접수는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아름지기 한옥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 문의 : (재)아름지기 교육팀 02-741-8374, [www.arumjigicompetition.org](http://www.arumjigicompetition.org)

#### KCC, 농촌 사랑 1사 1촌 자매 결연식 잇따라 열어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1사 1촌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KCC는 지난 9월 전주공장과 대죽공장의 1사 1촌 자매 결연식을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촌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먼저 KCC 전주공장(공장장 최선봉)은 지난 9월 15일 전북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도계마

을 회관에서 농촌사랑 자매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사랑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농촌의 실익 증대에 기여하고, 자매 결연을 통해 기업과 농촌이 더불어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게 되었다.

최선봉 공장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도계마을과의 1사 1촌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1사 1촌 운동을 통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촌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KCC 전주공장 측은 이날 행사에서 도계마을 주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해 CCTV를 전달, 설치하는 등 농촌사랑 실천을 다짐했다.

KCC 대죽공장(공장장 곽성용)도 9월 17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3리 마을 회관에서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KCC 대죽공장 측은 앞으로 어송3리 마을의 농촌일손 돋기와 농산물 구매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사랑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KCC 대죽공장은 이날 자매 결연식 행사에 앞서 어송3리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냉난방기를 마을회관에 기증하는 등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 KCC,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 KS 1급, 숲으로 SE' 출시



KCC는 최근 가격적 부담을 낮추고 제품의 질을 한껏 향상시킨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 KS 1급, 숲으로 SE'를 출시했다. 이 제품들은 수십년간 축적되어 온 KCC의 우수한 기술력과 친환경 페인트의 대표 브랜드 '숲으로'가 만나 탄생한 고기능성 친환경 수성 페인트이다. 일반 수성 페인트보다 품질과 친환경성, 그리고 작업자의 편의성 모두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면서도 가격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여 국내 페인트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 출시된 '숲으로 수성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국내 KS의 품질 기준은 물론 글로벌 품질 기준을 만족시킨다.

이번 신제품의 주요 특징은 온도변화 및 회석율에 따른 점도변화의 최소화, 수지와 입자 크기 변화를 통한 도막의 강도, 부착성 및 내세척성 향상 그리고 안료의 패킹(Packing)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후도막으로 인한 크랙 발생을 개선하였다. 또한 페인트 흐름성의 최적화 및 부드러운 롤러 작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페인트를 사용하는 사람의 작업성까지 개선한 것이 돋보인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제15차 아카시아 포럼

## 제15차 아카시아 포럼 참가보고서

제30차 이사회 및 제15차 아카시아포럼이 2009년 8월 17일(월)부터 23일(일)까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회원국 17개국의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3일 동안 이사회, 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하고, 이후 이를 동안 포럼을 개최하여 'City and Politics: 도시와 정치'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우리 협회에서는 공식대표로 최영집 회장과 신춘규 이사가, 아카시아 공식대표로 이근창 전 아카시아 회장과 정재욱 교육위원장(현 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이, 그리고 김지덕 국제위원회 전문 위원, 김성민, 김은미, 임희선 국제위원, 그리고 부산건축사회에서 정태복 회장(ACA-13 집행위원회 원장)과 윤희수 부회장(ACA-13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본 협회 사무국에서 한효림 과장, 지난

해 건축문화대상에서 수상한 학생 중 선발된 심소연, 이병희 두 학생 모두 13명이 참석하였다.

처음부터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시작된 행사가 마지막에는 행사를 앞두고 홍수로 인해 전반의 회의 장소였던 테를지(Terelj) 호텔로 들어가는 다리가 손상되어 급하게 행사장소를 울란바토르로 옮기는 해프닝이 있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버스의 기다림, 복잡한 교통편으로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회의 시간이나 정해진 시간보다 3시간 이상 기다려야 즐길 수 있는 점심, 저녁 열시가 넘어서 먹어야 했던 저녁 등 극도의 인내심을 테스트 받은 회의였으며 우리가 작년에 개최한 부산대회와는 달리 비교가 참 많이 되는 행사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회의 기간 중 묵어야했던 게스트하우스는 대통령궁이 있는 단지로 경치는 좋으나 경비가 삼엄하고 군인과 훈련받은 개의 공포로 아침운동조차 할 수 없었던 추억이 만들어졌다. 몽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느슨한 운영 속에서 가졌던 각 종 회의들의 내용과 결과들은 아래와 같다.

건축실무위원회(ARCASIA Committee on Professional Practice: ACPP)

17일(월) 오후 2시, 게스트하우스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필리핀건축사협회(UAP)의 Edric Marco Florentino(Dinky)



대한건축사협회 대표단



제30차 아카시아 건축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비록하여 각 국의 대표 4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김지덕 고문, 신춘규 이사와 임희선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건축실무위원회는 4개의 목표를 갖고 각 국의 제도와 변화들을 나누고 앞으로 공통의 과제들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는 위원회이다. 4개의 목표는 첫째, 각 회원국의 실무와 법과 규정들을 상호 이해하고, 둘째, 모든 회원국내에서 권장할 만한 건축실무의 통일된 표준을 만들고, 셋째, 이미 건축 실무기준을 만든 협회의 경험을 다른 회원국에 나눌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화에 맞게 회원국 간의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실무의 논의를 위한 기초를 만드는 데 있다. 이 목표를 위한 전략과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각 국의 건축 관련 제도 및 협회 내에서의 변화 등을 보고 하는 순서를 가졌다.

#### 친환경위원회(ARCASIA Committee of Green and Sustainable Building: ACGSB)

제스트하우스에서 건축실무위원회에 이어 열린 친환경위원회는 신춘규 이사와 임희선 위원이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각 국의 대표들로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와무라 가즈오(Kazuo Iwamura) 위원장이 주재를 했고 일본 위주의 친환경 접근에 대한 배경과 위원회의 목표에 대한 간략한 토론이 있었다.

Country Report 발표를 통하여 17개국의 각국 대표들이 각국에서의 친환경 현황 및 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연합으로 2009년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되는 Asia Pacific Green Building Leadership에 관한 홍보와 프로그램을 설명하였고 각국의 활발한 친환경 사업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와무라 가즈오 위원장은 2008/2009년의 아카시아 친환경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였는데 아카시아 친환경위원회의 자료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아카시아의 친환경건축지침(Guidelines for Green & Sustainable

Architecture) 발행과 싱가포르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친환경관련 워크샵을 소개했다. 또한 이와무라 가즈오 위원장은 UIA 국제회의에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호의존에 관한 발표(Declaration of Interdependence for a Sustainable Future)와 일본건축가협회(JIA)의 글로벌 환경을 위한 건축 선언(Architecture Charter for a Global Environment)과 관련된 사항을 사례로 발표하였다.

#### 교육위원회(ARCASIA Committee of Architectural Education: ACAE)

이사회 첫날 오전 세션이 끝난 후 칭기스칸 호텔의 종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는 정재욱 교육위원장이 컨비너(Convener)로 김성민, 김은미 위원이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등 25여명의 각국 위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교육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3개로서 첫째는 건축연대표(Time Line Chart)의 보완으로 필리핀의 Ar. Rosman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선정되었고, 둘째는 아시아 각국의 건축대학 주소록(Asia School of Architecture Directory)을 만들어서 학생, 교수 및 건축사에게 해외 건축대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로서 태국의 Chalay Kunwong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통일된 양식을 작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셋째는 아카시아 학생 설계공모전 및 포럼

으로 말레이시아의 See Kim Pio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아카시아 학생 잼버리와 겹치지 않도록 격년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태국의 Chalay Kunwong이 공식인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한국의 정재욱 위원장과 방글라데시의 Abu Sayeed Ahmed 부위원장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 Fellowship 회의(ARCASIA Fellowship Meeting)

제30차 ARCASIA Fellowship 회의가 ARCASIA 이사회 및 제15차 포럼이 진행되는 8월 1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컨비너인 Rabiu Husain이 2009년 10월 27일에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Fellowship 회의 이후 어떠한 문서의 왕래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 컨비너로서 사과 한마디를 하였고 본인의 임기 내에 어떠한 협력이나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ARCASIA Fellowship Directory에 각 회원들의 사진과 기타자료를 수집하여 완성된 자료로 향후 Fellowship Directory 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며 미제출 회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참여를 당부했다. 향후 모든 Fellowship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언급했고 각 회원국에 이 사항을 다시 문서로 보낼 예정이므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울란바토르 회의에서는 ARCASIA의 장래 활동, 건축설계, 전문가 교육,



제30차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ARCASIA가 그 동안 진행해 왔던 건축 관련 분야, Fellowship Directory 출판 등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번 회의 중에 ARCASIA가 더 큰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운영이 무엇인지, 각 Fellowship 회원간의 역할과 책임, 각 국가의 역사, 유산, 전통 관련 보존과 환경문제, 자연재해 중의 구호활동, ARCASIA Fellowship 홈페이지의 이용과 참여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제30차 이사회(The 30th Council Meeting)

이사회는 18일(화) 칭기스칸 호텔의 컨벤션 센터에서 아카시아 회장인 방글라데시의 무바사 후세인(Mubasshar Hussain)의 주재로 개최되었다. 아카시아 임원 10여명과 각 국 대표단 2명씩을 포함하여 약 80여 명 및 약 60여명의 옵서버들이 참석하여 정해진 의제에 대해 19일(수)까지 논의하였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들과 우리 협회가 발표한 주요 내용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2008년도 제29차 Council Meeting의 회의록 검토 및 승인 : 부산에서 개최된 제29차 아카시아 중앙이사회의 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부산대회의 성대한 개최성공에 대해 모든 대표들이 부산을 대표로 참석한 정태복 ACA-13 집행 위원회 회장과 윤희수 사무총장에게 박수로 찬사를 보냈다.

2. 재무보고 : 재무이사의 2008년 회계연도의 재무보고가 있었다. 2008년 수입은 회원국의 회비를 포함하여 약 US\$ 53,000이고 지출은 US\$ 13,660 정도이다. 한국의 회비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연 US\$ 1,000씩 내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3. 지역 부회장, 회장 국가별 보고서 : 각 지역별 부회장과 회장, 그리고 각 국의 대표들이 국가별로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과 건축분야에서의 정책, 제도 등 특수한 변화만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각 보고서들을 아카시아 웹사이트에 올려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국가별로 특기사항 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필리핀(UAP) : 필리핀 자국 내에서 시행되는 Professional Organization Award를 2년 연속 수상함

- 싱가포르(SIA) : 오는 10월에 Green Building Exposition이 열림.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람

- 일본(JIA) : 2010 UIA 총회를 위한 조직 위원회(조직위원장 : 오구라 산) 결성에 대한 보고와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함

- 태국(ASA) :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ASA Center를 시내에 별도로 열고 도서실, 휴게실, 전시장, 회의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함. 센터 운영 후 학생 회원이 약 80명 정도 등록함

4. 아카시아 프로젝트 : 아카시아 프로젝트의 보고에서는 아카시아 본부 건설, 홈페이지 업데이트, 아카시아 히스토리 북, 아카시아 Heritage Architecture book 그리고 Time line Chart의 업데이트 등이 논의되었다. 아카시아 본부 건설에 대한 추진 현황을 이근창 직전회장이 그동안의 진행경과를 보고하고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부산시가 협동으로 문화관광부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에 애로 사항이 있어 일정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우리 협회가 지원하는 아카시아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 국의 관심과 각 위원회 컨비너(Convenor)의 필요한 내용들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국의 대표들의 이용 없이 활성화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회장국에서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우리 협회로 요청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필리핀에서 주도하여 제작한 아카시아 History book은 각국 당 일정부수를 배포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각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5. 아카시아 Data Bank와 Architecture ASIA誌 : 현재 말레이시아(PAM)에서 운영 중인 Data Bank와 계간지인 Architecture ASIA誌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아카시아 Data Bank는 부산에 본부가 설립되면 옮겨질 내용들로 현재는 말레이시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디



제30차 아카시아 이사회 17개국 대표단



왼쪽부터 신춘규 이사, 박철 박무익 몽골회장, 이근창 아카시아직전회장, 최영집 회장, 정제욱 국제위원장

지털 등의 방법으로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Architecture ASIA誌는 프로젝트의 광범위한 소개를 위해 주제를 좀 더 넓히기로 하고 각 회원국들에게 홍보를 통해 광고스폰서 확보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 6. 2008년 ACA-13 부산대회의 보고 : 부산을 대신하여 준비된 자료로 신춘규 이사가 보고했다.

부산대회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 동안 부산 컨벤션센터 등에서 개최되었다. 21개국에서 709명과 한국에서 총 4,163명이 참석하고 학생잼버리에는 76 명의 외국학생들, 61명의 한국학생들과 10 여명의 튜터들이 참석하여 어느 대회 보다 성황리에 개최되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정보고로서는 총수입이 U\$ 524,139달러에 지출이 U\$ 543,226로 약간 적자를 보는 결과를 보고하고 적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떠안는 것으로 확인해주었다. 부산 대회의 성공에 다시 한번 모든 대표단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7. 회원국 신규 등록에 대한 협의 :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회원국으로 등록되지 않은 회원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북한 그리고 미얀마 등 4개국이고, 현재 라오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 이는 이근창 직전회장시 이미 거론된 내용으로 당시에 그은 지역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8. 차기대회 개최지 선정 : 이미 부산대회에서 결정된 ACA-14는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10월중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몽골회의에서는 Forum 16은 베트남의 다낭에서 2011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다. ACA-15개최를 위한 경합(Bidding)에서는 홍콩,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이 제안 했으나 스리랑카는 자진 철회하고 남은 두 회원국 중 라호르(ACA-14)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9. 각 위원회 활동보고 : 건축실무위원회는 필리핀의 Dinki(Edric Marco Florentino)가 친환경위원회는 일본의 이와무라 가즈오 교수가 교육위원회는 정재숙 위원장이 각각 보고하고 특히 정위원장은 부산대회에서 있었던 학생잼버리의 내용을 DVD로 담아 발표했다.

10. ARCASIA 건축상 : 한국의 이근창 직전회장과 러시아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진지한 심사 끝에 12개 분야에 제출된 95개 작품을 심사하여 12개의 골드메달과 2개의 우수상을 선발하였다. 한국은 4개 분야에서 골드 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 아카시아 차기회장 선출 : 이전 대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비추어진 2011년부터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는 차기 회장을 선출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과 사전 교섭 끝에 일본의 조지 쿠니히로와 말레이시아의 탕페이 잉이 경합을 펼쳤다. 투표결과 끝까지

박병의 시소 전을 벌인 끝에 일본의 쿠니히로가 9:8로 한 표 차로 회장에 선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검토에 이어 회장의 인사말로 중앙아시아회를 마무리 지었다.

#### 제15차 아카시아포럼(ARCASIA Forum 15)

포럼 첫 날인 8월 21일은 Main Square에서 집결하여 정부 청사를 광장 측으로 증축하여 설치한 청기스칸상 앞에서 간단한 예를 올리고 정부청사의 메인 힐에서 Elbegdorj 대통령의 축사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울란바토르 시장, UIA 회장 등의 축사로 이어진 포럼은 '도시와 정치'란 주제로 열렸다. 처음부터 신종 바이러스와 이에 따른 예상 여진의 축소로 기조연사를 초청하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보였다. 한국의 김영섭 선생도 기조연설자로 지명되어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따라서 연사들은 대개 회원국의 회장단이나 지명자들 중 구성 되었다. 일본의 일본건축사협회의 유타카 회장이나 원로인 오따 같은 경우가 그런 예로 보인다. 발표에 대한 내용도 전혀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개인적인 건축관의 피력이나 견해 또는 작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관되었다.

포럼 둘째 날은 상공회의소의 전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시장에서 약 15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포럼이 진행되었다. 일본 오따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포럼은 조지 쿠니히로, 몽골의 고롬은행 회장인 바야스갈란 단잔도르즈, 방글라데시의 삼술 웨어즈



제15차 포럼에 참석한 최영집 회장



포럼과 전시가 개최된 몽골상공회의소 전시장

교수 등이 발표를 하고 12시경 오전 세션이 종료되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세종 신도시의 홍보자료를 시작으로 각 국의 자료를 발표하고 토론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주제와 발표가 일관성이 없는 등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몽골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사회 장소나 포럼의 장소 등이 개최 직전 정부의 중요한 행사로 변경되어진 것도 그 한 예로 볼 수 있다.

## 기타 행사를

중요한 행사를 외에 환영리셉션, 건설교통부장관 주최만찬, 우정의 밤 등이 매일 개최되어 전체 행사의 부족함을 보완해주었다. 각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첫날인 17일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간단한 환영만찬이 개최되어 도착한 각 국 단체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8월 20일에는 Kh. Battulga 몽골 건설교통부장관 주최 연회가 바양골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8월 21일에는 대표단이 주몽골한국대사관을 방문하였는데 이날 최영집 회장, 이근창 아카시아직전회장, 신춘규 이사, 김지덕 국제위원회 전문위원이 정일 주몽골한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정일 대사는 한국-몽



왼쪽부터 신춘규 이사, 김지덕 전문위원, 정일 주몽골 한국대사, 최영집 회장, 이근창 아카시아직전회장

골간의 외교사와 현재 몽골정부와의 민감한 외교문제에 대해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최영집 회장은 건축서비스분야에서 민간외교를 통해 한국-몽골 간의 외교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저녁에는 몽골도시개발협회 주최 민찬이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몽골리아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몽골의 전통 춤과 음악이 소개되었다.

포럼의 마지막 전야인 22일에는 아카시아 17개 단체의 장기자랑이 선보이는 우정의 밤(Friendship Night)이 G. Munkhbayar 울란바토르시장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장기자랑에서는 각 국의 전통놀이 및 춤과 대표단의 장기가 소개되었는데 1위는 전통 춤을 선보인 방글라데시 대표단이 차지하였고 우리 대표단은 태극기 모양의 단체 티셔츠를 입고 흥겨운 한국 가요에 맞춘 노래와 율동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날 모인 각국 대표단은 제15차 아카시아 포럼의 피날레를 맞이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차기 아카시아 행사에서 만날 것을 다짐했다.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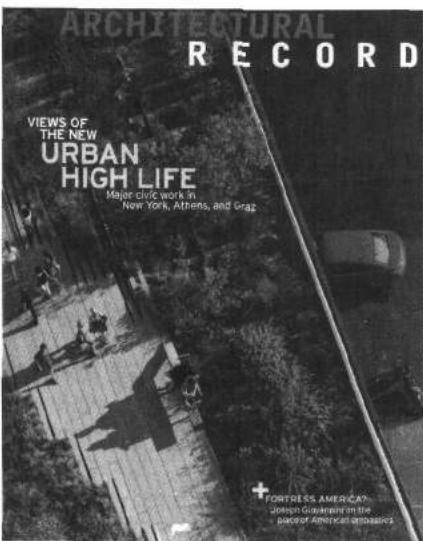


우정의 밤에 참석한 협회 대표단



건축물답사 – 울란바토르시

##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의 Project 섹션에서는 Bernard Tschumi Architects의 New Acropolis Museum, High Standard라는 주제 아래에서 James Corner Field Operation의 High Line, Polshda Partnership의 Standard New York을, 그리고 UNStudio의 MUMUTH Music Theater가 소개되고 있다. Building Type Study에서는 '도심의 녹색 건축(Green Civie Building)'이라는 주제로 Anmahian Winton Architects의 Community Rowing Boathouse, Safdie Rabines Architects의 Baldwin Hills Scenic Overlook, 그리고, Jane F. Kolleeny의 Whistler Public Library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 Books

Hijacking Sustainability: by Adrian Parr. MIT Press, 2009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치와 문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노력들에 관한 이 흥미적인 이야기에서 저자인 Adrian Parr는 지속가능성은 양립할 수 없는 자본가와 일반 대중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먼저 이 책은 지속가능성 문화의 대중화 (친환경 브랜드의 확산, 헐리우드의 친환경

운동, 백악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Parr는 자본주의(나쁨)과 일반대중의 비영리단체(좋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성 사이에 그 둘이 절대 공존할 수 있는 틈이 없을 것이라고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리고 Parr는 쓰레기, 빈민가, 자연재해와 같은 지속가능성 문화에 대한 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생태계에 관한 문제로의 창조적인 접근방식을 강조한다.

Parr의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A Place of My Own: The Architecture of Daydreams: by Michael Pollen. Penguin Books, 2008

13년 전, 'The Omnivore's Dilemma'의 베스트셀러 저자인 Michael Pollan은 글을 쓰기 위한 자신만의 오두막을 수목이 우거진 그의 집 뒤뜰에 디자인하고 만들면서 건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Pollan은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추상적인 개념과 컴퓨터 스크린의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원했다.

이 책은 건축사와 건설업자 사이의 긴장에 대해 박진감있게 다루고 있다. Pollan은 자신이 자연과 시간을 초월하는 건물을 디자인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디자이너와 그 어떤 디자인 요소를 볼 수 없었던 건설업자의 지적인 중개인이었다.

저자는 건축이 어떻게 그 프로세스 상에서 통제력을 잃는지를 알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Pollan은 1990년대에 이 책이 초판되었을 때의 자연과 평범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핵심적인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원시적인 오두막을 위한 네 개의 벽과 하나의 지붕이 긴밀하게 그 기능을 한다면 왜 건축사들이 계속적으로 주거에 대해 새로운 상상을 할 것인가? 그의 오두막을 두고 말다툼을 해대던 건축사와 건설업자처럼 그 대답은 확실하다 – 건축사는 기본적이고 평범함을 넘어서는 신선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Earth Architecture:** by Ronald Rael, Edited by Linda Lee and Dorothy Ball,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9

Ronald Rael은 이 책은 1970년대 이후에 지어진 4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각 케이스 스터디들은 이 시대의 경향은 독창적인 건축의 하이브리드를 창조하기 위해 신기술과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축기법을 조합한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다.

Rael은 점토나 자갈과 같은 재료가 사용되면서 형태와 색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각 케이스 스터디들은 산업화, 생태계 그리고 정치 등을 포함하여 지구 건설이라는 주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구 건축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서두에서부터 하이브리드 건물과 건물의 디자인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담론까지 저자는 지구 건축의 주요한 주제와 40여개의 흥미로운 건축물의에 대해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

### ■ Projects

**New Acropolis Museum, Greece / Bernard Tschumi Architects**

*Bernard Tschumi Architects*는 *New Acropolis*를 위한 디자인에서 *Elgin Marbles*(고대 그리스의 대리석 조각)을 되 가져온 듯한 느낌을 실현한다.

아테네의 *New Acropolis Museum*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논쟁, 법정 소송 그리고 프로젝트의 연기는 *Bernard Tschumi Architects*에 의해 설계된 이 박물관을 지적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New Acropolis Museum*의 근엄한 형태는 1970년대 미국 건축의 하이 모더니즘을 떠오르게 한다.

박물관의 내부는 그 꼭대기 바닥에 파르테논의 대리석을 놓음으로써 아연실색할 정도로 멋진 세팅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불어 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기원전 5세기 신전과 같은 압도적인 광경을 만나게 된다.

실제로 박물관 내부의 우아한 디자인 특히, 파르테논 갤러리는 *Elgin Marbles*의 위해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모두들 수긍을 할 정도이다. 해가 가면 갈수록 그리스는 대리석들을 다시 아테네로 가져오기 위해 집요하게 논쟁을 하였다. 1975년 이래 정부는 아크로폴리스의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의 19세기 박물관을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충분한 거대한 규모의 박물관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워왔다. 마지막 계획에 이르기까지 네 번의 설계 경기를



New Acropolis Museum

거쳐 결정되었다. Tschumi와 그의 파트너 Michael Photiadis는 2000년에 네 번째 설계 경기에 들어갔다. Santiago Calatrava와 Dennis Sharp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은 Daniel Libeskind, Arata Isozaki, 그 외 9명의 건축가를 제치고 이들의 설계를 선택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2009년 6월에 개관되었으며 그리스 정치인들의 열정적인 호소에 Elgin Marbles는 결국 새로운 보금자리로 돌아와 박물관에 안착하였다.

Tschumi의 설계 컨셉은 세 개의 사각형 박스를 각각의 꼭대기에 쌓는 것이었다.

아래의 두 개는 거리의 축에 맞추어 배치하고 세 번째 박스는 파르테논 갤러리와 고대 신전을 나란히 놓이도록 하기 위해 23도 정도 각도로 회전시켰다. 이 갤러리에는 그리스 정부에 의해 되돌아 온 실제 조각과 영국에 의해 만들어진 Elgin Marbles의 석고상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이 3층에 도착

한 방문객들은 돌로 된 파르테논 갤러리의 높이가 주는 근엄함에 놀라고 내부 공간의 중앙에 놓여진 진품과 모조품의 대리석에 놀라게 된다.

파르테논 갤러리로 가는 길은 Tschumi가 박물관의 다양한 레벨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고안한 독특한 길을 따라 가야한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Periclean 신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전들에 속해 있는 조각들을 역사의 순서대로 먼저 보게 된다.

박물관의 동선은 각이진 나선형태를 하고 있으며 1층에서 시작된다. 진행이 되면서 방문객들은 기울어진 램프를 따라 올라가게 되며 마지막에는 건물의 남쪽 끝에 있는 높이 10m정도의 홀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디자인 팀은 기둥은 현명하게도 별별로 배치하고 조각상은 자유롭게 배치하여 그 규모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강조하였고 공간을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방문객들을 위해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선과 전시물의 배치는 이 박물관 내부 디자인에 있어 매우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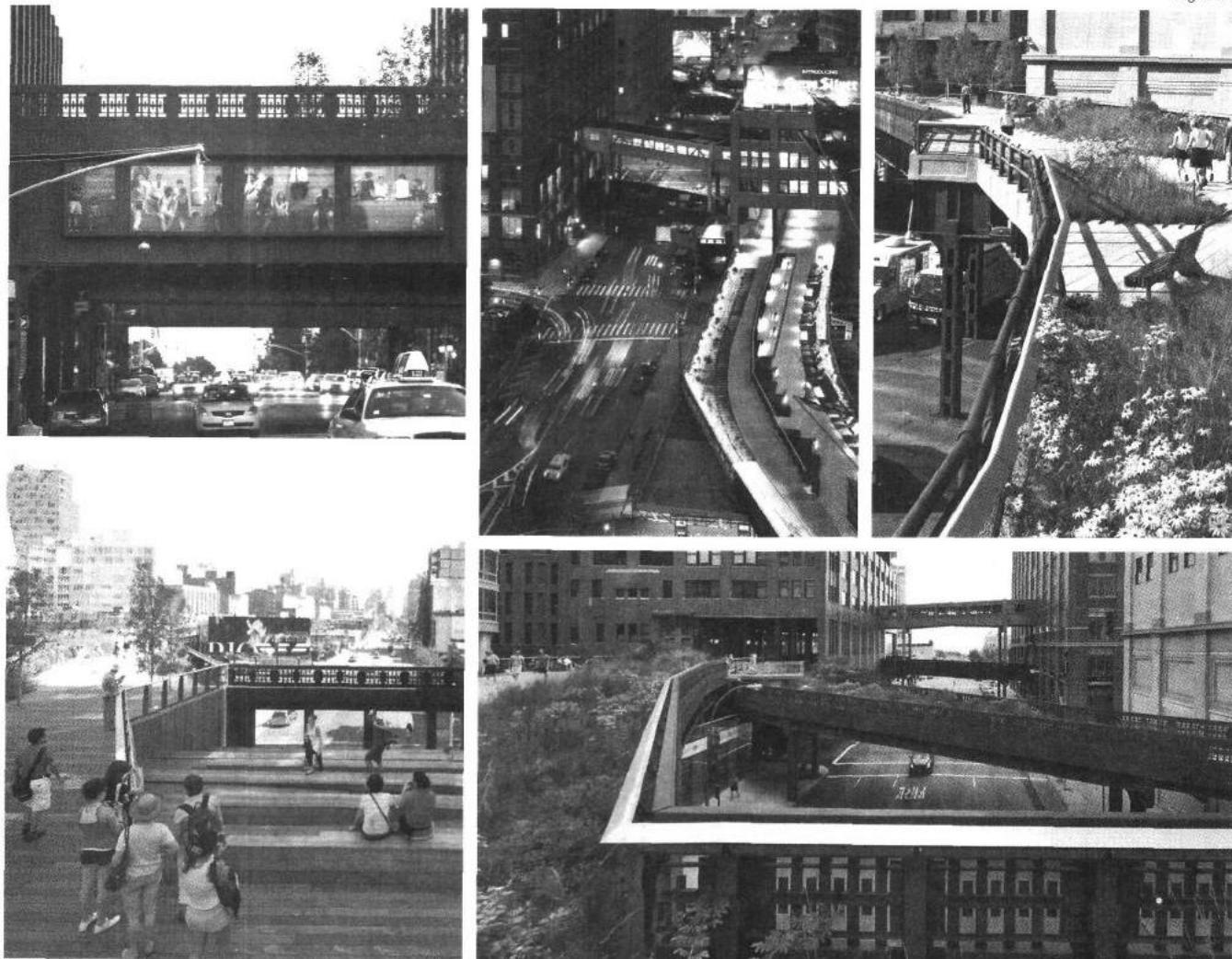
#### High Line, New York City / James Corner Field Operation

*James Corner Field Operation*과 Diller Scofidio+Renfro는 High Line으로 공원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을 뒤바꾸어 놓는다.

우리들의 개성처럼 도시의 정체성은 시간을 따라 진화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변한다면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 High Line은 Manhattan의 Meatpacking구역과 Chelsea를 구불구불 통과하는 고가도로를 고쳐 75년동안 계속적으로 바뀌어 온 이 지역에 각인을 시켰다.

1934년 도시의 서부에 고기와 우유의 수

High Line



송을 위해 만들어진 이 곳은 진보의 상징이었다가 점차 밤에는 창녀와 마약밀매상들이 돌아다니는 처치곤란한 쓸모없는 곳으로 변해갔다.

2004년 James Corner Field Operation(JCFO)과 Diller Scofidio+Renfro(DS+R)은 이 버려진 High Line을 고가 공원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디자이너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는데서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건물로부터 High Line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디자이너들은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High line을 수영장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클라이언트(비영리조직인 Friends of the High Laine과 뉴욕시)는 공중공원으로 결정하였다. 그 이전에 개인 개발자들이 철도를 수정하여 호텔같은 건물을 세우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이러한 High Line의 철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 실행이 되지 못하였고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도 시개발자들은 High Line은 철거대상이 아닌 점차 그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Hige Line의 구원운동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2001년으로, 2000년에 Joel Sternfeld가 그가 찍은 이 버려진 구조체의 사진이 출판되면서이다.

도시 복판에 있는 기차길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들의 잊혀지지 않는 매력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만들어 냈고 이는 High Line을 보호하자는 데로 의견이 수렴되게 하였다. 길 위를 가로지르는 길이 90m에 이르는 녹색의 리본에 대한 상상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굳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JCFO와 DS+R은 그러한 상상에서 보여지는 야생의 식물들을 심기로 결정하고 전문가를 통해 사시사철 꽃이 피게끔 식물들을 골랐다. 건축가들은 식재와 구조체 사이의 딱딱한 경계를 원치 않았다. 하드한 것과 소프트 한 것이 자연스럽게 섞인 긴 카펫과 같은 공원을 만들기를 원했다.

이 카펫은 콘크리트로 된 패널과 식물로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 건축사는 하드하고 소

프트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섞인 High Line을 ‘agri-ecture(농업+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원의 첫 구간은 Gansevoort가로부터 20번가까지의 뻗어있으며 이는 6월에 오픈하였다. 20번가와 30번가를 잇는 두 번째 구간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10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미정이긴 하지만 세 번째 구간도 계획 중에 있다.

“대부분의 공원은 도시로부터의 탈출을 도와준다. 그러나 이 공원은 우리들을 도시의 한복판에 있게 만든다.”고 Scofidio는 말한다.

MUMUTH Music Theater, Austria / UNStudio

UNStudio는 MUMUTH 음악당을 통해 Graz 시가 노래를 부르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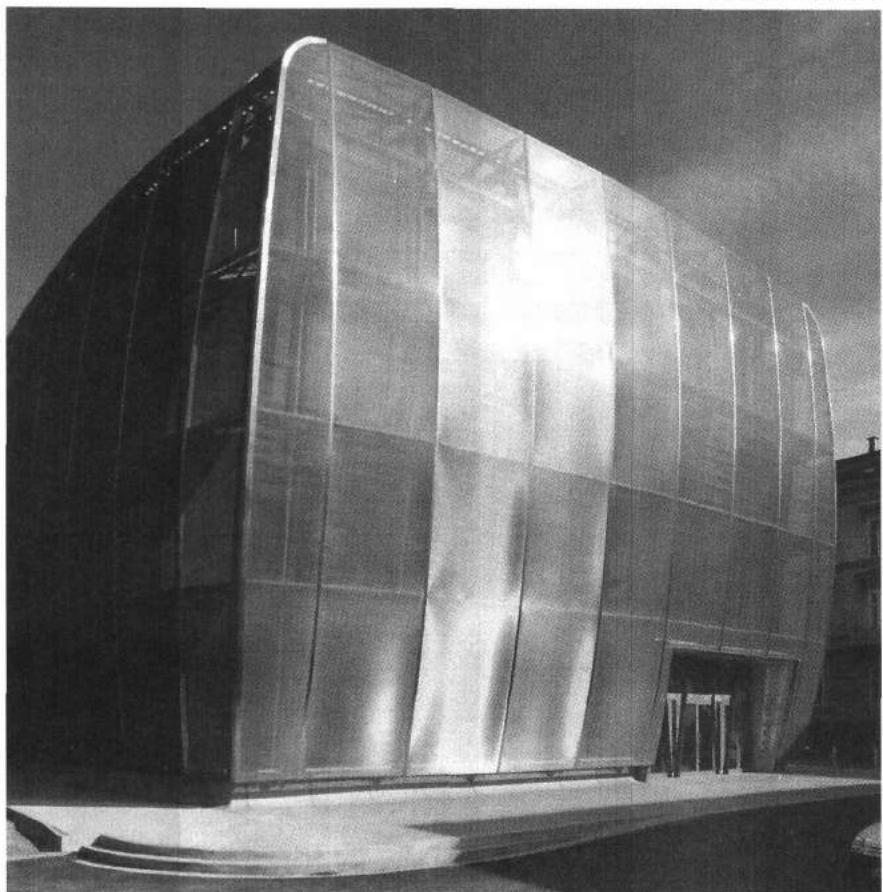
한 낮에 UNStudio가 디자인한 Haus für Musik und Musiktheater(MUMUTH)는

Austria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Graz의 Lichtenfelsgasse거리의 역사적인 주택들 사이에서 미스테리한 존재로 보인다.

섬세한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메쉬가 부드럽게 곡선을 그린 스틸 프레임에 붙어서 건물의 중심에 있는 콘크리트로 된 나선형 계단 뿐만 아니라 유리와 스틸로 된 건물의 4개 층을 완전히 감싸고 있다. 낮에는 학생들과 Kunstuniversität Graz(KUG)의 스태프만이 교육 및 행정공간을 사용하는데 그들은 서쪽에 있는 근처 공원으로부터 건물로 들어간다. 그러나 저녁시간에는 내부의 조명이 극장으로서의 건물의 공적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며 관람객들은 남쪽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입구로 이 음악당에 들어가게 된다.

MUMUTH는 2,100명의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 뿐 아니라 리허설 룸, 워크숍 그리고 라운지와 같은 공간이 필요했던 KUG에 의해 1998년 열렸던 설계경기의 결과이다.(이 극장은 대학의 이벤트가 아니라도 임대할 수 있다).

MUMUTH Music Theater





Ben van Berkel designed a stage set for the performance of Bach's St. John Passion that reflected in plan his spiraling foyer structure. The auditorium can accommodate 450 seats, for any number of stage configurations. The patterned walls of lacquered wood have acoustical properties.

MUMUTH Music Theater

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답처럼 Amsterdam에 있는 회사의 두 주인, Ben van Berkel과 Caroline Bos는 van Berkel이 이야기하는 디자인 컨셉 “물방울에서 박스로 그리고 다시 뒤로”에 따라 구조적으로 건물을 나누었다. 입구가 있고 공공 순환 공간은 남쪽의 물방울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극장의 북쪽은 박스형태이다. 두 개를 조합하는 것, 즉, 전체를 묶어주는 것은 뮤비우스의 띠같은 나선형의 계단이다. 이 계단은 1998년 Netherlands의 Het Gooi에 만든 Mobius House에서 사용해 보았던 것이다.

Van Berkel은 고아진 구조를 현대의 음악에서 음렬주의에 비유한다. 왜냐하면 간격, 방향의 변화를 조절하는 능력을 공유하

고 있고 지속성을 잃지 않고 스케일의 도약을 하기 때문이다. 건축사의 음악과 건축 사이의 확실한 공존은 심사위원이 이 설계를 채택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그의 나선형이 다른 음악이론과 관계가 있었던 하더라도 전자적인 빛과 음향기기를 위한 개념적인 모델로 그가 이야기하던 1960년대의 작곡가겸 건축사였던 Iannis Xenakis의 polytope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다.

공연을 보러오는 관객들은 역동적이고 볼륨감 있는 거대한 계단에 압도된다. van Berkel은 형태는 Stuttgart에 UNStudio가 만든 Mercedes-Benz 박물관에서 보다 더 도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나선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상

한치의 오차없이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를 위에서부터 붓지 않고 아래에서 펌프질을 하는식으로 채워서 하나씩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계단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극장 안의 450개 좌석은 매우 순종적으로 보인다.

오토리엄은 단순한 검정색의 박스다. Berkel이 직접 디자인한 무대는 Bach의 St.John Passion을 위한 것으로 홀의 나선 계단과 같이 계획된 것이었다. 외부 커튼 월에 쓴 것과 같은 패턴이 있는 라커칠 된 나무로 된 벽은 방음의 효과가 있다.

세련된 전자음악과 창조적인 건축의 조합은 미래의 퍼포먼스들을 생각해 볼때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